

전라북도 도제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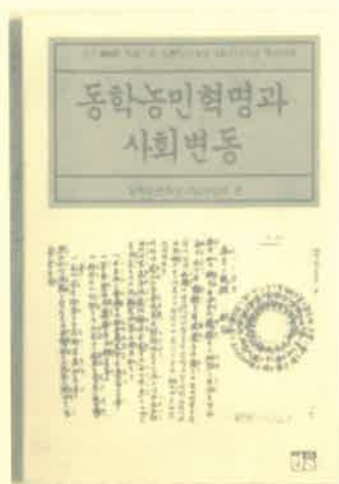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과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

일시 / 1996. 10. 31.(목) 10시~18시

장소 / 전주 코아호텔 무궁화홀

□ 주최 : 사)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북일보사

□ 후원 : 전라북도 □ 협찬 :  株式会社 世 豊



동학농민혁명과 사회변동

-한울출판사-

1993년 5월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을 앞두고 전주MBC가 주최한 '동학농민혁명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논문과 토론내용을 수록한 책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출판사-

1994년 6월에 열린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내용을 수록한 책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일찌기 선조들이 우리 역사에 피로써 아로새긴 반외세·반봉건이라는 빛나는 민족정신을 울곧게 계승하여 민족통일국가 실현의 바탕으로 삼고자 1992년 6월 13일에 창립된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기념사업회는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기념대회, 고부봉기 역사맞이곳, 전봉준 장군 순국 100주기 추모제를 비롯한 문화예술 공연, 학술, 출판사업 등 각종 기념사업을 기획하고 실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일본 북해도대학 문학부 사무실에서 신문지에 싸여진 채 발견된 동학농민혁명군 지도자의 유골을 국내로 정중히 봉환하여 안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또한 올해 전라북도 도제 100주년을 맞아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전북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전적지 답사와 삼례봉기 기념비 건립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념사업회는 그동안 펼쳐왔던 각종 사업들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기념교육관 건립, 무명 농민군 묘역 조성, 삼례봉기 기념탑 건립 등의 사업과 전북의 지방사 및 동학농민혁명사 교재 편찬을 통한 후대 교육사업에도 힘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07-11

전화: (0652)252-8600/팩스: (0652)252-8599

전라북도 도제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동학농민혁명과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

학 술 회 의 일 정

주제 : 동학농민혁명과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

개회식 (10:00~10:50)

개 회 사

축 사

발표자 소개

기조강연 : 지도부는 이렇게 형성되고 통합하였다./ **이이화**(역사문제연구소 소장)

<제1부> 주제발표 (11:00~12:30)

동학농민혁명과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 / **박찬승**(목포대 교수)

충청도지역 동학농민전쟁과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 / **배항섭**(국방군사연구소 연구원)

경상도지역 동학농민혁명과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 / **신영우**(충북대 교수)

사회 : **이진영**(전북대 강사)

전북대 총장 초청오찬 (12:40~13:40)

<제2부> 주제발표 (14:00~15:30)

최시형과 서장옥 -남북접 문제와 관련하여 / **장영민**(상지대 교수)

전봉준과 김개남의 정치적 지향과 전략 -9월 재봉기를 중심으로 / **이진영**(전북대 강사)

김덕명 · 손화중 · 최경선의 행적 -농민혁명 지도자에 대하여 / **표영삼**(천도교 상주선도사)

사회 : **이종민**(전북대 교수)

<제3부> 종합토론 (15:50~18:00)

토론자 : **이영호**(인하대 교수), **양진섭**(규장각 연구원)

정진영(동명정보대 교수), **송찬섭**(방송통신대 교수)

박맹수(영산원불교대 교수), **최순식**(모악 향토문화연구회장)

사회 : **박맹수**(영산원불교대 교수)

목 차

- 지도부는 이렇게 형성되고 통합하였다. 7
이이화(역사문제연구소 소장)
- 동학농민혁명과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 14
박찬승(목포대 교수)
- 충청도지역 동학농민전쟁과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 25
배항섭(국방군사연구소 연구원)
- 경상도지역 동학농민혁명과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 38
신영우(충북대 교수)
- 최시형과 서장옥 - 남북접 문제와 관련하여 48
장영민(상지대 교수)
- 전봉준·김개남의 정치적 지향과 전략 - 9월 재봉기를 중심으로 61
이진영(전북대 강사)
- 김덕명·손화중·최경선의 행적 - 농민혁명 지도자에 대하여 75
표영삼(천도교 상주선도사)

지도부는 이렇게 형성되고 통합하였다.

이이화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1. 말을 시작하면서
2. 지도부의 형성과 세 지도자
3. 여러 지도부의 성분과 성향
4. 마무리 말

1. 말을 시작하면서

동학농민전쟁이 진행되면서 일시, 단순 가담자를 포함하면 1백만명 이상이 참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인구로 보아 엄청난 숫자이다. 이런 많은 숫자의 집단을 거느리고 지휘계통을 세우며 타도집단을 정치하고 전쟁을 수행하려면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더욱이 규율이 없고 훈련을 받지 않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을 이끌어가는 데는 특별히 지도자의 능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들 지도자는 적어도 뛰어난 정치감각, 탁월한 리더쉽,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들 주체세력을 주도층과 참가층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이들 주체세력은 봉건모순과 민족모순의 직접적 피해자로서 자신들의 한 역사적 역할을 담당하고 추진하였다. 그동안 주도층은 잔반층, 부농층, 빈농층이 각기 그 중심세력이 되었다는 주장이 있어왔고 참가층은 하층 빈농층, 영세 수공업자, 영세 상인 등이었다는 견해가 있어왔다.

또 그 참가층을 단순 가담자와 적극 가담자, 그 주도층을 주변 지도부와 핵심 지도부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이는 그 계급성분으로 따져 아주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럴 적에 가장 기본동력인 참여층이 빈농 천민 중심이라는 단순 구분만으로는 그 본 모습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 다시 말해 빈농 주도설 또는 천민 주도설이라는 도식으로는 그 성격 규명에 한계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그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세력 중에서 일단 주도층인 지도부의 성격을 분석하여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개항 이후 19세기 말에는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고 있었다. 그 여러 모순중에서 토지문제와 조세문제가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토지 소유의 확대와 민씨 등 관료형 지주의 탐욕과 국가재정의 파탄으로 조세수탈의 가중이라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와 함께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 주권이 유린되는 현실이 구체화되고 있었다. 더욱이 수입과 수출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침탈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민족모순의 틈바구니 앞에서 농민층의 분화도 가속화하였다. 이렇게 하여 동학농민전쟁의 주체세력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

첫째 주체세력은 사회신분과 경제수준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이로 따져 볼 적에 천민인 노비 백정을 기본축으로 해서 몰락양반 평민 상민이 이 범주에 든다. 경제 수준으로 따져 볼 적에 중소지주 빈농 소상인 어민 고용인 등이 이 범주에 든다. 여기에서 하부세력으로 무뢰배 유랑민을 들 수 있다. 이들 주체세력은 가장 큰 모순의 담지자로 농민전쟁의 수행 과정과 집강소 통치 기간에 기본동력이 되었다. 접주 집강은 그 신분과 경제수준을 뚜렷이 구분할 수가 없으나 일선 행정의 감독과 호위를 맡은 성찰(省察)은 대부분 상천민으로 구성되었다. 흔히 동학에는 반불입(班不入), 사불입(士不入), 부불입(富不入)이라고 말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초기 동학 교단의 경우를 말한 것이지 후기 농민전쟁 수행과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지도부는 전체의 주체세력과 달리 향반 중소지주와 농촌 지식인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들은 직접 모순의 담지자이기도 하려니와 동시에 모순을 해결하려는 계층이었다. 적극적 주도층이었다. 특히 몰락양반과 향반층은 향권에서 소외된 경우, 새로운 신분상승의 통로가 막힌 경우, 국가권력이나 수령으로부터 불법의 수탈 대상이 된 경우, 반봉건 항쟁에 나서기도 하였으나 경북궁 구데타와 2차봉기 무렵 항일의식이 고양될 적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주체세력의 동력을 끌어내거나 조직화하여 농민전쟁을 유발해내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폐정개혁을 주도하기도 한다.

농민전쟁의 과정에서 남접 5대 지도자로 일컬어지는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최경선 김덕명은 신분으로는 향반이나 그에 준하는 층이었으며 경제수준으로는 소작농인 전봉준을 제외하면 모두 중소지주 출신이었다. 그리고 상당한 지식인이었다. 물론 예외는 있기는 하나 상천민출신은 접주나 집강을 거의 맡지 않았다. 그 원인의 하나로 이들이 향촌의 질서를 바로 잡거나 물적, 인적 동원에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에 비해 지도부를 구성한 층은 이런 점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2. 지도부의 형성과 세 지도자

지도부는 운동의 과정에서 단계를 거치면서 부상하고 있다. 처음 동학조직에서는 뒷날 봉기 주도층이 부상되지 않는다. 현실 대처를 놓고 온건파와 강경파가 갈릴

적에 강경파는 교단조직에서 밀려나고 있었다. 서장옥은 강경파로 남쪽의 지도층을 키워나갔다. 그리하여 삼례집회와 원평집회를 통해 남쪽의 지도부가 부상하고 있었다. 삼례집회에 전봉준이 감사에게 건의문을 내는데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원평집회에서는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이 주도하였던 것이다.

원평집회는 사실상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단계였다. 여기에서 세 지도자가 부상했고 이들이 결국 전쟁과 혁명을 이끌어 갔다. 그후 9월 2차봉기 단계에 와서 남쪽에 북쪽세력이 대거 봉기에 참여하였다. 이때에 북쪽 교단의 지도자들이 전쟁의 지도부로 바뀌어졌고 각지의 접주들이 지역의 농민군을 이끌었다.

이리하여 전과정에서 각기 농민군의 연합전선을 형성하면서 이끌었거나 지역에서 역할을 한 지도자가 떠올랐던 것이다. 따라서 5대 지도자, 10대 지도자가 등장하였다. 5대 지도자라면 최경선 김덕명이 더해지고 10대 지도자라면 이방언 김인배 손병희 차기석 이용구(또는 박인호)를 꼽을 수가 있겠다. 5대 지도자는 남쪽으로 첫 봉기에서 끝 단계에 걸쳐 주도하였고 10대 지도자는 2차봉기 단계에서 활동한 것을 두고 꼽은 것이다.

우선 세 지도자의 역할과 노선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주화해 이후 집강소 기간을 거치며 세 지도자는 각기의 역할을 맡게 된다. 다시 말해 귀화라는 명분으로 집강소 통치를 강화하거나 확대하고 있었다. 김개남은 장수 임실일대를 순회하였고 손화중은 장성 광주 등지를 순회하였다. 이와 달리 전봉준은 최경선을 수행원으로 하여 금구 김제 태인을 거쳐 장성 담양 순창 옥과 남원 창평 순천 운봉을 순회하였다. 다시 말해 김개남 손화중은 일부 지역을 순회하였으나 전봉준은 호남 전지역을 순회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바로 집강소를 통한 권력 투쟁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전봉준과 김개남은 6월초 남원회합을 갖고 집강소 통치문제를 상의하였다. 이런 상황 아래 전라감사 김학진은 이들을 회유키 위해 효유문을 도내에 띄우고 기존의 면리집강을 통해 역울한 일을 해결케 한다는 소위 폐정개혁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농민군 지도부는 면리 단위의 전통적 집강체제를 거부하고 군현 단위의 새 집강소 체제를 요구하였다. 이 요구는 단계를 거치며 실현되었고 따라서 농민군의 통치행위가 이루어졌다. 집강소 통치는 전봉준의 뛰어난 정치감각에 의해 이루어졌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이런 사정 아래에서 주도권 싸움이 있었다. <오하기문>에는 이렇게 전한다.

적이 처음 고부에서 일어날 적에 그 괴수는 태인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좌우도를 통해 태인접이 으뜸이었다. 다른 접은 모두 태인을 모칭했으나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했다. 또 승전접이 있었는데 전봉준 등을 따라 고부 장성에서 이기고 전주를 함락한 자들이다. 도둑들이 그 공을 인정하여 특별히 승전이라 부르며 표했는데 여러 접중에 더욱 교만하고 횡포를 부렸다.

전봉준 계열의 승전점과 김개남 계열의 태인점을 말하고 그들끼리 갈등과 주도권 싸움이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그 후에 더욱 복잡해진다. 7월 15일 지도부는 남원대회를 갖는다. 그리고 집강소 통치의 강화를 다짐한다. 이때 감사 김학진은 경북궁구데타에 따른 항일전선의 구축을 위해 군관을 보내 연합을 제의한다. 이때 전봉준은 이에 동의하나 김개남은 불응한다. 전봉준은 김학진과의 연합을 동의하나 김개남은 독자노선을 지향했던 것이다. 이로해서 전봉준은 김학진을 끼고서 기화로 삼고 일도를 전제했다는 것이었고 김개남은 타협을 거부한 채 더욱 강경한 반봉건 투쟁을 벌인 것이다. 손화중은 장성 광주 일대에 머물며 여기에 참여치 않았다. 손화중은 고창 일대에서 천민부대를 거느리고 집강통치를 강화하는데에 더 열중하고 있었다.

8월 25일에 김개남은 남원을 차지하고 앉아 독자적 영역을 구축했고 이에 따라 좌도의 농민군은 김개남 휘하로 집결했다. 곧 순창 용담 금산 장수 남원 등지가 김개남의 관할지역이었다. 김개남이 남원에 웅거하자, 전봉준과 손화중이 달려갔다. 전봉준은 귀화를 핑계대서 여러 고을 흩어져 있다가 정세의 변화를 살펴보고 행동을 결행하자고 제의하였으나 김개남은 대중이 한번 흩어지면 규합하기 어렵다고 말로 거부한다. 또 손화중이 뒤따라 와서 사족과 부자와 선비가 따르지 않고 도둑을 일삼는 무리들 뿐이니 사방에 흩어져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의를 한다.

여기에서 세 지도자의 시국관이나 정치감각의 차이를 여실히 들어내고 있다. 정석모의 <갑오약력>에는 이렇게 전한다.

전봉준은 수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금구의 원평에 웅거하면서 우도에 호령을 행하고 김개남은 수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남원성에 웅거하면서 좌도를 통괄하였다. 그 나머지 김덕명, 손화중, 최경선의 무리는 각기 한지방에 웅거하였다. 그런데 그 탐학과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개남이 첫째였고 전봉준 같은 자는 동학교도를 이끌어 혁명을 도모하였지만 이른바 거괴의 무리는 스스로 대장이라 일컫고 주구(誅求)를 일삼으면서 약속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전봉준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들은 예전의 후삼국을 꿈꾸어 분할통치를 꾀했다고도 한다. 감이 익기도 전에 따먹자는 것이었다. 이로 보아 전봉준은 중도 좌파로, 김개남은 강경파로, 손화중은 온건 우파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손화중과 김덕명 최경선 등 우도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전봉준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 그리하여 관변이나 일본측, 충청도 경상도 지역에서 거괴를 전봉준으로 지목하였던 것이다. 일본측은 전봉준이 동학도 안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을 적에는 그래도 동학도 중에서 다소의 양민과 의사를 찾아볼 수가 있었으나 봉준이가 일단 그속에서 떠나자 양민 의사들은 모두 흩어져 갔다고 이해하였다. 김개남은 남원을 중심으로 왕을 표방하고 독자노선을 추구하고 있었으나 그 영향력은 국지성을 띠고 있었다.

그러면 세 지도자의 성격과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다. 김개남은 앞

에서 본대로 강경노선을 추구하였고 비타협으로 일관하였다. 김학진의 연합도 거부하였고 양반 토호의 정치에 격렬하였다. 그는 협조를 거부하는 수령을 서슴없이 처단하였다. 전봉준은 관민상화(官民相和)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김학진의 협력을 얻어 집강소 통치의 원할을 기했고 대일항쟁에 역량을 결집시키려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일본의 현양사 낭인들이 찾아왔을 적에도 거부보다 대화를 택했다.

손화중은 현실에 회의를 보이면서도 전봉준 노선에 기울어졌다. 그가 2차봉기 때 비록 전봉준의 지시에 따라 광주 등 남쪽 지역의 방위에 나섰으나 중심부에 참여하여 공주전투에 합류치 않은 것도 이런 일면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는 야심보다 합리를 택했으며 언제나 온건한 입장을 보였다. 인격자이지 혁명가의 맛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들은 인간적 성격의 차이도 상당히 두드러지게 들어낸다. 김개남에 대해서는 광망포악하기가 여러 도둑 중에서 으뜸이어서 사람들이 호랑이와 이리같이 두려워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김개남이 지략이 없다는 말과는 다르다. 홍선대원군의 사자가 왔을 적에 전봉준이 이들을 죽이라고 당부하자 자신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는 계책이라고 놓아준 일도 있다. 그러면서 과단성이 있었고 부하가 명령을 어기면 가차없이 군법을 시행했다. 수령들이 고분히 따르지 않으면 자신이 정한 군법에 따라 처단하였다.

전봉준은 신중하면서 때로는 타협, 때로는 과단성을 보였다. 그는 강은 양면을 구사하며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는 자기 손으로 사람을 결코 죽이지 않는다. 논산에서 관군의 첩자로 혐의를 받은 김원식을 이유상의 손으로 죽이고 자신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압송받을 적에 현관들을 보고 호통을 치며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고 재판을 받을 적에도 기개를 과시하여 일본 기자들의 존경을 받았다.

손화중은 전봉준과 함께 압송될 적에 나주목사 민종렬을 보고 머리를 조아리며 소인이라고 자신을 일컬었다고 하여 전봉준의 꾸지람을 받았다. 이는 그가 수령을 대하는 예의를 지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손화중은 교양인으로 예절을 잘 지켰고 이로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수하로 물려들었다. 그의 수하는 농민전쟁 기간 많은 참가충을 이루었으나 그 추진은 전봉준이나 최경선이 맡았다.

3. 여러 지도부의 성분과 성향

필자는 농민전쟁 과정에 나타난 28인 지도자의 출신과 활동을 추적한 바가 있다. 이 선정은 활동의 정도와 지역활동을 감안하였고 때로는 지도부에 속하지 않는 하급 농민군도 포함시켰다. 이런 단순가담의 농민군의 경우 지역활동과 그 범위를 알아보는 데에 도움을 준다.

먼저 출신지역으로 구분하면 전라도 12명, 충청도·경상도 3명, 강원도와 황해도

각 2명, 서울 경기지역이 2명, 미상 1명이다. 전라도와 충청도 출신이 18명으로 절대 우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함경도와 평안도 출신은 나타나지 않는다. 경상도 출신의 경우, 그 실상에 비추어 비중이 약하나 자료 발굴이 적었던 것도 원인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몇 명의 경우, 출신지역과 활동지역이 달랐다. 곧 전라도 출신 김인배는 경상도 지역에서 많이 활동했고 경상도 출신 이상옥은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활동했고 강원도 출신인 최맹순은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했으며 서울 출신인 홍낙관은 전라도지역, 경기도 출신인 서장옥은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다. 이는 주전선에서 활동한 지도자를 말한 것이 아니다. 국지적으로 활동한 것이다. 또 한 지역내에서도 거주지보다 다른 고을에서 활동한 경우도 많다.

다음 활동할 당시 나이를 따져 보면 30대 9명, 40대 7명, 50대 3명, 20대 4명, 60대 2명, 10대 1명, 미상 2명 순으로 나타난다. 지도부의 중심 나이는 30대와 40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도력과 역량과 관련이 매우 깊을 것이다. 20대의 김인배와 정백현 등은 중심 역할을 했으나 10대의 김구는 작은 고을의 접주로 일선 지휘자로 활동한 경우도 있다.

이들의 신분과 경제수준을 보면 이렇하다. 향반 12명, 평민 상민 아전 14명, 유생 2명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향반은 몰락 양반과는 구분되며 적어도 사족이라 할 토반과도 구분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과거를 볼 수가 있는 신분층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직업으로나 신분으로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층이었다. 이렇게 분석될 적에 향반이 지도부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들의 불만과 소위 그리고 지식 수준이 바로 저항운동을 이끌어낸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다음 경제 수준으로 볼 적에 부농 중농 12명, 빈농 14명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유생 2명이 끼어 있다. 여기서 부농은 잉여생산물을 갖은 지주층을, 중농은 자급자족 또는 소량의 잉여생산물을 가진 중간지주층을 의미한다. 빈농의 범주에는 자급자족의 생계를 꾸릴 수가 없는 농민과 아무 직업 없이 유랑하는 유랑민 용기장수 산포수이다.

그러나 양반출신의 대지주, 사족의 후예, 고관의 후손들은 중심 지도부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 낮은 향반과 중간지주가 지도부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료 양반 출신인 김학진이나 진주병사 민준호 등이 동조세력으로 등장하기도 하나 어디까지나 주변부에 속한다. 또 대지주나 요호 부민층은 금전이나 양곡의 지원을 하면서도 지도부로는 나서지 않았다.

4. 마무리 말

이상으로 세 지도자와 주변부 지도층을 몇 가지 각도에서 살펴 보았다. 그러나 전

봉준이 총대장의 지휘권을 행사했으나 완전한 명령계통이 확립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할 지도 모른다. 이는 바로 군웅할거의 양상인 탓이었다. 아무튼 이들은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으로 보아 중간층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들이 국가의 조세나 지방의 잡세 징수 대상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서민 지주나 평민 부농층과 그 이해에 있어서나 정서로 보아 동질의 계층이었다. 적어도 19세기 전기간에 걸쳐 농민 분해가 이루어질 적에 위의 서민지주와 평민 부농, 아래로 소작농민과 무전농민의 중간에서 이를 대변하고 항세와 항조운동을 지도하고 나아가 변혁운동에 나섰던 것이다.

또 신분상승 욕구가, 그전 시기 과거를 통해서 보다 더욱 민씨 세도 아래에서 막히고 온갖 경제적 불평등 관계가 심화되자, 그들의 행동목표는 확실해졌던 것이다. 이어 제국주의자들의 주권 유린과 문화적 침투, 경제적 침탈이 가중되자, 민족적 위기를 감지하고 또 경제적 몰락이 심화되는 속에서 민족모순 해결의 선두가 되었다. 이들이 때로 근왕적(勤王的) 의식이 깔려 있고 현실 대처의 이론적 토대가 약할지라도 아래로부터의 변혁운동에 기본 추진세력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 지도부는 추진동력으로서의 주체세력이나, 생존을 위한 단순 가담층이나 방관적 기회주의적인 서민지주나 평민형 부농층보다 시대를 고민하는 지식인이었고 현실을 개혁하려는 역사인이었다. 이들은 갈등과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도 끝내 대일항쟁에 대통합을 보였던 것이다.

동학농민혁명과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

박 찬 승 (목포대 교수)

1. 농민군 지도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2. 농민군 지도부의 구성
3. 농민군 지도부의 사회적 성격

1. 농민군 지도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1894년 농민봉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농민봉기의 주체가 누구였고, 또 농민군은 농민봉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향하였는가 하는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최근 학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어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농민봉기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주로 그 주도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몰락양반설, 빈농(혹은 소작빈농)설, 요호부민설 등이 제기되어 왔다. 한우근 교수는 농민봉기를 주도한 동학접주들이 대체로 몰락양반의 후예, 즉 殘班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은 하층 신도인 농민들과 거의 차이가 없는 곤궁한 처지에서 농민봉기의 선두에 섰다고 보았다.¹⁾ 한편 신용하 교수는 농민전쟁의 주체세력은 사회신분에서는 '양인층'과 '노비를 중심으로 하는 천민층'이었고, 사회계급에서는 '소작농을 중심으로 한 빈농층'이었다고 보았다.²⁾ 정진상 교수도 농민전쟁의 주체세력은 신분적으로는 양인을 주로 하고 천민층이 가담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빈농층을 주축으로 한 광범한 농민층이었다고 보았다.³⁾ 정창렬 교수는 농민전쟁의 주체는 '농민계층'이었으며, 빈농·소농은 전쟁의 주력층이었고, 부농·중농은 동조층이었으며, 주도층은 남접의 동학접주들이었다고 보았다.⁴⁾ 한편 필자는 농민전쟁을 지도한 것은 전라도의 동학조직을 장악한 전봉준 등 혁신적 지식인층이었으며, 그들을 뒷받침해준 중심세력은 빈농층이었다고 본 바 있었다.⁵⁾

1) 한우근, 1983 『(全訂版) 東學과 農民蜂起』, 일조각, 206쪽

2) 신용하, 1993 『東學과 甲午農民戰爭研究』, 일조각, 114쪽.

3) 정진상, 1992 『갑오농민전쟁에 관한 사회사적 연구 -농민군의 역사적 지향과 전쟁의 결과를 중심으로-』(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59쪽

4) 정창렬, 1991 『甲午農民戰爭研究 -전봉준의 사상과 행동을 중심으로-』(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77-190쪽

그런데 최근 경상도지역의 사례연구에 주력해온 신영우 교수는 예천·상주·김산 세지역의 경우 조사 가능했던 농민군 지도자 21명 가운데 7명이 상급 양반층에, 10명이 하급양반층에 속하였다는 것과, 또 경제적으로도 조사 가능자 13명 가운데 2명만 빈농이었고, 나머지 10명은 부농에서 중소지주에 해당하는 요호부민층이었으며, 1명은 대지주였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⁶⁾ 또 이이화 선생도 농민봉기의 상층 지도부 가운데에는 향반과 중간지주가 많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⁷⁾ 필자도 최근 호남 남부지방의 사례연구를 통해 농민군 지도자들 가운데 부농·중소지주와 같은 요호부민층이 많았음을 확인한 바 있다.⁸⁾

그런데 최근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농민군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인 김개남을 비롯하여 다수의 농민군 지도자를 배출하고, 태인에서 반농민군을 일으키는 데 주역이 된 인물들을 다수 배출한 道康 金氏 일문을 분석한 이진영씨는 농민군 지도자들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른바 ‘몰락양반’들이었다는 설을 제기하면서 최근의 요호부민설, 향반설을 비판하고 나섰다.⁹⁾ 이 연구는 농민군 지도자들이 도강 김씨 일문에서 소외되어 이렇다할 세력이 없었던 가계에서 배출되었음을 지적하고, 이들은 사실상 ‘良民’과 다름없는 ‘殘班(몰락양반)’이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그동안 실체가 명확치 않은 가운데 제기되던 ‘향반설’의 문제점을 상당히 정확하게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연구도 농민군 지도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 도강 김씨 일문에 한정된 연구라는 점 등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여겨진다. 또 경제적으로 몰락했던 ‘잔반’이나 평민층이 경제적으로 서서히 부를 축적해나가면서 농민군 지도자로 나섰을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전쟁의 지도부가 주로 ‘잔반’이었다면 1894년 농민봉기는 ‘빈민 폭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 반면에 ‘잔반’층 혹은 평민층 가운데에서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해나가면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라면 이 봉기는 ‘사회혁명’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학계의 쟁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농민군 지도부의 사회 신분이 평민인가, 향반인가 하는 점, 또 향반이라면 그들이 향촌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어떠했는가, 즉 비교적 세력이 있는 이들이었는지 아니면 실세한 ‘殘班’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그들이 경제적으로 부농 혹은 중소지주와 같은 부민층이었는가, 중농, 소농층이었는가, 아니면 궁핍한 계층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5) 박찬승, 1985 『동학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지향』, 『한국민족주의론』 3, 역사비평사, 75쪽

6) 신영우, 1991 『甲午農民戰爭과 嶺南 保守勢力의 대응 -예천·상주·김산의 사례를 중심으로-』(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378쪽

7) 이이화, 『농민전쟁의 지도부연구 -전봉준·김개남·손화중을 중심으로-』 『1894년 농민전쟁 연구』 5, 역사비평사 (미간)

8) 박찬승, 1994 『1894년 호남남부지방의 농민전쟁』 『1894년 농민전쟁연구』 4, 역사비평사

9) 이진영, 1996 『東學農民戰爭과 全羅道 泰仁縣의 在地士族 -道康 金氏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농민봉기의 주체는 다시 지도부와 일반 농민군 대중으로 나누어 파악해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 가운데 호남 지방의 농민군 지도부를 검토함으로써 1894년 농민봉기의 성격을 부분적이거나 해명해 보고자 한다.

2. 농민군 지도부의 구성

1894년 봄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이 그해 3월 무장에서 봉기를 선언함으로써 농민봉기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자, 호남지방의 동학교도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세력과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金洛鳳履歷』에 의하면, 부안 집주 金洛喆은 전봉준과 손화중이 무장에서 봉기하자 大亂이 일어날 것같은 기미를 보고 이를 우려하여 그의 동생 김낙봉 편에 편지를 보내 최시형에게 이같은 사실을 고하였다고 한다. 최시형은 이 편지를 靑山 文巖里에서 받아보고 “이 또한 時運이니 금지키 어렵다. 그러나 너는 형과 더불어 상의하여 接內를 정중히 단속하고 蟄伏함을 위주로 하라”고 답하였다 한다.¹⁰⁾ 이에 김낙철·김낙봉 형제는 최시형의 가르침을 따랐으며, 그들과 뜻을 같이하는 이들 40여명은 “전봉준과 손화중이 하는 일은 敎外의 일이니 상관하지 말자”고 서명한 책자까지 만들었다고 한다.¹¹⁾

그런데 당시 전봉준의 봉기에 호응하여 일어난 동학교도들은 대체로 徐璋玉의 영향력 하에 있는 세력이었다. 즉 전봉준이 봉기한 직후의 시점에서 珍山에서도 동학교도들이 봉기하였는데, 이를 김낙봉은 ‘서장옥관하’의 교도들이라고 기록하였던 것이다.¹²⁾ 또 황현의 『梧下記聞』에서도 당시 사람들이 서장옥의 이른바 ‘徐包’를 ‘起包’라 칭하였고, 최시형의 이른바 ‘法包’를 ‘坐包’라 칭하였으며, 전봉준 등은 모두 ‘徐包’에 속한다고 기록하였다.¹³⁾

한편 오지영의 『동학사』(초고본)에서는 당시 봉기의 중심인물은 전봉준·손화중·김개남·김덕명·최경선 등 5인이었으며, 이 중에서도 茂長의 孫化中, 泰仁의 金開南(金箕範), 金溝의 金德明 등 3인은 당시 전라도에서 최고 두령격으로 있던 인물이었다고 기록하였다. 그밖에 『동학사』(초고본)에서 1차 봉기 당시 참여한 것으로 기록한 유력한 동학교도들은 고창·무장·홍덕·영광·정읍·태인·금구·김제·옥구·만경·무안·임실·남원·순창·진안·무주·부안·장흥·담양·창평·장성·능주·광주·나주·보성·영암·강진·장수·홍양·해남·곡성·구례·순천·전주 등지의 171명이었다.

이들 지역의 농민군 지도자들은 대체로 각 지역의 동학접주, 혹은 접사 등의 위치

10) 『金洛鳳履歷』, 3-4쪽

11) 같은 책, 14쪽. 이 책자는 나중에 오권선을 추적하러 부안까지 온 나주의 수성군들에 의해 압수되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책자에는 오권선(오중문)의 이름도 들어 있었다고 하며, 이로 미루어 보아 오권선도 1차 봉기 당시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2) 같은 책, 4쪽

13) 『梧下記聞』 首筆, 『동학농민전쟁사료대계』(이하 『사료대계』라 칭함) 1, 여강출판사, 54쪽

에 있던 이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 명단 가운데에는 1차 봉기 당시, 즉 무장기포 시가 아닌 집강소 설치 시기에 비로소 참여한 일부 북접 접주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⁴⁾ 이와 관련하여 『천도교회사 초고』에서는 위의 『동학사』(초고본)과 다소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즉 1차 봉기 당시 참여한 접주들을 고부·옥구·정읍·태인·만경·금구·김제·고창·무안·담양·무장·임실·남원·순창·진안·무주 등지의 접주 89명으로 한정하여 기록하여, 『동학사』(초고본)에서 1차 봉기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한 영광·부안·장흥·창평·장성·능주·나주·광주·보성·영암·강진·장수·홍양·해남·곡성·구례·순천·전주 등지의 접주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신 『천도교회사 초고』에서는 9월의 2차 봉기 당시 호남지방에서 새로이 참여한 이들 126명을 따로 기록하였는데, 이들의 지역 기반은 부안·익산·함열·임피·장수·김제·금구·만경·여산·고산·진산·금산·전주·임실·남원·순창·장흥·창평·장성·능주·광주·보성·나주·영암·강진·구례·해남·곡성·영광·홍양·순천 등지였다.

『천도교회사 초고』에서 2차 봉기에서 처음 참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북접계통의 접주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 기록은 『동학사』(초고본)보다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1차 봉기 당시 광주·순천·장흥 등지에서도 참여한 것은 비교적 확실하게 여겨지고, 또 2차 봉기 시에도 부안의 김낙철 형제 등은 이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¹⁵⁾ 『천도교회사 초고』도 확실한 기록은 못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농민군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세력이 컸던 것은 무장의 손화중, 태인의 김개남, 금구의 김덕명이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손화중 세력과 김덕명 세력은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의 주력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봉준이 이끄는 주력군은 금구·고부·무장·고창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김개남은 뒤에서 살피는 것처럼 6월 이후 남원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동학접주들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였다. 즉 김개남은 남원의 김흥기, 진안의 이사명, 담양의 남주송(남웅삼), 홍양의 유희도(유복만) 등의 접주를 중심으로 전라도 동부 지역에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하였으며, 임실·곡성·구례지방까지도 영향권 하에 두었던 것이다.

또 금구의 김인배는 순천으로 이동하여 이웃한 낙안·송주·광양지역의 농민군을 지휘하면서 상당한 세력을 이루었다. 무안의 배규인(배상옥)도 무안·함평 지역의 농

14) 예를 들어 임실의 崔承雨는 북접의 도접주로서 1차 봉기시에는 봉기를 거부하였다가 집강소시기에 비로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천도교임실교사』(1980년), 15-17쪽). 그런데 『동학사』(초고본)의 명단에서는 1차 봉기시 참여를 거부하였다가 집강소시기 소극적으로 참여한 扶安의 金洛喆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북접 계통으로서 봉기에 끝내 소극적이었던 접주들은 이 명단에 기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5) 1차 봉기 당시 무장을 떠나 줄포에 농민군이 도착하였을 때 농민군이 든 깃발 가운데에는 순천, 광주라고 쓴 깃발이 있었다 한다(『隨錄』, 『사료대계』5, 162쪽). 또 장흥에서는 이방언이 황룡촌전투에 참여하였고, 5월 중순경에 1차 봉기에 참여한 농민군이 귀향한 사실을 기록한 자료가 있다(박기현, 『日史』 갑오년 5월 23일).

민군을 지휘하면서 상당한 세력을 이루었다. 장흥의 이인환·이방언·이사경은 장흥·강진지역의 농민군을 지휘하면서 역시 상당한 세력을 이루었다. 한편 최경선은 광주로 이동하여 광주·나주지역의 농민군을 나주의 오중문 등과 함께 지휘하면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최경선·배규인·이방언 등은 전봉준·손화중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으며, 김인배는 김개남과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농민군 지도자들은 일원적인 지휘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지역 할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이 드러나게 된 것은 이 농민봉기가 동학교단의 지휘체계에 따른 것이 아니고 이른바 ‘남접’이라 불리는 세력의 독자적인 봉기였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남접은 일원적인 지휘체계를 가진 세력이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제1차 봉기 당시 급조된 지휘체계가 전주성 철수로 사실상 해체된 이후 농민군의 지휘체계는 혼란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다.

또 하나 그들이 군웅할거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지휘부 내에 발생한 노선 차이 때문이기도 하였다. 집강소 시기 전봉준과 김개남 간의 이견은 결국 최상층 지도부의 분열을 가져왔고, 결국 집강소 시기 각지의 동학교도들을 상층 지도부가 거의 통제하지 못하는 무정부주의적인 상황으로 이끌고 말았다. 또 상층 지도부의 분열은 제2차 봉기 시 농민군 전력의 약화를 가져와 농민군 패배의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농민군의 지휘체계상에서 발생한 이같은 취약성은 농민군 지도부가 지닌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농민군 지도부의 사회적 성격

그러면 농민군 지도자들은 대체로 어떤 이들이었을까.

농민군의 최상층 지도부로는 전봉준·손화중을 비롯하여, 금구의 김덕명, 태인의 김개남, 최경선 등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1차 농민봉기를 주도한 이들로서, 당시 총대장에는 전봉준이 추대되었고, 손화중과 김개남이 총영관을 맡았다.

이들 지도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전봉준은 그 스스로 선비(士)를 자칭하고 또 상당한 유학적 소양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아 사족의 후예라고 짐작되나, 가까운 선조대에 관직에 나아간 이가 없고,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던 殘班層에 해당하는 이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전봉준과 같은 이들은 흔히 ‘寒儒·貧士’라고 불리었다. 이들은 19세기 이후 현실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그 일부는 정감록 등을 이용하여 ‘變亂’을 도모하기도 하고, 다른 일부는 19세기 중반 이후 빈발하던 ‘民擾’의 지도자가 되기도 했다.¹⁶⁾ 그러나 1880년대 이후에는 ‘변란’을 도모하는 이들은 거의 사라졌다. 그것은 조선왕조의 전복을 목표로 한 여러 차례의

16) 이에 대해서는 배항섭, 1992 「19세기 후반 ‘변란’의 추이와 성격」, 『1894년 농민전쟁연구』 2, 역사비평사 ; 고동환, 1992 「대원군집권기 농민층동향과 농민항쟁의 전개」, 같은 책을 참조할 것.

변란이 민중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한 채 매번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이후 이들은 농민들과 거의 같은 사회경제적 처지에서, 그들을 대변하고 나아가서는 항쟁을 지도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1893년 보은집회에 참여했다는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탐학을 제거하려는 자’, 그리고 전봉준이 동학접주 외에는 모두 ‘충의지사’였다고 일컬은 이들이 바로 이 계열에 속할 것이다. 전봉준 스스로가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그는 고부봉기 직전 농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암에 낸 訴狀을 작성해 주면서 농민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고부봉기를 지도하였으며, 이를 보다 광역에 걸친 농민봉기로 확대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다음 손화중은 정읍 일대에서 사족으로서 인정받던 밀양 손씨 가문출신이었지만, 그의 직계는 사족의 주류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난 가계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⁷⁾ 김개남도 역시 태인 일대에서 사족으로서 인정받던 도강 김씨 가문 출신이었지만, 그의 직계도 사족의 지위에서는 벗어나 있었다.

김개남은 태인현 산외면 동곡리 출신으로, 道康 金氏 仲派(判官公派)였다. 황현은 『오하기문』에서 도강 김씨 가운데 24명의 동학 접주가 있었다고 하였는데,¹⁸⁾ 실제 확인되는 이들로서는 태인 山外面 五公洞의 金三默, 태인 古縣內面의 金文行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도강 김씨 일문내에서 농민군 지도자와 반농민군 지도자가 된 이들을 분석한 글에 따르면, 김개남 등 농민군 지도자가 된 이들은 도강 김씨 일문에서 비교적 소외된 이들로서, 적어도 선대 5대 이내에는 향촌사회 내에서 양반으로서 제대로 행세를 하지 못한 가계의 출신이었음이 밝혀졌다. 즉 그들은 ‘명목상의 향반’으로서 실제로는 평민과 다름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것이다.¹⁹⁾

금구의 김덕명도 역시 김개남과 비슷한 신분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본다면 손화중·김개남·김덕명 등 농민봉기의 주요 지도자들은 대체로 ‘명목상의 향반’에 속하였던 것이다.²⁰⁾ 그러나 그들은 현실적으로는 평민층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들이 사족도호들과 같은 힘을 갖지 못했던 것, 향촌사회에서의 향권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던 것은 물론이고, 자기 가문 내에서도 방계에 속하여 비교적 소외되어 있는 양반, 곧 ‘명목상의 향반’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들 스스로가 ‘양반’이라는 의식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들은 앞서 본 전봉준과 같은 ‘寒士’는 아니었다. 손화중과 김개남은 부농 내지는 중농층에 해당하였다. 김덕명도 최소한 부농층 이상의 경제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호남지방 농민군 상층 지도부를 구성한 대표적인 대접주 급에 해당하는 이방언·배상옥이 있다. 이방언은 장흥 남면 묵촌 사람으로 본관은 인천, 당시 2백석 정도의 지주가로서 부친은 향교의 齋長을 지냈다고 한다.²¹⁾ 이로 미루어 보아 그

17) 조선후기 정읍의 토반으로서는 밀양 孫氏, 탐진 安氏, 고흥 柳氏를 꼽았다고 한다(『신편 정읍군지』, 1957년, 49쪽).

18) 『梧下記聞』 2필, 『사료대계』 1, 161쪽

19) 이진영, 앞의 글

20)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에서 펴낸 『동학관련 판결문집』(1994)에 실린 이들의 재판기록에는 그들의 신분이 모두 ‘평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의 집안은 당시 향촌사회에서 상당한 세력을 가졌음이 분명하다.²²⁾ 이러한 가문의 배경 하에서 그도 한학을 공부하였으며, 한 때는 멀리 충청도 예산까지 가서 고산 임헌희에게 배우기도 했다고 한다.

裴相玉(裴奎仁)은 무안 대월리 출신으로 본관은 달성으로, 달성 배씨 일족은 무안 청천리에 동족부락을 형성하고 숙종대 청천사라는 사우를 세우기도 한 사족이었다.²³⁾ 그러나 배상옥은 청천리에 살지 못하고 대월리로 이주한 가계의 출신으로, 그 또한 사실상 평민에 가까운 계층이었다. 다만 경제적으로는 중농 정도에 해당하는 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흔히 '함(함평)무안접주'라 불리었으며, 그 세력은 손화중과 맞먹어 전봉준이나 김개남보다 컸던 것으로 기록되기도 했다.²⁴⁾

다음에는 농민군의 중간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던 이들을 살펴보자.²⁵⁾

김개남 부대를 이끌고 있던 주요 인물들은 李士明·柳福晚·南應三 등이었다. 그리고 이들과 협조하고 있던 남원의 토착 동학세력들은 金洪基·金禹則·李春宗·朴定來·朴仲來·金元錫 등이었다.

李士明은 전주 이씨 효령대군파로서 본래 남원군 아영면 두락리에서 살다가 진안군 백운면 오정리로 이주하여 거주하였다고 한다. 전주 이씨 효령대군파는 당시 남원부 둔덕방(현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에 오래동안 세거해 온 사족가문이었다.²⁶⁾ 이 사명의 경우도 둔덕 이씨로부터는 떨어져나간 잔반층에 속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는 경제적으로는 비교적 유족한 형편이었다고 한다. 그는 무장기포 시부터 참여하였고, 전주성 철수 이후 남원의 김홍기와 함께 김개남을 남원성으로 인도한 장본인이었다. 그의 형 李起晁도 역시 농민봉기에 참여하였으며, 그해 12월 임실 대응재에서 전사하였다고 한다. 이사명 역시 오수 수전강변에서 체포되어 처형당했다고 하며, 이때 그의 나이는 33세였다고 한다.²⁷⁾

金洪基는 본관은 順天, 당시 남원군 德古面 新基里(현 임실군 오수면 신기리) 사람이다. 김홍기도 한학을 공부한 지식인으로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형편은 아니었고 비교적 여유가 있었다고 한다.²⁸⁾ 김홍기는 임실 쌍암리의 복점 동학접주 崔鳳成의 사위였다. 최봉성은 전담 천 여두락 이상을 소유한 대지주로서 갑오년에 임실 대접

21) 이종찬씨(이방언의 증손) 증언(1994.3.1)

22)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동학관련판결문집』, 1994, 43쪽에 실린 이방언의 판결문에는 이방언의 직업과 신분을 '농업, 평민'이라고 기록하였다.

23) 이해준, 1993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4) 나주 목사 민종렬은 양호순무선봉장 이규태에게 보낸 편지에서 무장 손화중과 무안 배상옥은 각기 그 거느리고 있는 무리가 수만에 이르러 전봉준이나 김개남과 비교할 때 몇 배에 달한다고 쓰고 있다(『이규태왕복서 및 묘지명』, 『동학란기록』 하, 503쪽).

25) 전봉준과 손화중, 김덕명 등이 이끈 부대의 중간 지도층에 대해서는 훗날로 분석을 미룬다.

26) 당시 남원의 대표적인 사족가문으로서는 둔덕의 삭녕 崔氏, 후천의 풍천 盧氏, 내기의 안씨, 둔덕의 전주 李氏를 들었다고 한다(宋俊浩, 『남원지방을 예로 하여 본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구조와 성격』, 『조선사회사연구』, 일조각, 1987 참조).

27) 이현도씨(이기면의 손) 증언(1994.7.12, 9.28)

28) 김주연씨(임실군 둔남면 둔덕리) 증언(1994.6.8).

주로서 활약하였으며, 그의 아들 3형제 崔承雨·崔由河·崔東弼도 모두 접주로서 활약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김홍기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여유가 있는 부민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앞의 이사명과 함께 초기부터 농민봉기에 참여하여, 김개남을 남원으로 인도한 주역 중의 하나였다. 김홍기는 갑오년 12월 27일 체포되어 남원에서 처형되었다.²⁹⁾

담양 접주 南應三은 김개남이 남원에 입성할 때 선봉장을 맡았다는 南周松과 같은 인물로 보인다.³⁰⁾ 그는 본명이 남정초로서 본관은 宜寧, 당시 담양군 高面 佳山里(현 담양군 월산면 가산리) 海龍마을 사람이었다. 남응삼은 비교적 부유했으며, 한문 공부도 상당히 한 지식인이었다고 한다.³¹⁾

朴定來·朴仲來는 釜洞 사람으로 본관은 밀양이다. 이들은 당시 釜洞 접주 朴世鳳의 영향으로 농민군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반농민군 측의 박봉양의 글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釜洞 농민군의 지도자는 박세봉 접주였다. 박세봉 역시 지식인으로서 당시 40斗落 정도의 토지와 상당 수의 소를 소유한 부농이었다고 한다. 관음재 전투 후에 박봉양 군이 부동에 들어와 그의 집을 불태웠다고 하며, 그는 이후 산동명 대상리 윗점마을 위 북치재굴 등으로 도피생활을 하여 끝내 목숨을 건졌으며, 일제시기 신평으로 이사하여 살았다고 한다.³²⁾

노령 이남의 농민군 중간 지도자들로서는 나주의 오권선·전유창, 담양의 남응삼, 홍양의 유복만, 함평의 이화진, 영광의 양경수·송문수, 해남의 백장안, 장흥의 이사경, 장성의 이장태 등을 들 수 있다.

吳權善(吳仲文)은 당시 나주 삼가면 도림·세동·송동·나동에 세거하던 나주 오씨들의 동족부락인 세동출신으로 어려서 부친이 읍내에 들어가 한 때 서당 훈장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으며, 성장해서도 초가 두 칸의 집에 살고 있던 몰락양반에 속하는 이였다. 하지만 그의 일가 가운데에는 부자들이 있어 같은 마을의 吳碩煥은 오권선을 통해 농민군 측에 상당 액수의 자금을 대기도 하였고, 이웃 도림마을의 吳駿善은 나주 수성군 측에 군량미를 대기도 하였다.³³⁾ 그러나 오권선은 이들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잔반층이었던 것이다.

全有暢(全京先)은 나주 노안면 동산사람으로 본관은 천안이며, 전봉준과 같은 성씨라해서 일찌기 전봉준이 집에 찾아온 일이 있을 정도로 가까웠다고 한다. 그는 동생 全有元(全京淑)과 함께 백산봉기에서부터 참여했다. 상당한 부자였다고 하나 신분은 평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유창은 갑오년 12월 6일 동복에서 체포되어

29) 『전북일보』 1993년 9월 13일자, 「동학과 임실의 동학농민혁명」; 崔東安, 『天道敎任實敎史』(1980), 183-186쪽 참조. 최씨 형제들은 갑오년 겨울 피신하여 순창 회문산에서 6년간 숨어 지냈다고 한다.

30) 오지영은 그의 『동학사』(초고본)에서 담양접주로서 남주송을 가장 먼저 기록하였으며, 그가 김개남의 남원 입성시 선봉장이 되었다고 하였는데(『동학사』초고본, 『사료대계』1, 475쪽), 같은 책에 남응삼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같은 인물로 여겨진다.

31) 남선관씨(담양읍 가산리 회룡마을) 증언(1994.6.8). 이 마을에서는 그 외에도 남씨 집안 사람 2명이 농민군에 참여하여 뒤에 처형되었다고 한다.

32) 박태귀(70세, 박세봉의 손자, 남원군 산동면 태평리 신평부락) 증언(1994. 6.7).

33) 오학수씨(吳碩煥의 증손) 증언(1994.5.5); 이병수, 『금성정의록』 참조

나주로 압송 도중 사망하였다.³⁴⁾

李化辰(李景鎭)은 함평 손불면 장동사람으로 본관은 공주, 경제적으로는 중농정도, 지식층으로서 부친(李載明), 형(李彦鎭)과 함께 농민군 활동을 주도하다가 모두 처형당하였다.³⁵⁾

장흥 용계면 용반 지와물(瓦里)의 李仕京은 부친(李浩仁)이 이미 접주로서 이 지역에 상당한 기반을 마련해 온 '대물림 접주'였다. 그는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평민지주'였던 것으로 보인다.³⁶⁾

해남의 白長安은 대둔사 바로 앞의 삼산면 구림리 사람으로 수원 백씨이며, 부친 백용담은 선원록청의 書寫와 巡將을 지낸 바 있었고, 백장안 자신은 1888년 武科 丙科에 급제하여 흔히 '백선달'로 불리던 이였다. 그는 해남의 삼산면접, 비곡면접, 현산면접, 그리고 남문밖 남동리의 농민군 세력을 이끌고 우수영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후일 완도에서 붙잡혀 해남으로 끌려와 처형되었다.³⁷⁾

다음 이러한 중간접주들 외에도 소접주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체로 면 정도의 권역에서 각기 일정한 세력을 가졌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들 가운데 몇몇 신원이 확인되는 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함평 갈동의 鄭安晁은 최근 발견된 고문서에서 함평 갈동면 접주로 확인되는 인물이다.³⁸⁾ 그는 갈동면(현 월야면) 양정리 양지부락 사람으로 본관은 나주, 신분은 평민, 비교적 부유한 편으로 지식층이었다고 한다.³⁹⁾ 광양 옥룡면 상평의 徐允若·徐亨若형제는 광양 옥룡면 운평리 상평 사람(본관은 이천)으로 집터만 3백평, 담살이를 12호 거느릴 정도로 옥룡면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한다. 그의 부친 徐志殷은 옥룡면 面首부터 시작하여 民庫都監, 사헌부 감찰, 충훈부도사의 교지를 구할만큼 신분 상승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였다.⁴⁰⁾ 무안 해제 석용리의 崔文彬·崔善泳 형제는 논 8-9두락, 밭 20 여두락을 경작하던 중농층으로서 인근에서는 지식층으로 꼽히는 이였다고 한다. 이들은 智島에서 장정을 모집하여 해제의 臨淄鎭에 都所를 차렸으며, 고막원전투 등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뒷날 함평현에 체포되어 나주성으로 끌려가 그 곳에서 처형되었다.⁴¹⁾ 이러한 사례들은 소접주 가운데에도 부농·중농 내지 소지주층이 상당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소접주층 가운데에는 빈농 혹은 천민층으로서 소접주가 된 경우도 없지 않

34) 전대성씨(전유원의 손자) 증언(1994.5.5). 「全羅道所提所獲東徒成冊」, 『동학란기록』 하, 707쪽

35) 이경보씨(함평 손불면 죽사마을) 면담(1994.4.26)

36) 이정태(이사경 증손) 면담(1994.2.25)

37) 白鍾南(백장안의 증손)씨, 白一萬씨 증언(1994.5.12) 및 「敎旨」, 「紅牌」등 고문서 참조.

38) 靑·풀생활사박물관 소장

39) 정무석씨(정안면의 증손) 증언(1994. 5.5)에 의하면 정안면은 돈녕부도정의 교지를 갖고 있었다 한다. 이는 그가 신분상승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닐까 한다.

40) 서형식씨(서윤약의 증손) 면담(1994.4.5)

41) 최석봉씨(최문빈의 손) 면담(1994.4.2). 현재 무안군 해제면 석용리 석산마을에는 崔文彬(璋鉉)·善泳(善鉉) 형제와 從弟인 奇鉉(炳鉉)등을 기리는 「海州崔氏三義士碑」가 후손들에 의해 세워져 있다.

았다. 예를 들어 구례 사적동의 접주 임정연의 경우 그는 본래 丹城출신의 巫人으로 알려졌다.⁴²⁾ 또 담양 용구동의 접주 金亨巡은 갑오년 7월 담양의 아전으로서 수성군을 조직하려 한 鞠弘烈을 잡아다 죽임으로써 ‘强接’으로 이름을 떨쳤는데, 빈농으로서 완력이 강한 이였다고 한다.⁴³⁾

농민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끈 접주층은 대체로 平民 내지는 殘班 정도의 신분해당하였다. 여기서 잔반층이라 함은 선대에 비록 사족가문에 속해 있었지만 17세기 이후 양반의 분화 과정에서 점차 탈락하여 사실상 평민층과 다름없게 된 계층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들이 ‘사족의 후예’임을 중시하여 ‘하층 향반’이라 부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사족·향반의 대열에서 탈락하여 피지배층에 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은 스스로 ‘양반’이라는 의식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1894년 농민봉기의 지도자로 등장한 이들의 신분은 현실적으로 ‘평민층’에 속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대접주 내지는 중간접주층 가운데에는 경제적으로 부농·중농이 많았고, 일부 중소지주층이 있었다. 또 소접주층에는 중농·부농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접주층, 특히 대접주·중간접주층은 새롭게 부를 축적해가고 있는 계층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촌사회에서 새롭게 대두하고 있던 사회계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사회적으로는 이렇다 할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관의 집중적인 수탈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 수탈 체계는 민씨정권 하에서 극에 달하고 있었고, 그들의 정치적 불만 또한 극에 달하고 있었을 것이다.

1894년 호남지방에서 진행된 농민봉기에서 농민군의 지도부를 구성한 것은 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이 사회적으로는 평민층(잔반층 포함)이면서 경제적으로는 부농·중농 혹은 중소지주층에 해당하는 이들이었다. 이들은 사회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있는 계층이 아니라 상승하고 있는 계층이었다.

이들은 1890년을 전후한 시기 ‘동학’이라는 새로운 세계관과 사회사상을 접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동학교단의 접주가 되었다. 이들은 1892년부터 계속된 신원운동과 척왜양운동 등을 통하여 그 세력을 보다 확대하고, 또 ‘보국안민’이라는 저항 이념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마침내 1894년 전봉준이 전국적인 농민봉기를 제창하자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봉기는 지도부의 사회적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 혁명적 성격을 지닌다. 이제 그들의 봉기가 혁명적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는 것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봉기의 목표로 삼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을 보

42) 『구례속지』(1924)(박준성, 『농민군활동지 곡성·구례』, 『예향』 1993년 6월호, 123쪽 참조)

43) 용구동(현 담양군 수북면 주평리) 주민들의 증언(1994.3.18, 노인회관)과 김종덕씨(김형순 후손) 증언 참고. 황현은 호남의 强接으로서 남원의 화산당접과 담양 용구동접을 꼽았다(『梧下記聞』, 2필 『동학 농민전쟁사료대계』 1(여강출판사, 160쪽)).

다 분명히 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상세한 분석을 하기로 한다. 다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집약한다면, 농민군 지도부가 지향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양반·상민·천민과 같은 신분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 지주와 국가의 농민에 대한 수탈이 없는 사회였으며, 현실적으로는 안으로 이와 같은 사회를 만들고, 밖으로 나라의 자주성을 지키려는 의지를 가진 정권을 세우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충청도지역 동학농민전쟁과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

배 항 섭 (국방군사연구소 연구원)

1. 머리말
2. 충청도지역 농민군의 동향
 - 1) 동학교단과 농민군의 동향
 - 2) 청일전쟁과 충청도지역 농민군의 동향
 - 3) 충청도지역 농민전쟁과 다른 지역과의 관계
3. 충청도지역 농민군지도부의 성격
 - 1) 충청도지역 농민군 세력의 지역적 분포
 - 2) 농민군 지도자들(표 1)

1. 머리말

충청도는 '교조신원운동'의 중심지였으며, 동학교단의 총본부가 설치되어 있던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지역 농민군의 동향은 북점교단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894년 3월 남점이 기포하였을 때 교단이 취한 입장은 교도들이 남점에 호응하여 기포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것이었다. 교도들에 대한 교단측의 금찰은 기포를 결정하는 9월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북점 산하의 모든 농민군이 교단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던 것은 아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무장기포를 전후한 무렵부터 농민군의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었으며, 7월 무렵이면 충청도 전역이 사실상의 기포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하였다.⁴⁴⁾

이와같이 충청도 지역은 대체적으로 북점교단의 영향하에 있었지만, 농민군의 활동양상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 관군 및 반농민군 세력의 탄압 정도나 대응 양상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 지역 지도자들과 교단 지도부와의 관계나 농민전쟁에 임하는 지도자 개인의 자세 등의 면에서 서로 달랐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충청도지역 농민

44) 줄고, <충청지역 동학농민군의 동향과 동학교단>, <<백제문화>> 23, 1994 ; 신영우, <충청도지역 동학농민전쟁의 전개과정>,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사회변동>> 새길, 1995 ; 양진석, <1894년 충청도지역의 농민전쟁>, <<1894년농민전쟁연구>> 4, 역사비평사, 1995 참조

군 지도부의 성격을 이 지역 농민군의 동향과 관련한 몇 가지 특징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 충청도지역 농민군의 동향

1) 동학교단과 농민군의 동향

충청지역 농민군의 동향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북접교단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점이다. 1894년 3월 전라도에서 남접의 기포가 일어나자 교단은 그것이 빌미가 되어 관의 탄압을 받고, 교단이 와해될 수도 있다는 위기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3월에는 都禁察을 정해 각포를 단속케 한 바가 있으며, 그 후로도 여러 차례의 통유문과 계척문을 돌려 교도들을 금찰하였다.

그러나 1차봉기 시부터 농민군의 움직임이 가시화하였다. 무장기포가 일어나기 이전인 1894년 3월 14일 공주 弓院에서는 任基準이 이끄는 '동학당' 7백 여명이 일어나 儒會가 열리고 있던 대교로 가서 儒會를 破毀한 다음 3월 16일에 해산하였다.⁴⁵⁾ 황간, 옥천 등지에서도 이미 3월 21일 이전부터, 이인, 회덕에서는 4월 초부터 양반가를 공격하는 등 농민군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밖에 보은, 문의, 진잠, 목천 등에서도 4월 초 무렵이면 농민군의 활동이 가시화하고 있었다.⁴⁶⁾

5-6월의 상대적 소강기를 거쳐 7월이 되면 충청도 전역에 걸쳐 사실상 기포 단계로 들어갈 정도로 농민군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⁴⁷⁾ 왕조정부에서는 宣撫使 鄭敬源을 파견하여 호서를 순행하며 농민군들을 효유하여 귀화시키도록 하였다. 주목되는 점은 이때 정경원이 추진한 농민군 대책 방안이다. 7월 15일 공주에 도착한 정경원은 열읍에 관문을 보내고 監司 이현영과 상의하여 최시형에게 각읍의 교도 가운데서 집강을 차정하고 교도 가운데 행패부리는 자들을 금찰하게 하였으며, 각접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犯科者가 나오면 집강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였다.⁴⁸⁾

교단측과 정경원 사이에 집강차정 문제를 두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8월 6일 선무사 鄭敬源이 홍주로 와서 홍주 인근의 접주들을 소집하여 효유하였을 때, 유명한 '거괴' 10여명이 나타난 바 있다.⁴⁹⁾ 정경원은 이 때 모인 농민군의 수가 2-3만명이나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8

45) <若史>

46) 또 4월 9일 충청감사의 보고에 따르면“東學徒 崔法軒이 돌린 통문 내용에 호남에 있는 그 무리들을 모두 他殺하는 것에 대해 더 기다릴 것 없이 초 2일 靑山 小蛇田으로 모두 모이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여 범교단적 차원에서 남접에 호응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시도되었던 듯하다.(〈東匪討錄〉 306-307쪽 ; 〈兩湖電記〉, 89쪽 ;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7쪽 ; 〈隨錄〉, 187쪽) 전후 사정 및 다른 자료와 비교 검토해 볼 때 최법헌을 빙자한 서장옥 계열일 가능성이 크다. 이 무렵 교단측의 입장은 기포한 전봉준을 저지하고자 하였으며, 수 차례에 걸쳐 戒飭文과 通諭文을 내려 동학교도들이 호응하지 못하도록 금압하고 있었다

47) 줄고, 앞의 글, 1994 참조

48) <錦藩集略> ; <洪陽紀事>.

월 25일에는 충주지역 농민군 지도자들과 만나 효유할 목적으로 충주에 머물고 있던 정경원은⁵⁰⁾ 이때 찾아온 일본군 충주병참사령관 福富孝元을 만난 자리에서 충청지역의 ‘執綱望’이라는 문서를 건네준 바 있다. 여기에는 정부에서 탐문하여 획득한 34개 지역 농민군 지도자들의 명단이 들어 있었다.⁵¹⁾

이 명단과 홍주지역에서 정경원의 효유에 응한 지도자의 이름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정경원은 최시형에게 자신이 확보한 각지 농민군 지도자들을 집강으로 선정하도록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감사 이현영은 영동에서 천여 명의 농민군이 인가에 돌입하여 사람을 구타하고 재물을 빼앗아 가는 등 농민군의 활동이 여전하자 집강망에 들어있던 영동의 집강 손인택에게 글을 보내 문책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교단에서는 각지에 집강을 선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7월에 들어 “설혹 허물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切勿毆打하고 自官裁決하라”는 통유문을 내린 데 이어 8월에는 교도들에게 官令에 복종하고 교도 가운데 侵勒하는 자가 있으며 법소로 알릴 것이며, 인총을 勒掘하고 錢財를 강탈하는 자가 있으면 관에 고발하여 치죄토록 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金石之典 10(11)개조를 내린 교단의 행동도 정경원의 집강임명에 의한 농민군 대책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각지에서 농민군의 움직임은 더욱 치성해졌고 교단의 위기감은 한층 고조되었다. 교단은 남접과 북접을 본격적으로 차별화하기 시작하였다. 9월에는 “호남의 전봉준과 호서의 서인주가 문호를 別立하여 남접이라 爲名하고 창의함을 藉稱하여 평민을 침학하고 도인을 戕殺함을 其極이 罔有하다....師門亂賊을 齊聲共討함이 可하다”라고 하여 남접을 토벌하라는 통유문을 돌린 바 있으며,⁵²⁾ 관청과 일본군병참소에까지 전봉준과 서장옥을 비난하는 글을 보냈다.⁵³⁾

이러한 교단측의 태도는 실제로 이미 기포 단계에 들어가 있는 농민군의 움직임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곳곳에서 교단측의 태도에 반발하는 지도자들이 나타났다. 3월과 4월 초에 걸쳐 움직이기 시작했던 충청지역 농민군들의 동향은 5-6월 간에는 상대적으로 소강상태를 맞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7월에 들면서 농민군들의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며, 이 무렵부터 교단의 입장에 명백하게 반발하는 지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7월 2일 보은 일대에 둔취해 있던 황하일, 임규호 등은 자신들을 찾아온 군수를 약장으로 내세우고 함께 창의를 할 것을 주장하였다. 교단과의 관계라는 면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들이 창의를 주장하는 동시에 의병의 명칭에 굳이 ‘동학’이라는 말을

49) <洪陽紀事>, 8월 6일

50) “목사가 효유한 효과에 의한 것인지, 그후 可興의 韓人 人夫는 그다지 부족을 느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하를 운반 등에 조금도 방해가 없다는 것을 첨가하여 상신합니다” 라고 한 데서 정경원은 충주에서도 효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51)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 63쪽

52) <천도교회사초고>

53) <천도교회사초고> ; <시천교역사>

때고 士儒倡義라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이유로 자신들이 동학을 背敎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자신들의 기포가 의병봉기임을 강조하는 한편 나아가 반왜봉기에 보수세력까지 끌어들이려는 의도도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황하일은 서장옥과 가까이 지냈고, 또 9월에는 허문숙, 서장옥 등과 함께 충주 용수포에서 5-6만의 농민군을 모아 五邑執綱을 칭하며 진천 광혜원에서 4-5만의 농민군을 이끌고 있던 교단측의 신재련과 대립한 바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⁵⁴⁾ 교단 측의 금단 지시에 대한 반발이라는 측면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무장기포 이전 시기부터 보수유생들의 유희를 공격하기도 했던 공주의 임기준은 감사의 이임을 반대하기 위해 모였다는 명분으로 8월 1일부터 창검으로 무장한 만 여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공주부 내에 들어와 倡義했음을 주장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이들은 공주부 인근으로 흩어졌으나, 다시 공주부 내로 쳐들어간다고 하며 거의 한 달 간이나 계속 둔踞해 있었다. 이 역시 교단 측의 지시와는 다른 행동이었다.

교단 측의 지시에 반발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8월 6일 선무사 정경원이 홍주일대의 농민군 지도자들을 초치하여 효유하는 자리에서도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무렵 교단 측은 관의 지시를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당시 홍주 지역에는 홍주의 金永弼, 丁大哲, 李漢奎, 鄭元甲, 羅成雷, 덕산의 李春實, 예산의 朴德七, 朴道一, 대흥의 俞致敎, 보령의 李源百, 남포의 秋鏞成, 정산의 金基昌, 면천의 李昌求 등의 '巨魁'가 있었으며, 이 중 이창구가 거느린 무리가 가장 많아 5, 6만명을 칭하였다 한다. 이들 대부분은 정경원의 효유초치에 응하였으나, 덕산의 韓明甫, 韓應古 형제는 몇 차례의 효유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역시 관 측에 협조적인 교단 측의 입장과는 행동을 달리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교단 측의 지속적인 금단지시에도 불구하고 충청도지역 농민군의 활동은 이미 3월부터 가시화하였으며, 7월 이후에는 많은 지역에서 사실상 기포 상태로 들어갈 만큼 농민군의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이 점에서 교단 측의 태도는 제1차 농민전쟁에서 충청지역의 농민군이 남쪽에 호응하여 전면적으로 기포하는 데 작지 않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2) 청일전쟁과 충청도지역 농민군의 동향

충청도 일대에서 7월 초순 들어 농민군의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는 것은 청일군의 동향과도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충청도 황산 지방에서는 6월 22-23일 무렵부터 농민군들의 반일 움직임이 가시화하였다. 이들의 목적은 청국인과 단결해서 경성을 공격해 들어가 일본인에게 당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⁵⁵⁾ 또 강경지방에서는 7월 2, 3일경부터 농민군들이 물려들기 시작하여 총, 말 등 전쟁에 사용할 물품들을 민가에서 거두어 들이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청국병과 일치 협력하여 일본

54) <양호우선봉일기>

5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240-241쪽

병을 적대하고 일본인들에 대해서는 보이는데로 방해한다고 하였다. 7월 8일 경부터는 군산으로 동학당 수백명이 모여 들었는데, 이들은 강경에서 석성을 거쳐 공주로 가서 그 곳에서 바로 경성을 향하여 출발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⁵⁶⁾

6월 29일에는 전라도 장성에서 농민군 5, 6천명이 “왜병이 장차 이를 것이다. 일이 매우 급하게 되었다”고 하며 성중에 난입하여 군기고를 털어 군기를 빼앗아 갔고,⁵⁷⁾ 7월 2일에는 보은에서 농민군 수백명이 보은 군수를 都約長으로 농민군 두령 任圭鎬와 黃河一, 李觀榮, 金在顯, 그리고 보은군 이방 李商準 등을 부약장으로 삼은 錄名記를 마련해 두고 창의를 주장하고 있었다.⁵⁸⁾ 또 7월 3일부터 이인의 반송에 모여든 농민군 수백명도⁵⁹⁾ “지금 외국이 내침하여 종사가 매우 위급하니 병대를 일으켜 한 번 토벌하여 환난을 평정하고자 한다”라고 하며 군량과 마필 등을 거두어 들고 있었다.⁶⁰⁾ 7월 9일에는 전라도 부안의 농민군이 서천군으로 들어와 방포하며 “전라도 연해에 정박해 있는 일본 선박이 기백척이나 되며 전라도 일도가 놀라고 있다. 계엄하지 않을 수 없으나, 부족한 것이 마필과 군기이다”라고 하며 총과 화약, 馬匹 등을 빼앗아 갔다.⁶¹⁾ 7월 12일에는 道人이라 칭하는 자들이 ‘輔國安民’과 ‘斥化舉義’를 주장하며 공주 銅川店에 둔취하고 있었다.⁶²⁾

이와같이 충청지역에서 일찍부터 반왜 분위기가 고조되고 반왜봉기를 주장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6월 21일 일본군의 경복궁 침입이었겠지만, 부안의 농민군이 일본선박의 내왕을 목격하고 반왜봉기를 준비하였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일양국의 군대 진주나 청일전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충청도지역은 청일전쟁의 최초의 전장이었다. 6월 27일 성환에서 일본군에 패한 청의 패잔병이 각읍으로 奔散하여 백성들을 표략하였다. 같은 날 성환, 직산 등지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여 패배한 청의 엽제독이 병사를 이끌고 공주에 들어와 유숙하였다가 6월 28일 연기, 청주 쪽으로 떠났다.⁶³⁾ 이 무렵 일본군 수천명이 아산현 관아로 쳐들어왔다. 이들은 객사를 차지하고 앉아 社稷團에 방화하고 관아와 민가로부터 전곡과 재물을 빼앗았고, 관아의 각종 文簿를 불태우기도 했으며, 심지어 세미를 빼앗아 가기도 했다.⁶⁴⁾

이와같이 충청도 일대는 청일전쟁의 최초의 전장이었고, 거기에서 패한 청군이 공주, 청주 등 충청지역을 관통하며 퇴각하였기 때문에 청의 패배와 일본군의 승리 소식이 가장 먼저 알려진 곳이다. 또 거기에 따른 피해를 어느 지역보다 먼저, 그리고 직접적으로 받았던 곳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일본군의 경복궁 침입과 함께 충청도 농민군의倭에 대한 위기감을 일찍부터 첨예하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충청지역

56)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236-237쪽

57) <<고문서>> 2, 서울대 도서관, 412쪽

58) <錦藩集略> 別啓, 7월 7일조

59) <錦藩集略> 日錄, 7월 3일조

60) <時間記>; 「錦藩集略」 별계, 7월 7일조

61) <錦藩集略> 別啓, 7월 7일조

62) <洪陽紀事> 7월 12일조

63) <洪陽紀事>, 7월 4일 ; <錦藩集略> 日錄, 6월 28일

64) <錦藩集略> 별계, 7월 3일, 7월 4일

에서는 이미 6월 말부터 반왜운동의 움직임이 활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라도지역에서도 이 시기가 되면 일부 지역에서 反倭봉기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대체로 이 시기 전라도의 농민군이 본격적인 집강소 체제로 막 들어가며 중앙정국의 추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망적 입장에 있던 점과 대조된다.

3) 충청도지역 농민전쟁과 다른 지역과의 관계

제2차 농민전쟁 최대의 격전지가 충청도의 공주였다는 점을 두고라도 충청도 농민군의 동향은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등지와 일정한 관련을 가지며 전개되었다. 전라도와 인접한 옥천, 회덕 등지에서 농민군의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충청감영에서는 4월 8일 “충청, 전라지방의 경계에 인접한 고을들은 방비를 더욱 엄중히 하라”는 전보를 전라감영에 보냈으며, 전라감사 김문현은 금산, 여산 등 여러 고을에 관문을 발송하여 여기에 대비토록 했다.⁶⁵⁾ 이러한 대비책에도 불구하고 충청도의 농민군들은 무리를 지어 호남지방으로 많이 내려가 농민군 주력부대와 합류하고 있었다.

충청지역의 농민군들이 무리를 지어 전라도로 내려가는 분위기와 아울러 주목되는 점은 4월 말경 청산에 있는 동학도들이 茂長으로 보낸 다음의 文狀이다.

지금 황해도와 평안도의 회답을 받아보니 5晦(5월 그믐)에 접응을 한다고 하므로 東南諸部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회덕에 있는 第3隊의 頭領 朴이 파견한 偵察隊가 靑山營의 捕校들에게 붙잡혀서 가지고 있던 文簿도 모두 빼앗겼다고 하니 이 통분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부터 각 부대에 飭令을 내려 다시는 소홀하게 하지 말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일 전에는 비록 난처한 일이 있더라도 올 분도 참고 성질도 내지 마시어 절대 함부로 동요하지 마시고 이곳에 와서 지휘만 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⁶⁶⁾

문장을 보낸 발신자는 전봉준과 기맥을 통하는 서장옥 계열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894년 5월 하순 동학당은 다시 전라도 고부, 경상도 김해부 그리고 충청, 평안도의 불평당 등과 통모하여 각처에서 봉기하였다. 탐관오리의 압제를 소탕하고 폐정을 혁신하여 國基를 공고히 하자고 唱道하여”라고 하여 농민전쟁 발발 당시부터 전라, 충청, 경상, 평안도 등의 인물들 간에는 일정하게 기맥이 통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⁶⁷⁾ 고부민란에도 경상도의 상주와 선산 등지의 백성들이 몰래 관고의 병기를 꺼내어 무리를 모아서 합세하였다는 기록도 있다.⁶⁸⁾ 이로 미루어 볼 때 위에 제시한 바 청산에서 무장으로 보내는 문장도 이러한 지역간의 연계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5) <梧下記聞> 수필, 63쪽

66)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4쪽.

67)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112쪽

68)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8쪽

특히 충청지역의 남쪽지역은 전라도 농민군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보은, 청풍, 제천, 단양 등 충청 내륙지역은 강원도와, 보은 청산 등지 농민군의 동향 경상도 북부지역과 직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었다. 제천, 청풍 지역 농민군의 활동범위는 정선이나 영월 평창 일대까지 미쳤으며, 상주지역의 반농민군세력도 보은, 청산 일대로 집결한 농민군을 공격하기도 했다.

3. 충청도지역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

1) 충청지역 농민군 세력의 지역적 분포

충청도 지역 농민군의 활동은 지역간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나 여러 지역을 넘나들며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농민군의 동향이나 주요 전투지역 등을 고려할 때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보은 청산 영동 옥천 황간 지역, 2. 청주 문의 연기 지역, 3. 충주 괴산 음성 지역, 4. 천안 목천 지역, 5. 홍주 덕산 예산 해미 서산 태안 지역, 6. 공주 회덕 진잠 지역, 7. 남포 홍산 한산 서천 지역.

1지역은 교단본부가 자리잡고 있던 곳이다. 주요 지도자로는 황하일, 임규호, 손천민 등이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이미 3, 4월부터 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하였으며, 보은의 경우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바로 다음날인 4월 28일에 함락될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경상도 상주 문경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상주지역의 민보군이 이곳에까지 진출하여 농민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북실(鐘谷)전투를 비롯하여 북접농민군이 반농민군 세력과 치른 최후, 최대의 전투가 벌어진 곳이기도 하다.

2지역의 경우 9월 이전에는 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았다. 청주는 전봉준 부대와는 별도의 길로 북상한 김개남 부대가 11월 13일 관군 및 일본군과 접전하여 패배한 지역이다. 경상도 지역과의 관련성 등에서 1지역과 연결되어 있었다. 손천민, 서장옥 등이 활동하였다.

3지역 역시 9월부터 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서장옥과 허문숙 황하일 등이 이 지역 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하였으며, 인근의 청풍, 단양, 제천 지역의 농민군은 강원도 남부인 정선, 평창으로 가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9월 말경에는 같은 지역의 접주 신재련과 허문숙 세력 간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4지역은 반왜 분위기가 고조되는 속에서 8월 13일에는 농민군이 일본인 6명을 타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서울로 통하는 요충지였으며, 특히 목천 세성산에 진을 치고 있던 농민군은 관군의 농민군 진압에 커다란 장애가 되어 이두황의 선봉진이 가장 먼저 공격하였다. 농민군은 여기서 패배하였으며, 세성산에서 후퇴한 농민군들이 천안, 전의, 직산, 괴산, 회덕, 문의, 청주 등지로 흩어져 활동하였다. 이 지역의 주요한 지도자로는 세성산전투에서 체포되어 처형당한 김복용과 이희인 등이

있다.

5지역은 9월에 본격적으로 기포하였지만, 7월 경부터 이미 농민군의 활동이 빈번해지고 있었다. 10월과 11월에 걸쳐 신례원전투, 홍성전투, 해미성전투 등을 치르며 관군을 압박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공주성을 지키기 위해 세성산에서 공주로 이동했던 이두황의 관군을 이 지역으로 유인함으로써 농민군 주력부대의 공주전투에서 관군 측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기도 했다. 박인호, 박희인, 이창구 등이 대표적인 지도자였다.

6지역에서는 이미 3, 4월부터 농민군이 움직임이 가시화하였으며, 8월 경에는 감사가 농민군의 수중에 있다고 할 정도로 농민군의 기세가 대단하던 지역이다. 남접에 호응하는 세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주전투를 전후하여서는 옥천, 청주지역을 넘나들며 활동하였다. 농민전쟁 최대의 전투인 우금치전투가 치러진 바 있다. 임기준, 장준환, 박석규 등의 지도자가 있다.

7지역은 전라도 농민군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며, 6월말-7월초 무렵부터는 전라도 농민군의 출몰이 잦았다. 예산 지역과 연결되어 있었다. 추용성, 김기창, 이종필 등이 주요 지도자이다.

2) 농민군 지도자들(표 1)

가. 상충지도부

자료상 각 지역의 접주급으로 소개되고 있는 인물들을 상충 지도부로 파악하였다. 손병희는 청주의 아전집안의 서자 출신으로 경제적으로는 어려웠다. 교단의 핵심적인 인물로 전봉준과 함께 공주전투에 참여했으며, 이후 전주, 원평, 태인 전투를 치른 다음 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시형과 함께 장수, 무주, 황간 청산으로 올라갔다가 12월 17일에는 보은 북실에서 일본군 및 김석중이 이끄는 상주의 민보군과 결전하여 크게 패하였다. 이후 도통을 전수받아 천도교로 개칭하였으며, 3.1운동을 주도한 핵심적인 인물이다.

손천민은 청주 솔피 태생으로 1882년에 입도하였으며, 신분은 아전집안 출신으로 그 스스로도 이방노릇을 했다. 경제적 형편은 중농 정도로 어렵지 않았으며, 유학을 상당히 공부한 인물로 동학교리의 유교적 해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최시형의 핵심측근이자 종교적 성향이 강한 ‘온건파’였으며, 청주, 청주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농민전쟁 이후에도 최시형과 함께 피신하였으나, 1900년 체포되어 교수형에 처해졌다.

김연국은 1857년 생으로 인제군의 빈농 집안에서 태어났다. 13세에 부모를 여의고 영월에 사는 숙부댁에서 생활하였다. 숙부는 그 때 이미 동학에 입도해 있었으며, 16세에 숙부댁에 들른 최시형을 만나 그때부터 최시형을 따라다녔다. 교단의 핵심 인물로 청주일대에서 활동했으며, 이후 손병희와 함께 천도교를 하다가 시천교로 옮겨갔으며, 1924년에는 상제교를 창교하였다. 종교적 성향이 강한 인물인 것으로

보인다.

박인호는 덕산 태생으로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하였다 한다. 농사 지을 땅이 없어서 의술, 풍수 등을 생업으로 삼기도 했다. 1883년에 입도하여 포교활동을 열심히 하였으며, 1992년 광화문 복합상소 때의 疏首 박광호는 그의 사촌동생이다. 옹기장수를 가장하여 포교활동을 하였으며, 농민전쟁 때는 덕산 예산 등 내포지역의 중심 인물로 활동하였다.

李熙人 충청지역 농민군 지도자 가운데서는 보기 어려운 부농(200석지기) 출신이다. 신분은 양반이다. 그의 조부는 서산군수를 지냈고, 형 희민은 참봉이었다. 보은 집회 때 허연, 손병희 등과 함께 “主辱臣死之義”와 척왜양을 강조하는 자신들의 시국관과 창의를 뜻을 밝히는 글을 써서 올린 7명의 ‘창의유생’ 가운데 하나이다. 목천 일대에서 활약했으며, 세성산전투에서 패배한 뒤 집으로 도망하였다가 체포되어 총살되었다.

추용성은 남포에서 활동하였으며, 신분은 吏屬이었다.

이신교는 신창에서 기포하여 활동한 인물로 신분은 溫宮(왕실의 온양 별장?)관리자였다. 머슴들이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중농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홍주전투 직후 호연초토사 이승우에게 체포되어 처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성두환은 청풍 사람으로 청풍, 단양에서 활동하였으며, 11월에는 강원도 정선 쪽으로 가서 활동하였다. <판결문>에는 평민으로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홍재길은 공주 출신의 농민으로 체포되었으나, 무죄 방면되었다.⁶⁹⁾ <천도교회사초고>에는 충주지역의 접주로 <집강망>에는 괴산의 집강으로 나오고 있다.

황하일은 보은 임송면 태생으로 빈농출신이다. 1882년 서장옥과 함께 입도하였다. 서장옥과 친분이 두터웠으며, 북점 내의 ‘강경파’였다. 임규호와 함께 7월부터 背敎를 자칭하며 창의를 것을 주장하는 등 교단의 지시와는 달리 행동하였다. 9월 말에는 허문숙, 서장옥과 함께 충주 용수포에 웅거하며 교단의 입장을 수용하고 보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던 진천의 신재련과 대립관계에 놓이기도 하는 등 강경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체포되었으나, 태 1백 徒 3년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받았다.

임기준은 공주의 비장 출신으로 농민전쟁에 참가한 인물이다. 무장기포 이전인 3월 14일 농민군을 불러모아 유회를 파훼한 바 있으며, 농민전쟁 당시에는 공주일대를 석권하여 감사 박제순이 그의 수중에 있다 할 정도였다. 이후 관군 측으로 변절하여 금영 중군직을 수행하다가 11월 6일 사임하였으나, 결국 체포되어 태 1백 流 2천5백리에 처해졌다. 기회주의적 행동양태를 보였다.

이유상은 부여 정산인으로 원래부터 전봉준과 친분이있었다는 말도 있고, 농민군 토벌을 위해 유회군을 일으켰다가 전봉준을 만난 다음 마음이 변하여 농민전쟁에 가담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부여 유생 이복영의 일기에 따르면 이유상은 8월 1일

69) <판결문>

논산 건평에서 민준호가 유회를 모으고 진법을 가르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討倭報國하자고 권했으나, 민준호가 거절하자 자신을 따르는 백 여명만 데리고 떠났다고 한다. 신분은 전도사였으며, 공주전투를 앞두고 감사 박계순에게 보낸 글에는 반왜친청적인 요소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었다. 우금치전투에 참여하였다.

서병학은 보은집회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전부터도 최시형에게 교조 신원운동을 벌일 것으로 건의한 바 있다. 노민전쟁 당시의 행적은 명확치 않으나 8월에 보은에서 체포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후 관군 측에 붙어 농민군을 체포하는 앞잡이가 되기도 했다. 일본인 측의 기록에 의하면 천우협이 한 단원이 보은집회 직전에 서병학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만났는데, 그는 '왜양일체론' 등을 주장하는 등 중화적 세계관을 소유한 인물이었다고 한다.⁷⁰⁾

상충지도부의 경우 경제적으로 빈농계열이 많았고(6/9), 신분 면에서는 이서배 출신이 눈에 띄며(1/5), 유생 신분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몰락해가거나 주변적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때 아전계층을 포함하면 '중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2/3에 육박한다(9/15). 유생 계열에는 서병학, 임기준과 같이 기회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졌다.

나. 하충지도부

김화성은 1893년에 입도하였으며, 신분은 前都事였다. 김용희, 김성지 등과 결맹하여 자칭 三路라 하였으며, 6천여 냇을 모금하여 <동경대전> 100권을 간행하였다. 또 工匠을 모집하여 장창과 화포를 제조하기도 했다. 이로 보아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평소에 借力을 하고 氣勇이 과인하였다 한다. 자신의 아들 3명과 사위를 입도시켰으며, 9월 말에 기포하여 천안 목천 전의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강영문은 청주 사람으로 손천민과 같은 동네에서 살며 손천민을 많이 도와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적으로 지주층에 속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문장로는 태안 원북면 사람으로 기포할 때 소접주였다. 방갈리는 남평 문씨들의 집성촌으로 집안 사람들이 모두 동학에 병도하였다 한다. 3백석 정도의 농사를 지었고, 산도 15정보 정도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경제적으로는 중농 이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기포 시에 接司로 참여한 문구석은 문장로의 조카였다. 문구석 역시 그를 살리기 위해 그의 집에서 200냥을 바치기도 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문장로는 체포를 면했으나 문구석은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문장준 역시 문장로와 같은 집안 사람으로 기포 시에 都執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소를 가지고 있었고, 일찍부터 동학에 관여하였고, 1년에 소 한 마리씩을 가져갔다는 것으로 보아 역시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훗날 농민전쟁에 관한 짙막한 회고록을 남겼다.

70) 조경달, <1894년 농민전쟁에 있어서 동학지도자의 역할>, <<역사연구>>2, 1993

이성천은 서산 이북면 태생으로 1890년에 동학에 입도하여 보은집회에도 참여하였다. 오대조가 좌승지였으며, 호란 때 서산으로 낙향하였다 한다. 20마지기 정도의 논을 가지고 있었다.

조석헌은 1894년 3월에 동학에 입도하였으며, 기포 시에는 태안지역의 접주로 참여하였다. 상놈소리를 안들을 정도였지만 대단한 집안도 아니었다. 관의 눈을 피해도망다니는 과정에서 자신의 토지를 판 돈으로 집을 사는 등 적지 않은 재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보아 경제적으로는 유족한 자작농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박치홍은 천안에서 활동하였으며, 원래 청주의 이속이었다. 평소의 행실이 좋지않았다 하며 농민군의 활동이 치성해지자 뛰어들어 스스로 접주를 칭하며 활동하였다. 이후 다시 청주 鎭校로 입록했으나, 행적이 탄로가 나서 체포되었다.

유구에서 체포된 최석주는 수괴로 지칭되었으며, 能善辭有風力하고 巨細洞事 舉皆干涉했다고 하여 신분으로도 낮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윤성의는 온양에서 활동한 접주로서 거괴로 칭해지고 있었다.

청산의 윤량도총관 배학수는 司果였고, 팔로도집강 김경연은 권리였다. 이 가운데 배학수는 청산 군수 조만희의 내안에 숨어 있다가 체포되었다.⁷¹⁾

정산에서 활동한 이장헌은 아전 출신이다. 도집의 직책으로 농민전쟁에 가담하였으며, 이인전투에 참여하였다. 보은?에서 활동한 김달문은 노비 신분으로 거괴의 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상충지도부에 비해 전체적으로 부요한 편이었다. 8명 가운데 지주급이 1-2명 중농 이상이 2-3명이고 빈농은 1명뿐이다. 신분면에서는 상민 이하가 반 정도를 차지하였고, 노비도 1명이 있어서 상충지도부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낮았지만, 유생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이 14명 가운데 4-5명, 이서배 계열이 3명이어서 역시 중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이 절반에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71) <토비대략>

동학농민혁명과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

<표1>

	천도교회사초고	집강망	홍양기사	동학사
교단지도부	손병희 손천민 김연국 박인호			
공주		장준환		김지택 배성천
연기		최명기		
전의		임기(영)준		
은진		염상원		
진잠		송석중(영)		
서산	장세현 외 12명	이창구		박인호
태안	김병두			김동태
당진	박용태 김현구			박용태 김현구
예산	박희인	박덕칠	박덕칠 박도일	
덕산	김명배 외 6명	박용서(결)	이춘실	김○배
홍주	김주열 한규화 외 3명	김영필	김영필 정대철 이 한규 외 2명	김두열 한규하
해미	박성장 외 3명			
결성		천(정)대철		
연산		임영채(래)		
면천	이창구 한명순	이화삼	이창구	박희인
한산		김충(약)선		
아산		안교선		
신창	김경삼 광완 정태영 이신교			김경삼
온양		방화용		
안면	주병도 외 3명			주병도
서천		추(임)용성		
남포	추용성 김기창	김우경	추용성	추용성
정산			김기창	
대흥			유치교	
청양		유진우		
보령			이원백	
부여		이종필		
홍산		김태운		
목천		김영식		
단양		성두한		
영춘		김선달		
충주	홍재길 신재연	신재련		
괴산		홍재길		
문의	임정준	오일상 박상기		
회덕(대전)	강건희 오일상	김복천 강건희		
회인		강영석 박성환		
보은		황하일 임국호		황하일 김연국 권병덕
청주	권병덕			손천민 이용구
청산		박태용김익균		
옥천	박석규 유병주	박석규 이룡용		김복용 이희일 정원준 강채서
영동		손구택 최천식		
황간		조재벽		

* 이이화, <<동학농민전쟁 인물열전>>, 역문연 백추위 편, <<다시피는 녹두꽃>>, <<동학란기록>> 등에 의거하여 작성

충청도지역 동학농민전쟁과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

○상충지도부

이름	출신(거주)지	신분	나이	경제수준	교단관계	비고
손병희	청주	아전	33	빈농	교단	9월기포
손천민	청주	아전	37	중농	교단	9월기포
박인호	덕산	상민	39	빈농(머슴,옹기상)	교단	9월기포
김연국	인제(보은)	상민	37	빈농	교단	9월기포
이희인	목천	유생(조부가 수령)	48	부농(200석)	교단	9월기포
서장옥	수원(청주)	상민(佛道)	53	빈한	변혁적	4월기포, 남접과 호응
서병학	?	유생	60?	빈한	기회주의(엽관적?)	보은집회 참여, 관군 앞잡이로 변신
황하일	보은	상민	49	빈농	서장옥과 친분	7월 창 의 움직임
추용성	(남포)	아전	?	?	교단	7월부터 움직임
이유상	정산(부여)	유생(전도사)	?	?	전봉준과 친분	9월 척왜기포
허문숙(허연)	(청주)	(유생?)	?	?	서장옥과 친분	신재련과 갈등, 보은참여
이신교	신창	유생(溫宮 관리직)	54	중농(머슴들이 있었음)	교단	아들 이종일은 3.1운동 관여, 손녀 하나는 상해 입정 신숙의 며느리
임기준	공주	유생(비장)	43	?	기회주의(엽관적?)	3월부터 움직임. 후에 관군에 가담
성두환	청풍(단양)	상민(농업)	47	?	교단	청풍, 단양, 정선에서 활동
홍재길	공주(괴산)	상민(농민)	39	?	교단	괴산서 활동(집강방)

○하충지도자

문장로	태안	상민	48	부농(3백석),산15정보	교단(접주)	9월기포
이성천	서산	유생?(5대저가 좌승지)	22	자작농(20마지기)	교단(접주)	9월기포, 보은 참여
조석현	태안	상민	32	자작상농	교단(접주)	9월기포
문장준	태안	상민	33	빈농?	교단(도집)	9월기포
문구석	태안	상민	22	중농?	교단(접사)	9월기포. 문장로의 조카
문재석	태안	상민	24	?	교단(접사)	9월기포
강영문	청주	상민	29	중지주(행랑 머슴 5,6호)	교단(접주),손천민을 후원	9월기포
윤성의	은양	유생(출신)	?	?	(접주)	?
박치홍	(천안)	아전	?	?	접주 기회주의	도망하였다가 청주전교로 입륙
김화성	천안	유생(전도사)	?	부농이상?	교단(접주)	동경대전간행, 무기주조
이장현	정산	아전	?		교단?(도집)	이인전투 참가
배학수	청산	司果	?	?	운량도총관	
김정연	청산	아전	?	?	팔로도집강	
김달문	보은?	노비	?	?	거괴	
최석주	유구	유생?(能善辭有風力 巨細洞事 舉皆干涉)	?		魁首	

경상도지역 동학농민혁명과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

신영우 (충북대 교수)

1. 머리말
2. 경상도지역의 동학 교세와 1894년의 상황
 - 1) 경상도지역의 동학 교세
 - 2) 1894년 경상도지역의 상황
3. 경상도지역의 동학농민군 지도부와 그 성격
 - 1) 신분
 - 2) 토지소유
 - 3) 군사지도자로서의 능력
4. 맺는말

1. 머리말

1894년 봄 전라도와 충청도 일부 군현에서 벌어진 동학농민군의 무장봉기는 가을 재봉기에 이르러 거의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동학이 퍼져있던 여러 군현은 포접조직이 농민군 편제로 재편되면서 격변을 맞이하게 되었고, 관군과 민보군 그리고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많은 지역이 싸움터로 변했다.

1894년의 이 대사건은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면에 관해 다룬 많은 글들을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아직 여러 면에서 더 깊이 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각 지역에서 벌어진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는 작업도 그 중 하나이다. 조선의 군현사회는 정치·사회·경제생활이 이루어지는 기본 단위로서 대부분의 사건이 군현 내부의 문제로 처리되었다. 그런데 이 대사건은 군현을 뛰어넘어서 전국에 걸쳐 일어났다. 한 시기에 왜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무장 활동에 나섰는지 각 지역의 사례를 확인하고 비교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동학농민군을 이끌어나가던 지도부가 어떤 배경을 갖는 인물들이었는지 아는 것이 요구된다. 동학농민군은 동학 조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나 무장을 한 군사 조직이었다. 따라서 농민군을 지휘하고 이끌던 지도자들의 성격은 이 대사

건이 전개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시각 위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업적을 바탕으로 경상도지역의 동학농민군 지도부에 관하여 정리해보려는 시도에서 작성되었다. 경상도지역의 구체적인 사례연구는 아직 적은 형편이다.⁷²⁾ 앞으로 지역사례를 연구한 글이 더 많이 나오면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경상도지역의 동학 교세와 1894년의 상황

1) 경상도지역의 동학 교세

경상도는 교조 최제우가 동학을 창도한 지역으로서 초기의 교도들은 1860년대 초 경주를 비롯한 동남부 일대를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곧 경상도의 여러 군현으로 전파되어 곧 큰 교세를 이루었다. 그러한 모습은 교조를 체포하기 위해 파견된 선전관 정운구가 새재를 넘자 매일같이 동학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고 보고하는 것에서 확인된다.⁷³⁾ 정운구는 심지어 북상길도 동학교도들을 피해서 새재가 아닌 보은쪽으로 바꾸고 있다.

처음부터 동학은 놀라운 전파력을 발휘하였다. 상주의 유생은 1863년 말 동학을 배척하는 통문을 돌리면서 거센 전파력에 놀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반 유생들이 파악한 동학은 종교 조직만이 아니라 신분제도 아래서 억눌려 온 하천민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돕는 결사체였다.

교조가 처형된 뒤 경상도 일대의 동학 세력은 위축되었다. 지방 관아에서는 끊임 없이 사교로 간주된 동학을 탄압하였다. 제 2세 교주 최시형은 이를 피해서 험준한 산줄기가 이어지는 경상도와 충청도 그리고 강원도의 산골짜기 마을을 다니며 은밀히 포교를 하였다. 그 결과 동학 조직은 여러 도에 걸쳐 다시 확산되었다.

동학의 교세가 크게 확대된 것은, 국내외 새로운 사회 경제면의 동향과 함께, 1880년대 말에 입도해온 유능한 인물들의 활약에 크게 힘입은 것이다. 동학 조직은 인맥에 따라 확대되는 까닭에 능력있는 인물이 들어와 포교에 힘쓰면 교세가 비약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⁷⁴⁾

72) 참고, 1991 <<甲午農民戰爭과 嶺南 保守勢力의 對應>>

김준형, 1991, <서부경남지역 동학군 봉기와 지배층의 대응> <<慶尙史學>> 7-8합집

73) <<備邊司謄錄>> 철종 14년 12월 20일

74) 역량이 있는 사람은 여러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른 사람보다 사회 경제면에서 여건이 좋고 개인 자질이 뛰어나야 한다. 우선 신분제사회에서 양반이나 중인이라면 상천민보다 좋은 여건을 가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재산도 가지고 있어서 남을 도울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학식과 건문이 넓고 말솜씨가 뛰어나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은 조직을 키우는데 유리했을 것이다. 힘이 장사라서 동무들 사이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도 그러했을 것이다. 또 한 지역에 동성동본마음이 크거나 외가나 처가 등 인척이 빈번한 사람은 남다른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그 바탕에 종교의 감화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깊은 믿음으로 남을 이끌어 확신을 주면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능력이 있어야 종교 조직이 활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능한 인물들이 대거 입도한 1880년대 말 이후 동학의 고위 지도부가 달라졌다. 경상도 계통의 간부들을 대신해서 충청도지역의 인사들이 중심에 들어선 것이다. 동학은 교주 최시형이 직접 포교한 인물들이 교도들을 늘여나가 다시 이들을 교주와 연결하는 형태로 조직망을 갖는다. 교주는 역량이 뛰어나거나 교도들을 크게 늘린 간부들의 의견을 존중하였다. 즉 최시형을 둘러싼 고위 간부들이 중요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었던 것이다.

충청도지역의 동학지도자와 견줄 수 있는 인물들이 전라도의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전라도 각 군현을 무대로 점차 큰 조직을 갖추어갔다. 예하 교도들의 세력도 충청도의 조직에 못지 않았다.

충청도 동학이 교단에서 중심으로 된 것에는 몇 이유가 있다. 먼저 충청도는 교주 최시형이 오랫동안 주요 거점으로 삼아 활동한 지역의 하나였고, 경상도나 강원도에 비해 동학 교세가 더욱 빨리 커진 지역이라는 점이다. 다음은 서장옥 손천민 손병희 임규호 등 이 지역의 동학지도자들이 영향력이 컸던 점이다. 또 충청도가 경기도 강원도 등 북부지역과 경상도 전라도의 남부지역을 잇는 중간에 위치해서 교통상 중심이 된 것도 중요한 점이다. 그리고 보은 영동 옥천 등지는 험한 산들이 많아서 유사시 피신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전라도는 중심 활동권에서는 떨어져 있었다. 이 지역의 동학교도들은 교주나 교단의 고위지도자들과 접촉하려면 먼거리를 여행해야만 하였다. 또 종교지도자인 최시형은 교조신원운동 이후 사회문제에 관심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전라도의 동학지도자들에게 거리를 두고 있었다.

반면 경상도는 충청도와 전라도에 비해서 교세의 규모가 작았다. 경상도의 동학은 두 차례에 걸쳐 호된 탄압을 받았다. 교조가 처형된 초기 탄압과 이필재 사건의 여파로 일어난 탄압이었다. 그리고 양반들의 농민 통제력이 강력했기 때문에 제약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1890년대에 접어들어 경상도의 동학 세력도 이전보다 크게 증대하였으나 충청도와 전라도의 조직에 비교할 정도는 아니었다. 오히려 충청도와 전라도에 인접한 군현에는 이들 지역에서 동학 인맥이 들어와 조직을 확대해나갔다.

2) 1894년 경상도지역의 상황

1894년 봄 동학농민군의 무장 봉기는 전라도와 충청도의 일부 군현에서 시작되었다. 전라도에서는 곧 거의 모든 군현으로 확산되었고, 전주 영병과 경병을 물리칠 정도로 그 기세는 도 전체를 압도하였다. 충청도는 무장한 동학농민군이 읍내의 관아를 점거하지 않았으나 강대해진 동학 세력을 지방관아에서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경상도는 전라도와 충청도에 접경한 군현에서 동학 교세가 커지는 형태로 농민들이 결속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은밀히 포교해온 동학 근거지에는 사람들이 끊임 없이 모여들었고, 새로 동학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러 마을에서 세력을 확대해나갔다.

다. 지방관과 양반지주들도 이같은 움직임을 막지 못했다.⁷⁵⁾

여름이 되면 경상도 동학의 포접조직은 전라도와 충청도 군현의 상황 전개에 영향을 받아 스스로 개혁작업에 나서고 있다. 처음에는 상천민들이 양반과 향리들에게 옛원한을 보복하는 행위를 동학 조직이 지원하다가 점차 향촌사회의 폐단을 고치려는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군이 경북공을 습격한 6월 말 이후 전국의 동학 조직이 대일전쟁을 준비하면서 경상도의 동학교도들도 활동을 격화시킨다. 스스로 무기와 군량을 모으고 농민군을 강화하는 등 어려운 일을 추진해나갔다. 그 과정에서 향촌사회의 오랜 지배자였던 양반지배층과 충돌하기에 이른다.

흔히 동학농민군의 가을봉기는 대일전쟁으로만 이해한다. 그래서 1차봉기는 사회개혁을 내세운 운동이고, 2차봉기는 반외세를 목표로 일어났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향촌사회 내부의 실상을 보면 이러한 성격을 나누어 구분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여름 이후 대일전쟁 준비 기간에 양반·향리 또는 지주·부농에 대한 공세가 격심해진 것이다. 경상도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화승총과 화약 그리고 칼 등의 무기는 막대한 경비가 있어야 구할 수 있다. 동학에 들어온 가난한 농민들이 경비를 감당할만한 규모가 아니었다. 군량도 마찬가지였다. 그 때문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2차봉기를 준비하는 동학농민군은 부유한 양반 향리들의 돈과 재물을 탈취하는데 온갖 힘을 기울였다. 출진을 며칠 앞둔 급박한 때에는 마을마다 할당하여 돈과 곡식을 바치도록 해서 양반 지주들은 거둬들인 공출에 시달렸다. 그뿐 아니었다. 인심을 잃은 부유한 양반과 향리들은 집중 공세를 받았고, 상천민이 아니면 돈과 곡식을 내지 않을 경우 심한 해를 입었다.⁷⁶⁾

이처럼 향촌사회 내부의 동학농민군은 일본과 전쟁을 벌이려고 준비하면서 신분투쟁과 경제투쟁을 병행하였다. 양반들에게도 동학에 들어오도록 강요하였다. 양반 지주들이 2차봉기가 일어난 후 동학농민군에 적대하는 민보군을 결성하고 거세게 대립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동학농민군이 민보군에게 대일전쟁에 합류할 것을 요구하자 보수지배층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임란의 원한이 줄어들지 않은 일본이 군대를 보내서 국왕을 억누르고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보수지배층도 위기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군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할 때 민보군은 이에 협력하였다. 왕조정부의 지시에 따라 일본군의 진압을 돕던 지방관과 함께 민보군도 행동을 같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학농민군이 읍내를 점거한 군현에서는 일본군의 개입을 앞장서서 요청하기도 하였다.

경상도 군현에서는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까닭에 전라도와 충청도의 동학 조직이 지원을 하였다. 북서부는 주로 충청도 조직과 연결하여 활동하였고, 남서부는 전라도 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 이러한 연결은 인맥을 통해서

75) 위 졸고 참조.

76) <<歲藏年錄>> <<甲午以後日記>> 등 필자가 이용한 경상도 자료의 내용.

이루어졌다. 도의 경계를 넘는 큰 조직을 관장하던 대접주가 읍내와 관아를 점거하자고 결정하면 조직 내의 모든 인맥이 힘을 모아 같이 활동하였다. 자체 세력이 미약하다고 생각되면 주위의 대접주 조직이 연합해서 수천명을 집결시켜서 힘을 과시하였다.

경상도의 남서부 군현은 일본군이 국내로 들어오는 통로였던 동래와 가까운 곳이었다. 이 지역의 동학 세력이 일찍이 약화되자 전라도의 동학농민군이 직접 가세해서 여러 군현을 장악하기도 하였다.

경상도의 동남부에 있는 많은 군현은 1894년 전 기간 동안 조용한 상태에 있었다. 경기도를 비롯 황해도와 강원도의 동북부까지 동학농민군이 무장봉기한 이 해 가을에 경상도의 동남부가 조용했던 것은 결국 동학 조직이 약했기 때문이었다.

봄부터 가을까지 경상도 북서부와 남서부를 장악했던 동학농민군은 사기도 높고 수도 많았지만 일본군을 막아낼 수 없었다. 일본군이 보유한 우세한 화력을 대적할 무기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궤멸 요인이었다. 대구 감영의 남영병이 마지막까지 군세를 유지해서 각 군현을 순회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압력이 되었다. 그리고 북서부 일대에서 시작되어 여러 군현으로 확산된 보수지배층의 민보군은 동학 조직을 끈질기게 추적해서 재기할 근거를 남겨두지 않았다.

3. 경상도지역의 동학농민군 지도부와 그 성격

이 논의에서는 먼저 동학농민군의 지도부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가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학농민군의 고위지도부는 남접농민군 지도부와 북접농민군 지도부로 구별해야 할 것이다. 두 세력이 합류하기 이전에는 서로 긴밀한 관계 없이 독자활동을 해왔기 때문이다.⁷⁷⁾ 경상도에서 활동하던 동학농민군은 남접농민군과 같이 별도로 대규모의 편제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대접주의 포 조직이 각처의 접과 연결되어 있었으나 대개는 동학 교단의 지시를 받고 활동하였다.⁷⁸⁾

이런 뜻으로 보면, 경상도 지역의 동학농민군 지도부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말단 접의 간부들과 군사지도자로 활약한 사람들을 지도부에 포함시켜서 논의하기로 한다.⁷⁹⁾

1894년에 경상도 지역에서 활약하던 동학농민군 조직은 잘 파악되고 있지 않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동학의 포접조직과 농민군의 편제가 어떠한지 구체적으

77) 따라서 지도부의 성격 파악을 위해서는 전봉준 김개남이 정점인 남접농민군의 지도부와 손병희가 정점인 북접농민군 지도부의 성격을 나누어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78) 김산처럼 남접농민군과 직결된 일부 교도들도 있었으나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79) 1894년 경상도의 여러 군현에서 활약하던 동학농민군의 수는 매우 많았다. 한 군현의 읍내를 점거할 때 동원된 병력만 헤아려도 '수천'이 넘었다. 한 예로, 예천의 수접주가 관할한 접조직만 48개였다. 이들 각 접 조직에는 접주 등 간부들이 있었다. 또 동학 조직이 군사편제화하면서 군사지도자로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부각되어 활동하였다.

로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일부 자료에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로 활약한 인물에 관해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뿐이다. 필자는 일부 자료를 근거로 북서부의 상주·예천·김산 3군현에서 활약한 동학농민군 지도자를 확인하는 작업을 한 적이 있다.⁸⁰⁾ 이를 중심으로 동학농민군 지도부를 살펴보고 그 성격의 일단을 생각하기로 한다.

필자가 현지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동학농민군 지도자는 21명이었다. 민보군 문서 등 보수지배층이 작성한 농민군 진압기록에서 확인한 41명 가운데 14명을 조사하였고, 또 그 과정에서 7명을 다시 확인 조사할 수 있었다. 신분·토지소유·지식수준·완력 정도·군사지도자로서의 능력 등으로 구분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신분

상급양반층에 속한 사람은 21명 중 7명인 예천의 朴永洙, 상주의 姜善熙·趙在廈, 김산의 姜基善·曹舜在·權鳳濟·裴宰演이다.

박영수는 예천의 거족인 함양 박씨가 일원이다. 당시 향청의 좌수가 이 집안에서 나왔다. 강선희는 종백부가 實職 행동지중추부사 겸 오위장 역임자였고 재종형은 사헌부 감찰을 지냈다. 조재하는 당시 상주의 양반사회에서 進士接主로서 유명했던 인물이다. 1890년대 상주에서 풍양 조씨는 財力과 戶數가 가장 컸었다.

강기선은 18세기 말 19세기 초 김산에서 가장 높은 벼슬을 역임한 姜碩龜의 高孫子로서 그 자신이 의금부 도사를 지냈다. 조순재는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정부에서 임명한 김산소모사 曹始永의 가까운 일가이다. 소모사가 그의 구명에 앞장을 서고 있다. 배재연은 고종대에 進士 급제를 하고 첨지중추부사 겸 오위장을 지낸 裴錫坤의 손자이다. 권봉제는 班姓 安東 權氏의 일원으로서 그의 부친인 權錫老는 『忍窩集』이라는 문집을 남긴 문사였다.

양반 신분이지만 상급양반은 아니었던 사람이 예천의 尹致文·朴顯聲·全基恒·全奎選, 상주의 金顯榮·金顯東·金顯楊·金奎培 등 김씨가, 김산의 片輔彦·片相穆 등 모두 10명이다.

윤치문은 무과에 급제하고 통훈대부 사헌부 감찰을 지낸 인물이고 그의 아버지 尹龍勳은 實職은 역임하지 못했지만 종이품 가선대부의 교지를 받은 인물이다. 후손이 보관한 22매의 호적단자의 신분은 모두 유학·학생 등 班稱으로 기재하였다. 박현성은 후손교육에 힘썼던 양반가의 서출이다.

전기항은 상급양반 성씨에게 밀려지내면서 인근 고을 문경의 양반들과 교류하던 성씨에 속하였다. 전규선은 예천에 이주하기 이전 안동 등지의 양반가와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상급양반들과의 교류가 쉽게 이어졌으나 姓勢가 미약했기 때문에 상급양반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상주의 김현영·김현동·김현양·김규배는 한 집안으로서 顯字 돌림은 형제 간

80) 줄고, 1988 <1894年 嶺南 北西部地方 農民軍指導者の 社會身分> <<學林>> 10집

이고 김규배는 대접주 김현영⁸¹⁾의 아들이다. 김씨가는 忠勳府의 勿侵完文까지 받은 宣祖代의 호성공신 花川君의 후예이며, 김현영의 고조는 璿源錄廳의 書寫郎廳 그리고 曾祖는 通禮院 引儀와 行訓練院正 등을 역임하고 있다.

김산의 편보언·편상목은 임진란 때 明軍으로 와서 조선에 정착한 漁陽愾節使 片碣頌의 후손이다. 折江 片氏의 시조가 된 그의 아들 風世는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전몰함으로 공신에 추증되었다. 편상목의 조부는 무과에 급제 후 오위장과 行全羅道中軍을 거쳤고, 그의 백부와 숙부 4명도 무과 급제자이다. 셋째 백부인 片佐彦은 당시 영남에서 보기 드물게 定平府事·咸安郡守 등 지방관에 임명되고 있으며 그의 4촌형이고 片佐彦의 아들인 相薰은 사헌부 監役을 지냈다.

편보언은 편상목의 7촌 아저씨가 되는데 고조는 용양위 부호군을 지냈고 조부는 무과에 급제했다.

조사 가능자 중 평민신분은 崔孟淳·張卜極·鄭東根이다. 최맹순·장복극이 살았던 蘇野는 그 마을 사람과 예천의 유지들이 같이 인정하였다. 정동근이 살던 古谷은 진주 강씨의 마을로서 명문가와 같은 성씨지만 班稱을 하지 못했다.

非班非常의 성씨인 辛氏와 徐氏姓은 후손을 찾지 못했다. 명문 양반가에 속한 사람이 동학에 들어가 敗家한 경우는 고향을 떠나야 했고, 심한 경우 족보에서 빠지기도 했다.

위에서 조사된 농민군 지도자들의 신분별 숫자는 상급양반층에 속했던 사람 7명, 하급양반층에 속했던 사람 10명 등 모두 17명이었다. 이들은 필자가 조사한 49명(추가자 포함) 중 약 40%에 달하는 비율이고 조사 가능자 21명 가운데 80%가 넘는 비율이다. 반면 평민에 속했다고 신분추정을 할 수 있는 인물은 3명으로서 조사가 가능했던 숫자의 약 20%에 불과하다.

이 같은 비율은 여러 이유로 인해 신분배경을 파악하는 일반화의 근거가 되기는 어려우나 동학농민군 지도부를 파악하는 관점에 일정한 시사를 준다. 즉 농민군 지도부가 평민과 노비신분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2) 토지소유

직계 후손 및 傍孫을 만나서 비교적 세밀히 조사한 인물 가운데 貧農은 적었고 부농에서 중소지주 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예상 밖에 많았다.

朴顯聲 : 100석 추수

尹致文 : 논 525마지기, 밭 22.6마지기, 산 6,700평

全基恒 : 지주(여러 면에 토지가 있는 큰 지주)

全奎選 : 논 15마지기, 밭 10마지기

金顯榮家 : 수백석 추수

趙在廈 : 논 20마지기, 밭 10마지기, 산 21,000평

81) 자료상 이름이 君五로 표기된다. <<討匪大略>>

片輔彦 : 논밭 50마지기
 片相穆 : 큰 지주
 裴宰演 : 지주(개인 저수지 소유)
 權鳳濟 : 논밭 30마지기, 산 15,000평
 姜基善 : 논밭 60마지기
 鄭東根 : 빈농
 姜善熙 : 빈농

貧農은 정동근과 강선희 2명에 불과하였고 부농에서 중소지주 정도의 토지소유자는 박현성·윤치문·전기항·전규선·김현영(김현동·김현양·김규배)·편보언·배재연·권봉제·조재하·강기선 등 10명(김현영家を 하나로 포함)이었고 대지주가의 일원인 편상목도 있었다. 영남에서 “수백석” 규모의 지주는 드문 존재였으면 개인 소유지의 水利를 위해 저수지를 쌓을 정도의 지주도 드물었다. 이러한 지주부터 20마지기 소유 이상 5~60마지기 소유주가 확인된 것은 농민군 지도부에 부유한 층도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3) 군사 지도자로서의 능력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이 군사활동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남다른 통솔력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學識과 군사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학식이 있는 사람은 조직의 중심이 될 가능성은 많았을 것이고, 개인적인 완력과 군사지식은 농민군 지휘에 매우 필요한 능력이었을 것이다.

조사가 가능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한학 지식 소유자였다. 實職을 지낸 인물은 물론 진사급제자와 문집본을 남긴 사람이 있다. 윤치문·박현성·전기항·전규선·박영수·김현영·김현동·김현양·김규배·조재하·편보언·편상목·배재연·강기선이 그러하다.

또한 군사지도자로서 통솔력을 발휘할 때 뛰어난 완력은 유리한 능력이 된다.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 씨름판을 휩쓸거나 힘자랑으로 유명했던 인물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윤치문은 힘이 장사로서 초가지붕에 올리는 무거운 이영을 혼자서 던져 올릴 정도였다. 박현성은 10대에 이미 예천 일대의 씨름판을 휩쓸어 우승자에게 주는 황소를 타오던 장사였으며, 환갑 이후의 나이에도 젊은 사람이 엄두를 못내는 커다란 바위를 집어 던졌다는 괴력의 소유자였다.

전기항은 대단히 큰 몸집으로 인해 이름보다는 刀也只라는 별칭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힘을 쓰는데도 주변에서 당할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그의 동생 全基泰와 조카 全河鎭도 力士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상주의 김현양은 진압군이 기습해 왔을 때 재빨리 피신했던 것처럼 아주 날랜 사람이었다. 강선희도 평지돌출한 걸출한 인물로서 앉은 채로 있다가 펄쩍 뛰어 초가집을 넘었다는 장사였다. 정동근의 부친 역시 드문 장사로서 고실 마을에 옮겨놓은 큰 돌들이 아직도 화제가 된다. 그의 아들 정동근도 보통사람을 능가하는 완력의 소유자였다.

이러한 일화들은 과장될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 장사라고 알려진 인물들이 적지 않았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力士들은 쉽게 널리 알려지고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동학농민군은 이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결속할 수 있었고 무장봉기 이후 上命下服의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유리하였것이다.

이와 함께 동학농민군 지도자 가운데 武官職을 역임하거나 武班의 가풍 속에서 성장한 사람을 확인하였다. 예천읍 공격에 앞장섰던 尹致文은 1887년 충무위 부사용·충훈부 도사에 임명되고 있고 1888년에는 무과에 급제하여 1892년 정6품 사헌부 감찰에 차정되었다. 武官이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했던 실례이다.

편보언, 편상목은 여러 대에 걸쳐 무반직을 이어 내려오던 가문 출신이다. 이들은 家傳되던 병서를 익혔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대군을 지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현영家에서는 지금도 몇 권의 병서를 소장하고 있다. 그의 가계를 보면 무관 역임자는 증조부 金正鉉 뿐이다. 교지와 족보에 의하면 김정현은 1837년(헌종 3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1849년(헌종 15년) 정3품 禦侮將軍으로 훈련원 정에 임명되고 있다. 이 병서는 『奇門假令』, 『奇門演局』(卷之上), 『符應兵家 秘訣要』와 『別奇門抄』 등 4책⁸²⁾으로 무관들이 병학을 공부하고 관군을 조련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 같은 배경을 보면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성격을 단순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민이나 천민들은 후대에 옛 활동상을 전하지 못해 조사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더라도 신분면에서 “常賤民이 주도했다”거나, 경제면에서 “몰락양반인 殘班이 이끌었다”든가 하는 것은 한 면만 보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한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 배경은 다양하였다. 이들을 이끌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동학농민군 또는 그 지도부에 참여한 양반의 수가 상천민보다 적다고 해도 이들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사회현실을 비판하고 일본의 침략에 적극 대응하면서 여론을 일으키면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물론 양반 또는 부농들의 일부가 지도부에서 활약했다고 해도 양반이나 부민을 위한 활동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동학농민군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당면 주요 결정은 이들 모두가 참여한 都會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각 대접주 또는 접 조직의 지도부는 군현 단위의 문제가 아닌 무장 봉기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는 동학 교단이나 남접지도부의 결정을 따랐다. 향촌사회를 개혁하는 활동도 그와 같은 영향 아래서 진행되었다. 한편 고위지도부는 하급 동학 조직이나 동학농민군의 의사를 존중해왔기 때문에 여론이 주요 문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했다.

82) 『奇門假令』에는 『奇門陣用變化』 등 陣法을 이용하여 用兵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고, 『符應兵家 秘訣要』는 遁甲法·符籙·八陣圖 등 兵書의 중요 부문을 모아 놓은 것이다. 『別奇門抄』는 축문 쓰는 방법 등을 가지고 다니며 볼 수 있게 소책자로 만든 것이다.

4. 맺는말

1894년 경상도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이 벌인 일련의 활동은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활약하던 남북접농민군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한 것이다. 이 때 경상도의 동학농민군 세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약했던 까닭은 몇 가지가 있다. 동학 교세가 작았다는가, 보수 양반세력이 강했다는가, 감영의 군대가 정비되어 있었다는가, 일본군 병참선이 일찍 구축되었다는가 하는 것들이다.

경상도의 동학농민군은 전라도와 충청도의 조직에서 지원받기도 했지만 북서부와 남서부의 세력은 관과 보수양반층을 압도할 만큼 강대하였다. 이러한 동학농민군을 이끌어내었던 지도부는 동학의 접주 접사 등 간부들과 능력있는 인물들로 이루어졌다.

경상도 북서부에서 활약하던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배경을 조사해본 결과 21명 중 양반신분이 17명이나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토지소유 규모도 적은 것이 아니었다. 모두 14명이 부농 이상 중소지주 정도의 토지 소유자였다. 학식도 14명이나 갖추고 있었고, 무려 10명이 장사로서 뛰어난 완력을 가졌다고 한다. 무반 가게에서 성장하고 병서를 익힌 인물도 있었다. 지도부에서 활약한 상천민들보다 이들은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들은 하부 구성원의 의견이 수렴되는 동학 조직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주요 역할을 하였다. 그렇다고 이들이 양반이나 부농층의 이해를 대변했다는 증거는 없다. 아직 조선의 지배체제가 완강하게 향촌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시기에 이들은 사회경제면의 개혁을 피할만큼 생각이 앞서갔던 층이었다고 볼 수 있다. 동학농민군의 무장활동이 짧은 기간에 종료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특정 성향이 어떤 변화를 주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의미가 적다.

한 시기에 전국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면서 생명을 건 무장 활동에 참여한 이 대사건을 파악할 때 결코 빼놓아서는 안될 것이 조직을 제공하고 지도부를 구성하는 중심이 된 동학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그 당시로 돌아가서 모든 상황을 종합하는 연구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시형과 서장옥

-남북접 문제와 관련하여-

장영민 (상지대 교수)

1. 머리말
2. 최시형과 서장옥의 관계
3. 동학 교문의 분열과 그 원인
 - 1) 시대적 모순의 인식
 - 2) 동학 탄압에 대한 대응
 - 3) 동학 교문의 내적인 갈등
 - 4) 분열의 본질
4. 동학농민전쟁에서의 남북접 대립
 - 1) 서장옥의 행적과 활동
 - 2) 남북접 대립의 실상
5. 맺음말

1. 머리말

동학농민전쟁에 소극적이었던 北接의 지도자 崔時亨과, 반대로 적극적이었던 南接의 지도자 徐章玉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할 것인가? 최시형은 종교적 타협적이며, 심지어는 기회주의자라고 평도 한다. 반면 서인주는 정치적 투쟁적인 지도자로 보며, 동학에서는 이단이였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연구자가 전쟁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다를 수 있다. 동학 교문의 일체성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남북접의 분열과 대립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남북접의 관계를 주목하는 것은 전쟁 주체인 민중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논의를 아예 회피하고 있다.

이런 학설상의 이견은 무엇보다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은 해소될 수 있다. 예컨대 남북접 분열의 본질을 적확하게 지적한다면, 남북접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서장옥은 그 행적과 활동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많은 기록과 연구자들은 그를 남접 최고의 지도자라고 일컫고 있다. 더구나 남북접 교도의 충돌과 그 여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는데도, 전쟁 수행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주었다는 해석도 보인다. 결국 철저한 실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2. 최시형과 서장옥의 관계

33살의 장년인 서장옥이 정선으로 최시형을 찾아와 동학에 입도한 해는 1883년이다. 이 시기는 동학이 충청도와 멀리 전라도까지 전파되기 시작하던 때로서 황하일, 손천민, 손병희 등 이후 중요한 지도자가 될 인물들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대거 입도하였다.

서장옥의 출신은 『東學史』에 약간 기술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그는 佛道에 있던 禪客으로 이름이 있었다고 하지만, 1884년 자기 장인인 陰善長에게 동학을 포덕한 사실로 미루어 입도하기 이미 오래 전에 환속한 상태였거나, 또는 승려였다는 기록이 부정확한 것인지도 모른다. 거주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청주 근방이 분명하며, 大丘 徐氏들이 그곳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본관은 대구인 듯하다. 그리고 청주 북쪽 7리에 위치한 울봉역에 그의 처가가 있었는데, 竹山 陰氏의 족보에 드러난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감안할 때, 서장옥의 신분은 양인, 또는 몰락양반으로 추정된다.

서장옥의 경제적 사정도 불명확하지만, 1885년 봄에 그가 황하일의 주선을 받아 최시형을 보은 장내로 피신시키면서 최소한 답 4두락을 매득하였고, 최시형이 상주 화령으로 거처를 옮긴 다음에도 양식을 계속 대었던 것으로 미루어 빈궁한 처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나 11월이 되어도 면포가 없어 최시형이 겨울옷을 해 입지 못할 정도였다는 것으로 보아 재력가는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오지영은, 최시형의 隱道시대에는 서장옥, 서명학, 윤성화 등이 동학의 庶事를 많이 논의함으로써 동학의 의식과 제도가 불교와 유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장옥은 입도한 이후 최시형의 최측근 제자로서 활동하였을 뿐 아니라, 1887년 1월 최시형의 아들인 德基가 음선장의 둘째 딸과 결혼함으로써 두 사람이 인척 관계로 묶이게 되었고, 또 그 해 3월에는 최시형의 신앙 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정선 갈래산 적조암에서 수련까지 함께 하였다. 따라서 동학의 교세가 비약적으로 커지고 조직과 제도가 정비되던 1880년대에 그가 동학의 발전과 제도적 정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東學史』의 기록은 신빙할 만하다. 그가 최시형보다 여러 모로 우월하였다는 세평도 여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서장옥에 대한 최시형의 생각도 각별하였다. 1889년 10월 28일 서장옥이 체포되었다가 이듬해에 유배에서 保放되자, 그를 완전히 살리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따라 500金을 마련해서 보냈고, 또 그를 위해서 식후마다 하늘에 기도를 드렸으며 다른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기도하도록 하였다. 그 뿐 아니라 비에 의복이 젖었어도 그를 생각하며 갈아입지 않고 밤을 지냈으며 잘 때도 이불을 덮고 자지 않았을 정도였다.

그런데 유배되었던 그가 기록에 다시 나타났던 1892년 7월 이후로 그의 태도는 종전과 무척 달랐다. 그만인 아니라, 역시 최시형의 충실한 제자들이었던 김덕명, 김개남, 손화중 등 주요한 제자들도 변하였다. 결국 이들은 신원운동을 거쳐 동학농민전쟁 과정에서 北接 道主인 최시형의 지도에서 이탈해서 南接이라고 불린 동학의 일파를 형성하였다.

3. 동학 교문의 분열과 그 원인

1) 시대적 모순의 인식

조선왕조는 이미 개항 이전에 자체적인 모순으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던 데다가 개항과 함께 몰아닥친 대외적 위기로 말미암아 명운이 풍전등화 신세가 되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대국가 체제를 갖추어야 하였지만, 오히려 이런 노력조차도 혼란을 초래하였다. 자연 조건도 순조롭지 못해 흉년이 연속으로 발생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가중된 조세 수탈과 가혹한 지주제의 모순 아래 신음하고 있던 민중들을 생존의 기로로 몰고 갔다. 그에 따라 각지에서는 화적이 횡행하고, 농민들의 민요가 빈발하였다. 특히 1892년은 조선왕조 건국 500년이 되던 해였으며, 干支도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壬辰으로 李氏가 멸망하고 전란이 발생한다는 讖言이 돌아 민심이 흉흉하기 짝이 없었다. 미국공사 허드가 예측한 바와 같이, 지도자만 나온다면 혁명이 발발할 심각한 위기상황이었다. 1890년대 초반에 동학이 폭발적으로 교세를 확대하고, 이어서 정치적 활동을 공공연히 개시하였던 데에는 이와같은 사회경제적 위기가 있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위기 상황은 지각이 있는 사람에게는 末世와 다름이 없었다. 백성은 차마 죽지 못해 살아가는데, 가진 자들의 횡포는 더욱 혹심해지고, 외세가 민족의 자존심과 생존을 위협하는 형세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었을 것이다. 새로운 세계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던 동학교도들도 이런 시대적 모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한 위기감과 비판 의식을 가졌다. 그들 자신이 바로 억압받고 수탈당하던 민중이기 때문에 암담한 현실을 더욱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

서장옥과 전봉준 등 남접 지도자들이 선택하였던 투쟁 노선은 이러한 시대적 모순에서 기인하였다. 전봉준이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虐政에 시달리며 冤歎하는 민중을 위해서 除害하고자 일어섰던 것이다. 그가 보기에, 참고 또 참는 민중의 인내는 막다른 한계에 도달하였으므로 시대적 모순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고 지금 당장 해결하여야 하였다. 이 시기 동학교도 사이에 널리 퍼졌던 鄭真人 出世說 등 鄭鑑錄의인 분위기, 또 ‘先生’이 곧 강림해서 새로운 세계를 이룰 것이라는 믿음도 현

실세계의 즉각적인 종말을 고대하는 열망에서 나왔다.

최시형이라고 이러한 현실을 알지 못하였을 리는 없다. 그 자신 역시 사람이 하늘이며, 하늘이 사람이라는 신념을 가졌고, 제자들에게도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고 가르쳤다. 또한 有無相資하라는 통유문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깊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後天開闢之運”이 無爲而化로 오기만을 기다리는 자세는 현실 고통의 인내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가 봉기한 전봉준에게 보냈다고 하는 “玄機不露 勿爲心急 功成他日 好作仙緣”하라는 말은 인간 하나하나의 근원적 해방을 지향한다고 하여도, 일상적 현실적인 고통 속에 사는 민중에게는 실현이 요원한 소망에 지나지 않았다.

2) 동학 탄압에 대한 대응

邪道로 규정된 동학이 1880년대에 들어 또다시 탄압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였던 때는 교세가 충청도와 전라도로 힘차게 확대되어 나가던 1884년이였다. 이후 최시형을 비롯해서 많은 주요 제자와 교도들은 탄압을 피하고 체포를 면하기 위해서 정치 없이 떠돌거나 불안한 생활을 하여야 하였고, 최시형은 주문을 임시로 변경하거나 교단 조직을 해체하였고 아예 포덕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1885년에는 충청감사와 단양군수가 내린 체포령으로 次道主 姜時元 등이 투옥되는 등 큰 손실을 입었다.

1889년 겨울에는 왕명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체포를 당해 서울로 압송되어 죽음을 당하였고, 서장옥은 간신히 살아남아 金甲島로 유배당하였다. 최시형도 인제, 양구 등 강원도 산악지대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각지로 피신을 거듭하였다. 이렇게 관리들의 지목이 심해진 까닭은 그 전말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聞慶事變’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짐작컨대 이 사건은 동학교도들이 중심되어서 일으킨 것으로 관리들에게 흑심하게 탄압을 받을 만큼 중대하였던 듯하다. 이에 관한 유일한 기록인 『天道教會史 草稿』의 문맥으로 보아, 서장옥도 이 사건에 관련된 듯하다.

지도자들만 관리와 토호들의 가혹한 탄압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특히 1892년 1월 충청감사 조병식이 동학 금지령을 내리자 공주, 영동, 옥천, 청산 등 충청도의 교도들은 신체를 상하고 금전을 빼앗기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와 영장 윤영기는 금령을 빌미로 교도들을 가혹하게 수탈하였다. 전라도도 역시 김제, 만경, 무장, 정읍, 여산 등지의 교도가 침학을 면하지 못하였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교도들은 안전과 자유를 간절히 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장옥이 인제점에서 보낸 돈으로 유배에서 풀려나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었는데는 알 수 없다. 그가 다시 최시형 앞에 나타났던 때는 1892년 7월로, 그는 서병학, 장희용과 함께 ‘大先生伸冤’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최제우의 신원은, 곧 동학이 邪道の 혐의를 벗음으로써 교도들이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신원 요구 뒤에는 정치, 사회, 경제 등 현실 문제의 해결 의지와 요구가 들어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들은, 세 달이나 지난 다음에 최시형에게 어렵게 허락을 얻어 10월 26일 공주취회를 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어서 11월에 열린 삼례취회가 해산될 때부터 동학 내부에는 갈등이 노골적으로 일어났다. 즉 최시형과 서장옥 사이가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여 후에 남접이라고 불린 일단의 지도자들이 최시형 및 그를 옹위하던 손천민, 김연국 등과는 다른 길을 택하였다. 그것은 동학이 직면한 중대한 문제의 해결 방법, 다시 말해서 여전히 邪道의 혐의를 쓰고 관리들의 탄압을 그대로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그 탄압을 과감하게 거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었다.

삼례취회 이후 최시형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서장옥과 전봉준 등 새로운 노선의 지도자들은 삼례와 원평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취회를 계속 열었다. 결국 최시형은 이들의 완강한 태도에 밀려 복합상소를 허락하였고, 그 여파로 탄압이 격심해지자 다시 보은취회를 열게 되었다. 보은취회에는 서장옥과 전봉준 등을 포함해서 동학교문 전체가 참여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최시형과 서장옥, 곧 중앙지도부와 새로운 노선의 지도자들은 거의 완전히 결별하고 말았던 것 같다. 이미 복합상소 때에도 무력을 사용하자는 자들이 나타났지만, 보은취회에서도 교도들이 무장 봉기해서 한강을 따라 충주를 거쳐 서울로 진격하자는 소수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최시형으로서는 절대 승인할 수 없었던 위험천만한 제안이었다. 이미 1871년 이필제가 주도한 영해병란에 가담한 적이 있던 그는, 이와 같은 모험적 무장 봉기는 필연코 동학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인명을 앗아갈 것이라고 확신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서장옥 등은 최시형의 확고한 반대에 직면하고, 홍계훈이 이끄는 관군이 대기하고 있고, 또 聚衆이 곧 해산해 버리자, 각자 귀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동학농민전쟁 때까지 서장옥에 관한 기록도 발견할 수 없고, 그와 최시형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다시 만난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종교집단인 동학이 현실 권력과 대립하면서 전체적으로 정치세력화하고, 또 그 가운데 일부 교도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급진적인 운동을 전개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은 관리와 양반의 탄압이었다. 최시형은 이와 같은 정치운동을 “無爲而化”나 ‘최제우에게는 인간의 伸과 冤은 의미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지만, 이미 그 탄압을 몸소 경험하고 시대적 모순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세력은 투쟁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3) 동학 교문의 내적인 갈등

이러한 동학 교문의 분열은 외부적 원인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것이 남접의 대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교문이 위기적 상황에 처하였을 때에는 그 안에서 생긴 작은 균열도 적지 않은 파괴력을 발휘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891년 5월과 6월 두 달에 걸쳐 최시형은 부안과 전주를 비롯해서 전라도 일대를 순회하였다. 이때 전라도에서는 일찍 입도하였고, 또 유력하였던 교도가 尹相五와

南啓天이었다. 윤상오는 공주 신평에 거주하였지만, 부안에도 소실을 두고 있는 등 공주 외에 이 지역에서도 일정한 연고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남계천은 익산 남이면에 거주하였는데, 백정 출신이라는 설도 있다. 이들은 각각 호남 우도두령과 좌도두령을 맡고 있었는데, 최시형이 남계천을 전라도의 총책임자인 便義長으로 삼자, 여기에 대해서 일부 교도들이 반발하였다. 그래서 김낙철 등 16개 접백여 명의 교도들이 최시형을 찾아가 남계천의 낮은 신분을 거론하였다가 오히려 꾸지람만 들었다고 한다. 김낙철은 모든 사람이 그대로 따랐다고 썼지만, 실제로는 그 여파가 남았을 것이다.

1881년 8월에 최시형을 찾아와 동학에 입도한 윤상오는 1883년 5월 이른바 경주판이라고 이름붙인 『東經大全』을 공주접에서 인출할 때 有司로서 크게 기여한 바가 있었다. 또한 서장옥이 보방되었지만, 돈이 있어야 완전히 살아날 수 있다고 인제까지 와서 최시형에게 고한 교도가 그였다. 이후 윤상오는 최시형을 자기 집에 피신시키는 등 측근으로 활동한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남계천이 편의장이 된 뒤부터는 종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반면 남계천은 최시형이 전라도 일대를 순회할 때 종착지인 전주까지 수행하였다.

윤상오는 서장옥뿐 아니라 장희용이란 교도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시 주목된다. 장희용은 1870년대 후반에 입도하였으며, 1879년 3월경 인제접에서 大致祭를 거행할 때 執事의 직을 맡았고, 1881년 단양에서 『용담유사』를 발간할 때도 간여하였다. 이런 것으로 보아, 그는 신앙 활동을 열성으로 하였던 교도라고 할 수 있다. 거주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기에는 동학의 교세가 정선과 인제 등 강원도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원도 출신일 가능성이 높으며, 혹시 강원도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충청도 지역 출신일지도 모른다. 나이는 서장옥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입도는 20대에 하였을 것이다. 1890년 7월 그믐 쯤 그도 윤상오와 함께 서장옥을 살리기 위해서 최시형을 만났다. 그리고 최시형이 공주로 피신하고 전라도를 순회할 때 수행하기도 하였다. 1892년 7월에 그는 서장옥과 함께 최시형을 찾아와 신원운동을 권하였다. 이렇게 그 역시 최시형과는 가까웠던 교도였지만, 이후 최시형과의 관계는 끊어진 듯하다.

신원운동과 농민전쟁 과정에서 장희용은 아주 중요한 기록을 남겼다. 즉 『駐韓日本公使館記錄』 8권에 실린 <東學黨 接主 張斗在가 발표한 回章(大院君의 지시로 淸兵과 합세하여 日兵을 토벌하자는 내용)>은 바로 장희용이 김덕명, 김개남, 손화중 앞으로 보낸 편지이다. 이 편지의 내용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루겠으며, 여기에서는 서장옥이 김개남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최시형 등 북접 지도부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것은 남접의 지도자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공동의 목표와 노선을 추구하던 집단이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는 점만을 말하겠다.

그리고 동학의 발전 과정에서 특이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최시형의 최측근, 교단의 실권자는 최시형의 혼인 관계에 따라 부침하였다. 1874년 그가 단양에서 안동

김씨를 취처하였을 당시에는 강시원이 오른팔로서 교권을 장악하고 교단의 일을 지휘하였다. 1880년대에 들어서 강시원은 명목상 제2인자에 불과하였고, 서장옥이 주요한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1887년에는 최시형의 아들 덕기가 그의 처제와 혼인함으로써, 두 사람은 인척이 되었다. 그리고 1888년 손병희 누이가 제3취처로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아 공교롭게도 서장옥이 체포당하였고, 이후 손천민과 손병희 숙질이 최시형의 최측근으로 활약하게 되었다.

4) 분열의 본질

이러한 분열, 다시 말해서 종교집단의 성격을 유지하던 동학 교문에서 정치성이 농후한 남접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동학이 새로운 제도종교로 성장해 가던 신종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인간 존재를 부정하고 생명을 부인하는 극단적 모순이 횡행하는 사회에서는 언제나 민중들의 신앙운동이 발생하였다. 극도의 고통과 의미의 상실을 현실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인간은 관념의 세계로 빠져 들고, 초월적이며 절대적인 존재를 갈구하는 종교적 본성을 지녔다. 특히 전근대사회의 민중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의의를 찾기 위해서 쉽게 종교에 몰입하였다. 현실을 강력하게 부정하며 새로운 세계가 당장 도래한다고 외치는 민중신앙운동에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당장 벗어나려고 하는 민중들이 삼시간에 몰렸다. 따라서 민중의 신앙운동은 삶의 궁극적 의미의 발견, 종교적 세계 속의 몰입만이 아니라, 그와 전혀 다르게 현세적인 이익의 획득을 추구하는 이원적 속성을 보인다.

동학도 조선사회에서 면면히 전개되어온 민중신앙운동의 열매였고, 교도들이 추구하던 목표도 종교적인 것과 현세적인 것이 뒤섞여 있었다. 寧海兵亂도 ‘초기동학’의 이원적 성격 가운데 현세적인 경향이 종교적인 것보다 훨씬 우세해진 결과 일어났던 사건이었다. 물론 영해병란의 독특한 성격과 발생 구조가 있지만, 이런 설명은 신원운동과 동학농민전쟁에서 나타난 남접의 발생에도 그런 대로 적용될 수 있다.

시대적 모순의 심화와 그에 대한 인식의 차이, 권력의 가혹한 탄압과 그에 대한 대응 양식의 차이, 교단 내의 사소한 갈등, 지도자의 사상적 차이 등은 동일한 신앙운동을 분열시키거나 해체시켜 버린다. 아직 교단도 건교하게 확립되지도 않고, 교리와 의례도 유동 상태인 민중신앙운동 내지는 신종교는 이러한 내부적 차이에 의해서 소멸의 위기를 맞기도 한다. 특히 막강한 현실 권력의 가혹한 탄압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절박한 문제는 신자들을 분열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남북접의 분열도 관리와 양반의 탄압이 지도자만이 아니라 일반 교도들에게까지 가해지던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불가피하였다. 아무리 최시형이 막으려고 하였더라도, 교도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려고 하는 교도는 나을 수밖에 없었다. 교도의 고통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종교의 사명 때문에 이런 시도를 저지할 수 있는 명분도 그다지 적당하지 않았다. 최시형이 신원운동을 주장하는 서장옥 등에게

“뿔박”당한 이유도 이 점에 있었을 것이다.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 즉 無爲而化도 ‘지금 당장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열망하는 교도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머지않아 올 것이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추상적이며 막연한 약속에 불과하였다. 그 사회적 실현과는 무관하게 제시된, 그래서 초월적인 차원으로 흐른 극도의 인간 존중주의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유교적인 윤리 규범을 강조한 것도 후천개벽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현실 사회에 참고 적용할 것을 말한 것이다.

그렇다고 남북접의 지도자들이 가졌던 동학사상의 본질이 전혀 이질적이었다고는 말하기 어렵고, 오히려 동질적인 면이 더 많았을 것이다. 전봉준이 자세하게 진술한 동학 교리에서 이질성을 찾아내려는 노력은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또 전쟁 과정에서 남접 동학농민군이 보여 준 종교적 성격과 북접의 그것도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주문이 약간 다르기도 하였다고 하지만, 그것은 교리와 의례가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지역적인 차이에 불과하다고 이해한다. 제 1 차 봉기에서 나타난 종교적 의식과 복장과 행동 등은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행해진 것으로 북접과 비교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남북접 분열에 대한 설명은 종교적 편향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를 ‘계급’으로 충분하게 설명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선 남북접 지도자와 추종자들의 경제적 기반이 달랐다고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도 없다. 흉년 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곤궁 정도의 차이는 생각할 수 있지만, 구조적이며 계급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즉 경제적 사정은 남접과 북접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쟁에 적극 나선 남접이 경제적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들의 의식과 목표에서 이것이 모든 것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요컨대 남북접 분열의 원인은 신종교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실 인식과 위기 의식, 그리고 탄압에 대한 대응 자세의 내부적 차이이다.

4. 동학농민전쟁에서의 남북접 대립

1) 서장옥의 행적과 활동

1889년 체포된 이후 서장옥의 행적은 의문투성이다. 그는 유배에서 완전히 풀려나지 못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시천교역사』에 “翌年仁周得保見釋 與徐丙學等密議進稟於師 呈冤狀于錦完兩營後 仁周仍還匪所 丙學脫身在逃 由是令列郡 大行捕縛”이라는 기사가 1892년 11월 이전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서장옥은 비록 보석이 되었을지라도, 완전한 자유를 얻지는 못하였던 듯하다. 『大先生事蹟 附 海月先生文集』 甲午年條의 기사에도 “徐仁周 以島配重囚 欲圖脫身 嘯聚包中 竟至濁亂”하였다고 한다. 즉 1894년에도 그는 아직 유배에서 풀려나지 않았으며, 유배지를 이탈해서 활동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하였다는 말이다.

또 1894년 3월말부터 4월초까지 珍山 防築店에서 전봉준과 상응하기 위해서 동학

농민군이 취회하였는데, 이곳은 서장옥의 管下라고 한다. 그의 관하에서 봉기가 일어났다는 말을 곧 그가 그 자리에서 직접 봉기를 지휘하였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여도, 또한 그곳이 어떻게 그의 관하가 되었는지 궁금하지만, 김낙봉의 기록이 정확하다고 전제하면, 그가 간접적이라도 이 봉기에 연관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대원군이 정계에 복귀한 6월 21일 좌우포도청에 갇힌 賊徒를 제외한 輕囚는 석방하라는 명령에 따라 신원운동 당시 체포되어 2년이 넘도록 포도청에 구금되어 있던 동학교도들도 풀려 나왔는데, 장희용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서장옥만은 좌포도청으로 옮겨 갇혀 있다가 徒流案에 있는 雜犯은 死罪가 아니라면 석방하라는 傳敎가 다시 내린 28일에야 간신히 석방되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서장옥은 다른 교도보다 형벌이 훨씬 무거워 사형을 겨우 면한 처지였고, 또 유배형을 당하였던 그가 이런 중죄인이 되어 서울 포도청에 투옥된 데에는 1889년 사건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측컨대 배소 이탈과 신원운동이 그 죄목이었을 것이다. 탐정을 잘 이용하던 정부가 그의 정체와 활동을 파악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장희용의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서장옥의 동정은 이 정도에 불과하며, 그가 언제 체포되었는지, 제1차 봉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또한 석방된 이후에 어느 곳에서 누구와 더불어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도 구체적으로는 모른다. 다만 남접의 지도자로서 일정한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재기포 활동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자료가 있을 따름이다.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재기포 사이에 장희용은 박동진, 박세강, 정인덕, 그리고 대원군과 연결되어 있었다. 서장옥도 장희용, 박동진, 박세강과 함께 투옥되었다가 석방되었고, 실제 박동진이 그와 임기준을 접촉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이 관계에 넣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대원군측에서는 이준용, 이태용, 박준양, 임진수가 움직이었던 반면 동학을 대표해서는 정인덕, 박동진, 박세강이 나섰지만, 서장옥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그가 대원군의 동학농민군 봉기 기도와 무관하지는 않았던 듯하다. 예컨대 『梧下記聞』은 그가 운현궁에 숨어 있다는 소문을 전하고 있다.

장희용은 김개남 등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대원군에게 청국병과 합세해서 일본을 물리치겠다는 말을 하였더니 좋다는 말을 들었고, 동학농민군이 북상해서 공주를 점령한 뒤, “某兄”의 지휘를 기다리자고 하였는데, 이 某兄은 대원군측과 동학교도를 중간에서 연결시켰던 鄭仁德이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그는 서울“栽培學堂”(培材學堂? - 인용자)의 교사로 있었고, “乙未義塾”의 교사가 된 일본인 永瀬得樹와 친밀하였고, 대원군과 동학의 관련이 노출되면서 일본 大阪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漢文敎師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대원군은 권좌에 복귀하기 전에 일본인과, 일본에 망명해 있던 김옥균과 교류를 맺고 있었다.

진위 여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1893년 이후 김옥균과 동학이 서로 기맥

을 통하여 일거에 奸黨을 芟除하고 淸國의 세력을 구축해서 완전한 독립국을 창설 하자는 밀약을 맺었는데, 가운데서 연락을 담당하던 일본인의 사정으로 실패로 돌아간 일이 있다고 한다. 또 제1차 봉기 때에는 동학농민군 앞에는 김옥균이 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그리고 일본인 服部徹이 『小説 東學黨』을 발간하였는데, 김옥균이 題字를 썼다고 한다. 이 책은 소설이기는 하지만, 조선인 친지로부터 들은 사실에 입각해서 썼다고 필자는 말한다. 소설의 주인공은 珍島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몰래 일본 어선을 이용해서 일본까지 다녀온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런데 진도의 의신면에는 바로 서장옥이 유배되었던 금갑도가 속해 있다. 현재로서는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추측에 불과하며, 그 가능성이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지만, 그가 일본으로 탈출하였다가 ‘문명개화’의 지식을 가지고 돌아왔을지도, 또 그곳에서 일본인을 만났을지도 모른다. 완도 앞 금오도에 유배되어 있던 李周會는 일본인과 함께 간척과 어업 사업을 하기도 하였고, 당시 서남해 연안에 빈번히 출몰하였던 일본 어선은 1889년에 「通漁規則」이 맺어지자 더욱 활개치던 형편이었다.

그리고 대원군의 동학농민군 동원 기도에 깊숙하게 관련된 前主事 林琮洙는 1893년 여름부터 鄭寅德과 친숙하였고, 박동진에게 일본공사관에 照會해서 함께 급선무를 논의하고 서양의 통례에 따라 上下議院을 설치하도록 하자는 편지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것은, 전봉준이 피체된 직후에 일본군 소좌 南小四郎에게 “몇 사람의 주석(柱石)의 선비를 내세워서 정치를 하게 하고 (중략) 국사를 한 사람의 세력가에게 맡기는 것은 크게 폐해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몇 사람의 명사에게 협합(協合)해서 합의법(合議法)에 의해서 정치를 담당하게 할 생각이었다”고 대답한 것과 기본 골자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1893년 보은취회에서 스스로를 ‘民會’라고 하고, “각국에도 民會가 있어, 조정의 政令이 백성과 나라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會議講定한다.”고 한 바가 있었다.

만일 대원군, 일본인, 개화인사, 남접 지도자가 이렇게 서로 연결될 수 있다면, 남접의 유력한 인물인 서장옥도 이 관계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 또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기도 어렵고, 모든 남접 지도자의 견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들의 정치체제에 대한 구상은 ‘대의민주주의체제’였을 것이라고 추측해 보는 것도 전혀 의미가 없지는 않을 듯하다. 문제는 사료의 뒷받침이 매우 부족하며, 특히 서장옥과 관련된 사료는 더욱 희귀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북접 지도자들도 이런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다.

그가 실제 재기포하였다는 사실을 전하는 기록은 찾을 수 있다. 9월 24일부터 그가 지휘하는 동학농민군이 청주성을 포위하기 시작하자 청주병사가 구원을 요청하였는데, 더 이상의 것은 알지 못한다. 권병덕의 기록에 따르면, 이 동학농민군은 청주 송산포의 손천민이 동원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손천민과 그는 1887년 적조암 수련에 더불어 참가하였고, 1900년에는 청주에서 함께 체포되는 등 일정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서로 합세하였을지도 모른다. 또 11월 13일에는 김개남·손화중과 함께 청주성 공략에 나섰다가 대패하였다고 한다. 이 『時間記』의

기록은 다른 자료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진위가 의심되기도 하지만, 전봉준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장희용이 은진에 주둔해 있던 자기와 김개남에게 청주로 가라고 “피어” 김개남이 그곳으로 갔다고 하는데, 혹시 서장옥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서장옥과 관련된 사료는 대부분 빈약하며 추측을 불가피하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중요하지 않았던 인물이며, 남접의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뜻은 아니다. 그의 성씨를 따서 남접을 徐布라고 불렀다는 『오하기문』의 기록, 異人이나 眞人이라고 불렀다는 『東學史』의 기록, 전봉준과 함께 가장 혁명적인 인물이었다는 김상기의 평가, 전봉준과 김개남과 손화중 등을 제자로 두고 있으며 학력과 언변이 모두 최시형보다 뛰어나다는 일본군 소좌의 보고, 그리고 그가 갑오년에 衆民을 선동해서 그 세력이 전봉준과 김개남과 최시형과 莫上莫下하였다는 『判決宣告書』 등은 그가 전봉준이나 최시형만큼 중요하였던 인물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이처럼 당시인들이 행적도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고, 전투에서 승리하지도 못한 서장옥을 남접의 우두머리로 ‘신비화’한 것은 나름대로 근거와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특히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더라도, 그를 직접적으로 심문한 검사의 공소장에 의거해서 판결을 내린 平理院 재판관도 그를 그렇게 인식하였다는 것은 가볍게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역사 연구에서 관련 사료가 빈약하거나 없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서장옥과 최시형의 관계는 대략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지만, 그나마도 전쟁 당시의 것은 없다. 전쟁을 직접 수행한 전봉준 등 남접 실세와의 관계도 장희용의 편지를 통해서 일부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위의 기록들에 나타난 서장옥의 모습은 전쟁 막후의 연출자와 같다. 즉 그가 뒤에서 동학농민군을 봉기시켰고, 전봉준 등은 그의 조종에 따른 듯하다. 이와 같은 역할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풍부한 자료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서장옥을 마치 최고 지휘자처럼 인식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서장옥은 동학농민군의 투쟁을 이끌어 나간 주요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평가에 그쳐야 한다.

2) 남북접 대립의 실상

남접의 실체는 신원운동 과정에서부터 형성되었지만, 동학 교문이 남접과 북접으로 확연하게 분열된 시기는 제1차 전쟁이 발발한 이후이며, 호남과 호서의 지역적 구분은 타당하지 않다는 데 학계의 의견이 일치되는 듯하다. 그렇지만 남북접 대립의 구체적 양상은 여전히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 이것도, 이름은 높지만 관련 사료가 빈약한 서장옥의 문제와 비슷한 실정이라고 생각된다. 그 분열과 대립에 관한 자료는 실상을 자세하게 기술해 놓은 것이 아니라 대체적인 대립의 양상만을 말하고 있을 뿐이거나 과장되게 서술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가 제대로 진척될 수 없었고, 이런 까닭에 남북접 대립은 외국 간섭보다 더 큰 동학농민군의 패인이었다는 평가도 일찍부터 나왔다.

『東學史』는, 남북접이 언쟁으로 시작해서 차차 육박전을 하다가 나중에는 殺傷하기에 이르렀고, 특히 재기포하면서 북접 교도들은 남접 교도들에게 죽을 지경이었다고 한다. 김상기도 재기포를 앞두고 전봉준은 북접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 군량과 마초를 강징하는 등 노골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이와 같은 남북접의 충돌은 9월 25일 五邑東學執綱인 辛在蓮이 죽산부사 이두황에게 보낸 문서에 잘 나타나 있다. “所謂湖南湖西之道儒者 名以南接 稱以倡義 引衆聚黨 收馬收兵 侵掠平民 殺害道員 罔有其極 餘風吹入畿內” 그렇지만 최시형이나 북접 지도자들이 무력으로 남접을 치겠다고 나설 만큼 양측의 충돌이 심각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또 천도교인 사이에는 ‘伐南旗’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설도 있었다.

그런데 남북접의 대립과 충돌에 관해서 한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즉 연구자들이 이것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인식 형성에 크게 공헌한 것이 시천교와 천도교의 교회사이다. 그 대표적인 것은 1920년에 시천교총부가 펴낸 『侍天教歷史』와 1928년 이후에 천도교청년교리강연부에서 만든 프리트본 『天道教會史 草稿』인데, 두 책의 상당 부분은 모두 1915년에 출간된 『侍天教宗釋史』에 의존하고 있다. 사실 천도교의 『天道教書』와 『天道教創建史』도 『侍天教宗釋史』를 저본으로 삼지 않았나 생각될 정도로 중복된 내용이 많다.

이 『侍天教宗釋史』는 신원운동과 동학농민전쟁에 관련된 사실을 제대로 기술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과장과 은폐와 조작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을 왜곡하였다. 이것은 시천교의 친일 성향에서 비롯된 것임은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접의 대립과 충돌에 대한 서술의 목적도, 북접은 봉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남접을 억제하려고 하였다는 변명에 집중되었다. 북접이 내놓았다는 몇 가지 문서도 전적으로 믿기 어려운 것이, 사용된 어휘에는 당시 전혀 쓰지도 않았던 “宗教”, “教人”, “教領”, “信仰”, “思想”, “革命” 등이 들어 있고, 시간의 선후가 뒤바뀐 기사가 많다. 이는 편찬자인 박정동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고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원래 문서에 손을 대었다는 증거이다. 사료를 완전히 새로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최시형이 충주에 주둔한 일본군에게 보냈다는 문서도 믿기 어렵다.

그래도 『侍天教宗釋史』는 『侍天教歷史』와 『天道教會史 草稿』보다는 왜곡이 덜 심하다. 여기에는 서장옥과 전봉준을 남접의 우두머리로 명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侍天教歷史』는 각 접은 서로 싸우지 말고 教頭의 지시와 教規(이 당시 동학은 종교의 의미인 ‘教’를 사용하지도 않았다.)를 잘 지키라는 최시형의 “通諭文”을 “告絶文”으로 변조해서 남북접 전쟁의 결정적 사료로 만들었다. 도를 지키고 스승을 존경하는 것은 “오직 북접뿐이다. 지금 들으니 호남의 전봉준 호서의 서장옥이 문호를 따로 만들어서 남접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우리 북접을 신앙하는 자는 (중략) 사문의 난적을 함께 치는 것이 가하다.”는 내용을 새로 집어 넣어 본래의 뜻이 완전히 왜곡된 문서를 만들어 냈다. 『天道教會史 草稿』도 이것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고 있다.

동학 교문이 동학농민전쟁이라는 중차대한 상황에 직면해서 남접과 북접으로 분

열되어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였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또한 이런 분열이 투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동학농민전쟁이라는 커다란 사건에서 남북접의 분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왜냐 하면, 그 갈등의 시간도 얼마 길지 않았고, 폭력적 상황이 자연스럽게 전개되던 와중에서도 상호 간의 희생은 크지 않았고, 대립으로 말미암아 남접과 북접이 봉기하지 못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후세의 굴절된 역사가 말하듯이, 최시형이 남접을 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다. 북접에게 더욱 중대하였던 것은 일제와 정부와 양반의 위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시형은 허문숙과 맹영재와 같은 양반 민보에게 교도들이 참혹하게 죽고, 관군도 공격을 가하자 “앉아 있으면 죽고 움직이면 산다.”며 봉기를 명령하였다. 여기에서 오지영 등의 남북접조화 노력이 차지할 자리는 별로 넓지 않았다.

5. 맺음말

시대적 모순 인식의 차이와 탄압에 대한 대응 태도가 스승과 제자 관계인 최시형과 서장옥을 결별하게 하고 신종교인 동학을 남접과 북접으로 분열시켰다. 그렇다고 남접이 북접에서 완전히 분리해 나갔던 것은 아니지만, 양자의 차이점은 인정해야 한다.

남접의 최고 지도자로 손꼽히지만, 자세한 행적과 활동을 알 수 없는 서장옥에 관해서 더욱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만 지금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너무 ‘신비화’되었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인 활동상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다른 남접 지도자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류는 시천교와 천도교 역사서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최시형은 북접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동학 전체의 지도자였다. 그도 역시 현실의 모순과 민중의 고통을 모르지도 않았고 외면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런 우주적인 변화를 고대하는 초월적이며 종교적인 자세는 자연히 현실 고통의 인내와 새로운 세계의 기다림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全瑋準·金開南의 政治的 志向과 戰略

- 9월 재봉기를 중심으로 -

이진영(전북대 강사)

1. 머리말
2. 9월 재봉기와 두 지도자의 정치적 지향
3. 9월 재봉기의 전략
4. 맺음말

1. 머리말

전봉준과 김개남은 명실상부한 동학농민전쟁의 최고지도자이다. 농민전쟁은 이밖의 많은 지도자의 협력과 그 하부의 소지도자, 수많은 농민군의 참여에 힘입어 진행된 것이지만, 농민군을 전체적으로 조직하고 농민전쟁의 진행방향을 결정하는데 핵심을 이룬 것은 이 두 지도자였다. 5월 전주화약 이후 양자가 全羅左·右道를 나누어 관리한 것은 농민군의 그러한 세력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따라서 농민전쟁의 지향과 전개를 이해하고자 할 때, 두 지도자의 행적, 특히 이들은 각기 어떤 정치적 구상을 했고 -그들이 지향한 정치체제는 무엇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 연대를 도모한 세력은 누구인가 등- 어떤 전략을 수행했는가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각자의 지향 등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두 지도자의 지향과 전략이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가를 살피는 일이다. 兩者는 上命下服의 지휘관계가 아니라 독자적인 세력기반을 지닌 가운데 연합한 대등한 관계였다. 이들이 때로 異見을 보이는 등 一絲不亂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세력구도에 기반한다. 그렇다고 김개남이 전봉준과 비중이 같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두 축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 지도자만으로 농민전쟁의 전체적인 양상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양자의 관계를 검토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필자는 양자의 관계가 농민전쟁의 방향과 형태를 결정짓는 가장 큰 내부적인 요

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추어 양자의 관계는,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전봉준·김개남의 정치적 지향과 전략, 그 관계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정리할 수 있다.⁸³⁾ 우선 그간의 연구는 주로 전봉준을 중심으로 살펴면서, 그가 새로운 권력구조를 지향했다는 데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고, 또 그가 연대를 도모한 세력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크게 ‘개화파’로 보는 견해와 ‘대원군’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전봉준과 김개남의 관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분열된 관계로 보는 견해와 부분적으로 일치된 관계로 보는 견해로 나뉘어 있는데, 분열이든 부분적 일치든 모두 김개남에게서 한계를 찾고 있다.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는 농민군 세력구도의 특성, 이동·전투 등을 통한 전체적인 전략, 또 농민전쟁 지도의 한 축인 김개남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한다.

이에 여기서는 그간 소홀히 다루어졌던 김개남을 중심으로, 시간적으로는 9월 제봉기 과정을 주로 하여, 양자의 정치적 지향과 전략은 무엇이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그 일치와 차이는 농민전쟁의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고자 한다. 그리고 농민전쟁의 大義, 지향, 전략에 있어서 이들의 관계는 어떤 것이었는가를 평가해보려 한다.

2. 9월 제봉기와 두 지도자의 정치적 지향

3월 봉기 때의 농민군의 구체적인 정치적 지향점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檄文, 4대명의 등에서 보듯이, 이때 농민군은 정부와 관리의 弊政척결=閔氏정권척결을 목표로 세우고 일치된 행동을 전개했다. 민씨정권의 척결 요구 역시 그 자체로 이미 농민군의 ‘정치적 활동’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은 부패한 현정권에 대한 저항의 차원이었지 정치적 체제구상이나 그 요구에까지 이른 것은 못된다. 또한 3월 봉기 과정에서 농민군이 기회가 닿는대로 대원군의 집권을 요구한 것도 농민군의 정치적 구상과 관련하여 일단 주목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이들의 정치적 지향을 유추하거나 -예컨대 농민군이 대원군과의 연대를 도모했다거나 하는 등-, 이것을 농민군이 지향하는 정치형태를 드러낸 것으로 연결짓기는 무리이다. 이는 선행연구의 지적대로 폐정척결=민씨정권척결을 위한 적임자로서, 농민군이 대원군을 선망한 정도의 것이

83) 농민전쟁 전반을 다룬 연구는 농민군의 정치적 지향, 전봉준과 김개남의 행적, 두 지도자의 관계를 거의 빠뜨리지 않고 다루었다. 그 가운데 여기에서 참고한 글은 다음과 같다.

李離和, 「전봉준과 동학농민전쟁」, 1-4, 『역사비평』 7-10, 역사비평사, 1989-1990.

鄭昌烈, 『甲午農民戰爭研究 -전봉준의 사상과 행동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1. 우윤, 『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 창작과비평사, 1993.

慎鎭廈, 『東學과 甲午農民戰爭研究』, 일조각, 1993.

박찬승, 「1894년 농민전쟁기 호남지방 농민군의 동향 -남원지방 김개남 세력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 1995.

었다.⁸⁴⁾ 이 시기 농민군의 정치의식은 구체적인 정치형태에 대한 구상이 있었다기 보다, 우선은 폐정척결을 ‘기대’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농민군의 정치적 구상은 이후의 정국 변화에 따라 드러날 것이었다.

5월초 전주성에서 해산한 이후 농민군은 무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농민군 주도의 활동을 전개해갔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농민군 지도부 내부에서, 특히 전봉준과 김개남 사이에 방법상의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김개남은 전주성에서 해산하고 전봉준과 길을 달리하면서부터 강경한 활동을 전개해갔다. 그는 5월 23일경 泰仁을 출발하여 전라도 일대를 순행하고 6월 25일 南原에 들어왔다.⁸⁵⁾ 이 과정에서 그는 “賊(농민군)은 지나가는 列邑마다... 읍촌에 두루퍼져 민가의 砲馬를 거두고 富民의 錢穀을 토색했으며 작은 원한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갚았다”⁸⁶⁾는 것과 같은 공격적인 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활동은 남원을 장악하는 과정에서도 계속되었다.⁸⁷⁾ 그러나 같은 시기 전봉준은 김개남과 달리 지방행정 질서를 인정하는 선에서 신변보장과 폐정개혁 등을 관철시키려 하였다.⁸⁸⁾ 이러한 때인 6월 21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강제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라감사 金鶴鎭은 남원에 있는 전봉준 등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전봉준은 이에 응하여 전주로 갔다.⁸⁹⁾ 그리하여 전봉준은 7월 6일 회담에서 김학진과 타협하였고, 이를 통해 官과 농민군이 협력하여 治安질서를 바로잡고 道内の 안정을 추구하는 타협적인 집강소체제를 성립·추진해 가고자 했다.⁹⁰⁾ 그러나 김개남은 ‘전주로 가던 도중에 돌아갔다’는 데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官과의 타협을 원하지 않았다.

이처럼 양자는 전주성 해산이후로 투쟁방법상에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이 농민전쟁의 전개에 굴절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실제로 김개남은 집강소체제가 성립되자 이를 전면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러한 점은 집강소체제 성립 직후인 7월 하순경 김개남이 任實 산중으로 들어간 것에서 읽어볼 수 있다. 더구나 이때 그는 자신의 長水 진입을 막는 民堡軍을 공격하지 않고 휘하의 농민군을 주변 邑으로 흩어보낸 다음 소수의 정예만을 이끌고 순순히 任實로 방향을 바꾸었는데,⁹¹⁾ 이것 역시 그와 같은 국면을 헤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개남은 전봉준의 집강소체제에 소극적이거나 협조하려 했던 것이다.⁹²⁾ 이렇게 된

84) 정창렬; 우윤, 앞의 글 참조.

85) 金在洪, 『嶺上日記』 6월 25일조, 15면.

86) 『영상일기』 6월 8일조.

87) 『영상일기』 6월 25일조.

88) 金洋植, 「1, 2次 全州和約과 執綱所 운영」, 『역사연구』 2, 거름, 1993. 139면.

89) 黃玪, 『梧下記聞』 2필 7월조, 61면.

90)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김양식, 앞의 논문, 143-156면 참조.

91) 『오하기문』 2필 7월조, 73면.

92) 이에 대해서는 ‘김개남이 집강소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지도 협조하지도 않았다’는 해석(김양식, 앞의 논문, 158면)과 ‘김개남도 전봉준의 뜻에 따라 관측과의 타협을 인정’했다는 해석(박찬승, 앞의 논문, 56면)이 있다. 그런데 강경한 활동을 지속해왔던 김개남이 자신을 막는 민보군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고 산중에 첩거한 것은, 後者의 견해처럼, 집강소체제를 소극적인 차원에서나마 지원했을을 뜻한다고 본다.

데에는 전봉준이 7월 보름경 남원에 내려와 회담의 결과를 알리면서⁹³⁾ 민족적 위기를 내세워 김개남을 적극 설득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전주성 해산 이후에 보인 양자의 차이는 사회개혁이라는 농민전쟁의 궁극적인 大義를 이루려는 과정에서 나타난 방법상의 차이일 뿐, 兩者간의 심각한 갈등이나 경합, 지향의 차이는 아니다. 김학진의 제의에 전봉준은 동조하고 김개남은 거부했던 점, 그러나 결국 집강소체제가 성립되자 김개남도 이에 협조했던 것은 두 지도자간의 그러한 차이(路線)와 일치(志向)를 상징해준다.

이 시기의 이러한 행적을 정치적 지향과 관련해서 보면, 전봉준은 김학진으로 대표되는 개화파와의 연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며 ‘官民相和’를 통한 폐정개혁의 실현을 모색했던데 반해, 김개남은 타협거부의 강경책을 구사하였을 뿐, 정치세력과의 연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양자가 비록 방법상의 차이를 보일지라도, 이는 농민군이 ‘기대’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주도적으로 개혁의 조건을 형성해가려 했다는 점에서, 3월 봉기보다 한 단계 고양된 정치수준을 보인 변화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사실 체제구상 등 구체적인 정치적 지향은 여전히 불확실한 단계에 있었다.

이들의 정치적 지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재봉기 결정과정에서 이다. 7월 하순부터 임실에 머물렀던 김개남은, 8월 19일 蛟龍山城 등의 병기고를 털어 군기를 장악하고 각 面 富豪의 錢穀을 거두어 들이게 한 후, 25일 ‘80리까지 이어지는 전투 복을 입은’ 농민군의 영접을 받으며 다시 남원으로 들어왔다. 그는 다음날 東軒을 都會所로 삼는가 하면 휘하 농민군을 五軍營체제로 편성하는 등⁹⁴⁾ 체제를 정비하고 무장력을 강화해갔다. 이때 그의 휘하에는 전라좌도 일대에서 7만여명의 농민군이 모여들었다.⁹⁵⁾ 김개남이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자 전봉준은 남원으로 내려와, 아직은 봉기하지 말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자고 요구하였다. 전봉준은 집강소체제를 지속해갈 것을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김개남은 “대중은 한 번 흩어지면 다시 모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봉준의 말을 듣지 않았고, “사방으로 흩어져 온전히 살아남기를 도모하는 것이 낫겠다”는 손화중의 뜻도 거부하였다.⁹⁶⁾ 즉 김개남은 전봉준·손화중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재봉기 입장을 취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로써 김개남이 재봉기를 확정지은 것은 아니었다. 세력을 모으고 무장력을 강화하면서도 ‘남원성을 보수하고 교룡산성을 증축하는 등 장기간 주둔할’⁹⁷⁾ 준비도 함께 해갔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을 알 수 있다. 그의 남원 재입성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직후인 7, 8월간에 三南 각 지역에서 일고 있던 斥倭 봉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써, 재봉기할 결정적인 계기를 기다리는 준비인 동시에 전봉준

93) 『오하기문』 2필 7월조, 61면.

94) 『영상일기』 8월 26일조; 『오하기문』 2필 8월조, 91-92면;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권, 71면; 崔炳鉉, 『南原郡宗理院』, 『(南原郡)宗理院史附東學史』.

95) 『오하기문』 2필 8월조, 92면.

96) 『오하기문』 2필 8월조, 92-93면.

97) 『오하기문』 3필 9월조, 11면.

에게 재봉기를 촉구하는 행동이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김개남의 남원 재입성과 무장화를 만류하던 전봉준은 金溝로 돌아가 늦어도 9월 8일경에 재봉기를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9일부터는 전봉준과 그 휘하 각 지역 농민군은 軍器와 軍需米·錢의 확보에 주력하였다. 뒤에 보듯이 같은 시기 김개남의 관할 지역에서도 똑같은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면 재봉기에 異見을 보이던 두 지도자가 9월 8일경부터 재봉기 채비를 해간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일까? 즉 8월 25일부터 9월 8일경 사이, 농민전쟁의 전개에 심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우선 주목할 것은 8월말에 이루어진 양자의 만남, ‘南原相會’이다. 김개남이 재입성하자 전봉준은 남원에 내려왔고, 이때 두 지도자는 ‘左右를 물리치고 晝夜 8일간을 秘密相議하며 或爭或議’하는 격론을 벌였다.⁹⁸⁾ 이 과정에서 전봉준은 앞서 본대로 처음에는 재봉기를 만류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불과 며칠 뒤에 전봉준이 재봉기 준비를 서두른 것을 보면, 양자가 의견대립만 보인채 ‘相議’를 마쳤던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비밀상의에서 이들은 청·일전쟁의 동향, 농민군의 세력보존, 이와 관련한 정치세력과의 연대 가능성 등을 논의했을 것이고, 마침내는 재봉기의 시점과 북상으로 등에 대한 어떤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⁹⁹⁾ ‘南原相會’의 기록자가 激論에 뒤이어 ‘전봉준이 먼저 전주로 갔고 김개남은 그후에 行軍하여 전주에 갔다’ 한 것도 그러한 상황을 포괄하여 쓴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이 사이의 상황에서 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大院君의 密旨’이다. 그간의 연구에서 ‘대원군의 밀지’는 전봉준과의 관계에서만 검토되었다.¹⁰⁰⁾ 그러나 대원군이 농민군의 재봉기를 촉구하는 밀지를 보내려 했다면, 당시 가장 강성한 세력을 이루고 있던 김개남을 주목하지 않을 리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원군의 밀지’는 김개남의 움직임과도 관련지어 보아야 한다. 먼저 ‘대원군의 밀지’가 작성되고 내려진 시점을 보자. 대원군이 내린 밀지의 내용은 ‘三南 각처의 양반, 보부상 뿐 아니라 농민군까지 다같이 倡義하여, 命을 사사로이 하는 奸臣과 종묘사직을 위협하는 日本軍을 치라’는 것이었다.¹⁰¹⁾ 이 밀지를 가지고 湖南에 내려온 인물은 前承旨 李

98) 『南原郡東學史』, 『(南原郡)宗理院史附東學史』, 16면.

99) 이와 관련해서 다음의 기록은 주목된다. “전봉준과 김개남 등이 大軍을 거느리고 전주성을 떠나 삼례역에 이르러 北伐의 의견이 서로 달라 김개남은 말하되, 대군의 행진을 북으로 공주길로부터 가느니 보다 동북으로 청주길로부터 가는 것이 便宜타 하여 言論이 많았다. 전봉준의 말하되 이제 官兵이 이미 금강을 건너 공주감영에 들어있나니, 우리 만일 공주길을 버리고 청주길로 갈 것 같으면 적은 반드시 남으로부터 우리의 뒤를 따라 치밀어 올라올 것이며 청주의 지경에 이르러는 적은 우리를 중간에 두고 좌우협공의 세를 취할 것이오, 또는 적이 우리 본진인 호남을 짓밟아서 버리기 되기 쉬우니 어느 편으로 보나 적이 오는 앞을 막아 들어가는 것이 좋을가 하노라 하였다. 이와같이 北進의 의견이 서로 달라 필경은 공주 청주 양로로 나뉘어서 들어가자는 말이 성립되어, 김개남군은 청주길로 가게 되었고 전봉준군은 공주길로 가게 되었다”(오지영, 『東學史』(초고본), 『동학농민전쟁사료대계』1, 496면). 잘 알듯이, 양자는 8월말 남원에서 만난 후, 북상 과정에서는 직접 만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양자가 북상로를 논한 것은, ‘南原相會’와 관련해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

100) 전봉준의 9월 재봉기와 대원군의 관계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김태웅, 『전봉준과 대원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농민전쟁 100년의 인식과 쟁점』(거름, 1994) 및 박찬승, 앞의 논문 참조.

101) 『뮌텔문서』 1894-305. 이는 대원군에게 있어 일차적으로 제거할 세력은 농민군이 아니라, 일본군

建永으로, 그가 호남창의소모사로 임명된 것은 8월 14일이었다.¹⁰²⁾ 이로 보면 늦어도 8월 14일에는 밀지가 만들어졌고 호남에 내릴 준비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밀지가 三南 일대에 내려진 것은, 8월 25일 대원군의 효유문이 내려졌고¹⁰³⁾ 8월 27일에는 조정이 밀지 사건으로 큰 논란을 겪고 있었음¹⁰⁴⁾을 고려할 때, '8월 25일 전후'였다고 생각된다.

대원군의 효유문은 9월 2일 전주에,¹⁰⁵⁾ 8일에는 鄭碩謨를 통해 남원에 왔고,¹⁰⁶⁾ 이견영이 가지고 온 밀지 역시 전주에 있는 전봉준에게 전달된데¹⁰⁷⁾ 이어, 효유문이 도착하기 하루 전인 7일 김개남에게 전달되었다.¹⁰⁸⁾ 이견영은 농민군만이 아니라 호남의 儒林에게도 밀지를 전하며, '창의하여 東匪(농민군)와 함께 일본군을 치라'고 촉구하는 한편,¹⁰⁹⁾ 김개남의 陣中에 들어와서는 "무기를 버리지 말고 힘을 합쳐 倭를 토벌하자", "이것이 國太公의 眞意이다. 소위 효유문이라는 것은 外面的으로 궁해서 한 것이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김개남은 이견영을 '예의를 갖추어 매우 공손하게 대접'하였다.¹¹⁰⁾ 더우기 김개남은 대원군의 효유문을 가지고 온 정석모에 대해 "너는 (어린 나이로) 어찌 망령되이 功名에 뜻을 두고 開化黨에 붙어 國태공을 피어 우롱하여 이 효유문을 얻어 가지고 왔느냐, 이 어찌 國태공의 本意라 하겠는가" 하여 개화파에 적대적인 견해를 보였고¹¹¹⁾ 효유문도 대원군의 본 뜻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김개남이 '창의하여 일본군을 치라'는 밀지를 믿었으며, 대원군과의 결합을 기대하였음을 보여준다. 또 김개남이 처형될 때 "우리들이 한 일은 모두 대원군의 밀지로 말미암은 것이다"고 말한 점,¹¹²⁾ 감사 李道宰가 '(김개남의 말이) 마침내 亂을 불러올까 두려워 묶어서 서울로 보내지 못하고 즉시 참수했다'¹¹³⁾는 처형 때의 정황 등도 대원군의 밀지와 김개남의 재봉기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 볼 때 김개남이 재봉기를 확정하는데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대원군의 밀지 전달이었다. 즉 김개남의 경우 대원군과의 정치적 결합이 구체화되면서 재봉기를 확정지었던 것이다.

전봉준도 9월 6일경 전주대도소의 都執綱 宋喜玉을 통해, 또 이견영을 만나 대원군의 밀지 내용을 전달받았고,¹¹⁴⁾ 그 직후 재봉기를 서두르기로 결정하였다.¹¹⁵⁾ 전

과 그와 결탁한 개화파였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102) 위와 같음.

103) 『뒤넬주교일기』, 1894년 9월 24일조(양).

104) 『甲午實記』, 8월 27일조, 『동학란기록』(상), 32면.

105) 『수록』, 70면.

106) 鄭碩謨, 『甲午略歷』, 『동학란기록』(상), 67면.

107) 전봉준이 밀지를 전달받았음은 이견영이 9월 초에 전주에 들어왔고(『수록』, 70면), 전봉준이 이견영을 만나 倡義할 것을 제안받은 사실(『전봉준공초』(再招問目); 『東京朝日新聞』, 1895년 3월 6일자; 강창일, 『전봉준 회견기 및 취조기록』, 『사회와 사상』 창간호, 1988, 262면)에서 확인된다.

108) 『갑오약력』, 68면.

109) 楊錫中, 『春塘遺稿』 卷五, 『奉(密)旨感激辭』.

110) 이상 『오하기문』 3필 9월조, 11면 및 『갑오약력』, 68면 참조.

111) 『갑오약력』, 67-68면. 김개남의 개화당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는, 10월에 남원부사 李龍憲을 처형하기에 앞서 그에 대해 "너는 倭가 임명한 관원으로..."(『오하기문』 3필 10월조, 21면)라고 지목한 데서도 간접적이거나 읽어볼 수 있다.

112) 『오하기문』 3필, 66-67면; 『동경조일신문』 1895년 3월 5일조; 강창일, 앞의 글, 260면.

113) 『오하기문』 3필, 66-67면.

봉준 역시 9월 재봉기 단계에서는 대원군과의 정치적 결합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농민군과 대원군의 연대는 전봉준·김개남의 이같은 움직임 속에서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국변화 속에서도 그 현실성을 찾을 수 있다.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 親日 개화파와 대원군이 집권세력으로 부상하는 정치상황의 변화가 있었다. 일본군의 침범으로 농민군의 抗日의지가 고양된 가운데, 농민군이 현실적으로 협력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은 친일적 개화파가 아니라 대원군이었다. 농민군은 1차 봉기때도 대원군의 집권을 기대했거니와, 이제 대원군이 정치 일선에 재등장한 상황이었으므로 그와의 연대 가능성은 커졌으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았다. 더욱이 전봉준은 일의 성사를 위해 모든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은 인물이다. 집강소기에는 개화파와의 연대를 도모했고, 공주전투에 앞서서는 抗日을 위해 정부군에게도 연대를 제기했던 것¹¹⁶⁾이 구체적 사례이다. 그러한 그가 항일을 위한 재봉기에 대원군과의 연대를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또 대원군은 대원군대로 이때를 계기로 淸軍과 농민군을 동원하여, 일본군을 격퇴하고 개화파를 제거하여 재집권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¹¹⁷⁾ 이처럼 일본군의 침략이 노골화되는 시점에서 농민군과 대원군은, 일본군을 제1차의 공동의 賊으로 삼는 현실적인 이해에 일치하였고, 그런 가운데 전봉준·김개남은 대원군과의 연대를 기대했던 것이다.

요컨대 농민군에게 대원군이, 3월 봉기때는 추상적 형태 즉 단호한 개혁정치의 인상에 힘입어 폐정척결의 적임자 정도로 여겨졌다면, 조선을 둘러싼 청일관계의 변화, 일본의 내정간섭으로 인한 국정의 변화, 농민군의 정치의식 고양 속에서, 이제 구체적인 대안으로 등장했던 셈이다.

그러면 대원군과의 결합 기대가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는 전봉준의 정치적 지향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로 생각되는 다음의 기록, 즉 “일본병을 물려나게 하고 惡奸의 관리를 축출해서 임금 곁을 깨끗이 한 후에는 몇 사람 柱石의 선비를 내세워서 정치를 하게 하고 우리들은 곧장 농촌에 들어가 常職인 농업에 종사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國事를 들어 한 사람의 세력가에게 맡기는 것은 크게 폐해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몇 사람의 명사에게 協合해서 會議法에 의해서 정치를 담당하게 할 생각이었다”¹¹⁸⁾는 것과 관련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인용문에서 보듯이 전봉준은 ‘君主’를 전혀 부정하지 않았고,¹¹⁹⁾ 군주 이외의 ‘또다른 (한 사람의) 절대권력자의 추대’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전봉준에게 대원군은 절대권력자로서의 추대대상이 아니라, ‘몇 사람의 名士가 協合해서 政治하는 會議法’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한 軸이 아니었을까 한다. 즉 전봉준은 ‘부패한 민씨세도정권을 타파하고 일본군을 축출한다’는 大義를 실현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데 필요한, 유력한 동반자로 대원군을 주목한 것이다.

114) 『주한일본공사관기록』 8권, 55면 및 주 25) 참조.

115) 박찬승, 앞의 논문, 58, 104면.

116) 『宣諭榜文並東徒上書所志願書』, 『동학란기록』(하), 379-380면.

117) 그 구체적인 계획은 『주한일본공사관기록』 7권, 15-19면 참조.

118) 『동경조일신문』 3월 6일자; 강창일, 앞의 글, 263면.

119) 이러한 점은 “우리 왕을 폐해서 또한 누구를 추대할 것인가”는 기록에서도 확인된다(『동경조일신문』 1895년 3월 5일자; 강창일, 앞의 글, 261면).

전봉준과 달리 김개남의 경우 자신의 정치적 구상을 피력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도 대원군과의 결합이, 조선내정의 復古的 개혁 도모를 의미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은 재봉기이후 김개남의 활동이 복고적 개혁의 차원에 머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강경해져간 데서도 반증된다. ‘남원부사 李龍憲과 그 記室, 中房을 자신이 직접 목베어 죽이는 한편, 자신이 내린 ‘令紙’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천부사 李秀弘과 고부군수 梁性煥을 매질하여 감옥에 가둔 것¹²⁰⁾이 그러한 예인데, 이 사건은 당시 ‘全州府를 뒤흔들고 人民들을 전율케’ 하기에 충분했으며, 휘하 농민군 가운데도 ‘김개남의 역절이 이미 드러남을 보고 도망’¹²¹⁾하는 자들이 생길 만큼 충격적이었다. 또 北上路에 위치한 郡縣을 초토화하면서 수령까지 처형하고 행정의 근간이 되는 모든 장부를 불태웠던 것도 같은 예이다.¹²²⁾ 이 사실들은 재봉기 이후 그의 활동이 복고적 개혁이 아니라, 기존 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 치달아 갔음을 상징한다.

이로써 보면 9월 재봉기 과정에서 전봉준과 김개남은 ‘대원군과의 합작 정권’을 구상¹²³⁾한 것 같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봉준은 ‘君主는 그대로 두되 國事는 대원군과, 또한 -농민군이 인정하는- 몇 사람이 합의하여 담당하는, 君民共(同)治의 立憲君主制’를 구상했으며,¹²⁴⁾ 김개남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농민군지도자들은 입헌군주제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 농민전쟁이 있기 10여년 전에 이미 개화파가 『漢城旬報』에서 입헌군주제의 우월성과 이익을 소개하며, 조선에는 君民同治의 입헌군주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¹²⁵⁾ 또한 갑신정변, 갑오개혁의 주도자인 朴泳孝, 兪吉瀾 등은 입헌군주제를 국권확립과 민권보장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政體로 여겨 그러한 견해를 꾸준히 피력했으며, 갑오개혁 때는 실제 내각중심의 입헌군주제적 정치를 실시하기도 했다.¹²⁶⁾ 이처럼 단순히 개화파의 이상에서가 아니라 신문을 통해, 또 갑오개혁과정에서 公論化되고 있었다면, 농민군지도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 전봉준 등은 9월 재봉기에서 입헌군주제를 구상했고, 그 合議法을 실제 수행할 핵심으로 농민군 세력과 대원군을 여겼던 것이다.

120) 『오하기문』 3필 10월조, 21-22면.

121) 『갑오약력』, 74면; 『오하기문』 3필 10월조, 21면.

122) 북상로에 있던 錦山, 鎭峯 등의 파괴상에 대해서는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권, 29-31면; 『錦營來札』, 『동학란기록』(상), 82-84면; 『巡撫先鋒陣騰錄』, 앞의 책, 499면; 『錦山被禍文像別具成冊』, 『동학란기록』(하), 702-705면 참조.

123) 박찬승, 앞의 논문, 84면.

124) 당시 정치지도자들의 입헌군주제에 대한 인식은 兪吉瀾을 통해 확인된다. 그는 입헌군주제에 대해 ‘君民同治니 君主가 在上하야 萬民을 統轄하는 法은 如前하나 감히 天下를 私有하지 못하고 반드시 公明正大한 憲法을 確定하야 國民으로 하여금 一同國政에 參與하게 하니’(『兪吉瀾全書』3, 歷史編, 1971, 일조각, 19면), “此政體는 其國中에 法律及政事의 一切大權을 君主一人의 獨斷함이 無하고 議政諸大臣이 必先約定하야 君主의 命令으로 施行하는 者를 指함이니 大概 議政諸大臣은 人民이 薦擧하야 政府의 議員이 되는고로 大臣은 其薦主되는 人民을 代하야 其事務를 行함이며...”라고 이해하고 있었다(『유길준전서』1, 164면).

125) 姜在彦, 『근대 한국사상사연구』, 1983, 한울, 91-93면.

126) 柳永烈, 『開化期の 民主主義政治運動』, 『韓國史上的 政治形態』, 1993, 일조각, 250-259면.

3. 9월 재봉기의 전략

지금까지 본대로 전봉준과 김개남은 일치된 정치적 지향을 지녔다. 그러면 이들은 9월 재봉기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폈고, 전략면에서는 어떠했을까?

먼저 3월 봉기의 상황을 보자. 농민군은 3월 25일 白山大會에서 연합하고 하나의 체제로 정비하였지만, 그렇다고 항상 농민군 전체가 움직인 것은 아니었다. 농민군 지도자들은 독자적인 세력기반을 토대로 한 수평적 관계에 있었다. 上命下服의 절대적인 지휘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백산에서 이루어진 편제라는 것도 각 지도자와 그 세력간의 수평적 연합이다. 이러한 세력구도상의 특성을 바탕으로 농민군은, 전봉준이 손화중과 함께 한 부대를, 김개남이 한 부대를 이끄는 가운데, 때로는 하나로 합하고 때로는 둘로 분산하면서, 전력을 극대화하며 진격로의 군현을 점령하고 관군을 격파하는 전략을 펼쳤다.¹²⁷⁾ 4월 4일 전봉준·손화중이 부안을 점령했을 때, 官에서 이들을 “錦山, 泰仁에서 起鬪한 무리와 하나이면서 둘이다. (이들은) 각각 하나의 무리(團)를 이루어 三隊로 分作하여 서로 聲氣를 통하며 東閃西忽하니...”¹²⁸⁾라고 본 것은, 3월 봉기시 농민군의 이합집산과 그 실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3월 봉기 때의 양상, 즉 전봉준 등에 대하여 김개남이 개별 단위를 이루어 활동하는 양상은 5월 全州城解散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그리하여 9월 재봉기 전에도 농민군은 “전봉준은 수천의 무리를 끼고 금구원평에 거하면서 우도를 호령하였고, 김개남은 수만의 무리를 끼고 남원성에 거하면서 좌도를 통할하였다”¹²⁹⁾는 데서 보듯이, 3월 봉기 때와 같은 세력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10월 북상시 전봉준은 공주로 진격했으나, 김개남이 청주로 나아갔다. 이것이 ‘양자의 相議에 의한 것’이라는 기록이 있음에도,¹³⁰⁾ 북상로가 다른 사실 때문에 양자는 분열된 관계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오지영의 기록대로, 양자의 북상로가 다른 것은 상의에 의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즉 농민군은 9월 재봉기 때도 3월 봉기 때와 유사한 세력구도 속에서 유사한 전략을 펼쳤고, 양자는 전략적인 면에서도 일치되었다고 본다. 이제 9월 재봉기 과정을 보자.

9월 8일경 재봉기를 결정지은 전봉준은 휘하 농민군을 무장시켜갔다. 그 사례를 보

127) 3월 봉기의 전략에 대해서는 李眞榮, 「金開南과 동학농민전쟁」, 『한국근현대사연구』 2집, 한울, 1995 참조. 농민군이 이합집산하며 이동·전투한 것은 전체가 움직이는 것보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더 효과적이었다. 첫째 농민군은 경유하는 지역마다 지역민들의 합류를 유도, 봉기지역을 넓히며 세력을 확대해갔다. 둘째 반대로 관군은 전투력의 분산을 감수하며 병대를 나누어야 했고, 이 결과 일부만이 농민군과 부딪쳐야 했다(장성전투). 세째 “합했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합치고 있어, 이 적들을 공격하기가 매우 곤란하다”(『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29면), “동학도들은 동북쪽 협로로 갔는데...장성으로 가는 길과 나주로 가는 길이 있으므로 아직은 어느 곳으로 갔는지 잘 모르겠다”(같은 책, 30면)는 데서 보듯이, 농민군의 이합집산으로 관군은 추적할 대상을 제대로 찾지 못하였고 농민군의 진격로를 예측하지 못하였다.

128) 『隨錄』, 7면. 금산의 농민군은 서장옥이 이끈 세력을 말하는데, 이들은 금산의 민보군에 격파됨으로써(『수록』, 15면), 농민군 주력으로 합류하지 못했다.

129) 『갑오약력』, 65면; 『오하기문』 2필, 93면.

130) 주 17) 참조.

면, 9일 金溝에서 온 농민군이 高山의 군기·물품을 빼앗아 갔고 10일과 13일 參禮에 있던 농민군이 礪山の 화약·총탄·창검을 빼앗아 갔으며, 14일 전봉준이 직접 800명을 거느리고 포를 쏘고 북을 울리면서 삼례에서 와서 전주의 화포, 총·탄환·각종물품을 남김없이 거두어 삼례로 돌아갔고, 16일 농민군 100여명이 威鳳山城의 무기와 물품을 빼앗았다. 동시에 전봉준은 10일 泰仁, 14일 金堤, 17일 高山, 18일 群山, 全州에 ‘지금 이런 舉事는 몹시 커서 費用이 많이 들므로 公穀과 公錢을 이용해야 하겠으니 軍需米와 錢을 都會所로 보내라’는 通文을 보내어 군수미와 군수전을 확보해갔다.¹³¹⁾

한편 9월 8일 김개남 휘하의 농민군은 五方을 나타내는 깃발 7-8,000개를 새로 만들어 남원부가 진동하도록 포를 쏘아대며 旗祭를 올렸는데, 이는 出戰 즉 재봉기와 관련한 의식이 아닌가 한다.¹³²⁾ 이어 그는 15일 이전부터 ‘南原大都所’ 또는 ‘南原大都所 金開南’의 이름으로, 남원을 비롯하여 綾州·光州·谷城 등지에 통문을 보내어¹³³⁾ 軍需米·錢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이때 그는 감사 김학진 앞으로도 군수물자를 보내라는 통문을 보냈다.¹³⁴⁾ 또한 그 휘하의 농민군은 9월 17일 직전 남원 관아의 군기를 빼앗는 한편,¹³⁵⁾ ‘민가에서 물자를 거두어 장태·화약·수레 등 전투에 꼭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갔다.¹³⁶⁾ 이러한 사실은 전봉준과 같이 김개남도 8일 이후 본격적으로 재봉기할 준비를 갖추어 갔음을 알려준다.

재봉기를 준비하면서 전봉준은 전주, 진안, 홍덕, 무장, 고창 등 각 지방 농민군과 손화중에게 “일본병을 쳐 물리치고 그 거류민을 국외로 구축할 마음으로 다시 起兵”하자는 취지의 격문을 발송하였다.¹³⁷⁾ 이 격문은 9월 18일경 충청도에도 도착하였다.¹³⁸⁾ 전봉준의 재봉기 결의는 각지 농민군이 기다리고 있던 일로써, 격문이 전달되자 농민군은 9월 17일경 전라도에서만 29개 郡縣鎭의 무기고를 열고 무장하였다.¹³⁹⁾ 각지에서 무장한 농민군은 전봉준과 김개남 휘하로 모여들었다. 그리하여 “남원부에 모인 비도 5, 6만 명이 각기 병기를 가지고 날뛰고 있으며 전주·금구에 모인 무리들이 이미 作亂을 하고 있다”, “삼례·전주, 남원 병대가 강하다”¹⁴⁰⁾는 데서 보듯이, 전라도의 농민군은 기본적으로 3월 봉기 때와 비슷하게 전봉준·김개남의 세력으로 형성되었다.¹⁴¹⁾

이로써 봉기의 분위기는 무르익었으나 전봉준은 곧바로 북상하지 않았다. 본격적인 재봉기, 즉 북상은 10월 12일경에야 이루어졌다. 북상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전봉준

131) 전봉준과 휘하 농민군의 재봉기 준비는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129-131면 참조.

132) 『갑오약력』, 67면. 五方은 김개남 휘하의 五軍營을 뜻하며, 이때 깃발을 오군영에 세운 것은 出戰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133) 9월 15일 남원, 16일 능주, 17일 광주, 18일 전주의 報告文(『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131면) 참조.

134) 『오하기문』 3필 10월조, 22면.

135) 『日省錄』 9월 17일조.

136) 『오하기문』 3필 9월조, 12면.

137) 『전봉준판결선고서』, 격문의 취지는 판결문의 내용을 원용한 것이다.

138) 『일성록』 9월 18일조; 金允植, 『續陰晴史』 고종31년 9월 18일조.

139) 『일성록』 9월 18일조.

140) 『일성록』 9월 22일조;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160면.

141) 이때 서장옥도 농민군을 규합, 9월 23일부터는 청주성을 압박하며 전봉준, 김개남의 재봉기에 호응하였다(『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173면; 『오하기문』 3필, 7면).

은 “몸이 아프고 또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움직이기가 어려웠고 겹하여 신곡이 나오지 않아 자연 10월에 이르렀다”¹⁴²⁾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함께 충청도 일대 농민군의 합류를 기다린 것도 큰 요인이었다. 전봉준으로서의 북상의 진격로에 있는 최시형 휘하 동학교도의 협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동학교인에 대한 관군과 민보군의 가혹한 침학이 계속되고 자신의 휘하에서도 봉기 요청이 이어지자, 최시형은 마침내 봉기를 허락하였다.¹⁴³⁾ 그리고 報恩에서 휘하 각지의 동학교인들의 봉기를 기다렸다가, 10월 11일경에는 이 사실을 전봉준에게 알렸다.¹⁴⁴⁾

이에 전봉준은 4,000여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삼례를 출발하여 10월 12일 논산에 도착하였다. 최시형으로부터 統領旗를 넘겨받은 손병희가 이끄는 농민군도 보은을 출발하여 15일경에는 논산에 합류하였다.¹⁴⁵⁾ 두 세력이 합류하였음은, 16일 논산에서 올린 글에서 전봉준이 자신을 ‘兩湖倡義領袖’로 칭하였고,¹⁴⁶⁾ 또 “전봉준은…공주 30리의 거리에 이르러 그곳에 진을 치고 報恩兵과 서로 호응하고 있으므로 기세가 갑자기 확대되었다”¹⁴⁷⁾고 한데서 확인된다. 거의 같은 때인 14일 김개남은 8,000명을 이끌고 남원을 떠나 16일 전주에 도착하였다.¹⁴⁸⁾ 한편 뒤늦게 삼례에 왔던 최경선은 전봉준과 상의한 후에 광주, 나주로 가서 손화중과 함께 海路를 통한 협공에 대비하였다.¹⁴⁹⁾ 그리하여 10월 16일까지는 전라·충청일대의 농민군이 총동원되어, 전봉준·손병희는 북상하고, 김개남은 북상군의 거점지인 전주에 남아 他日에 대비하며,¹⁵⁰⁾ 손화중, 최경선은 후방을 수비하는 총력전의 형태를 갖추었다. 10월중순에는 실질적으로 무력봉기할 수 있는 체제가 완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농민군의 재봉기 과정과 체제는 일치하였으며, 남·북접의 마찰이나 전봉준과 김개남의 갈등은 對日抗戰의 연합전선 형성에 장애가 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농민군의 일치된 전략은 북상과 공격과정에서도 입증된다.

전봉준·손병희는 10월 21일경 공주로 향하여 논산을 출발하여 이인(23일), 효포(24일), 능치(25일)에서 전초전을 벌이고 경천으로 물러났다.¹⁵¹⁾ 이때 김개남은 이의 聲援이 되기 위해서 북상하여 24일 금산을 점령하였는데,¹⁵²⁾ 금산을 친 것은 ‘청주로

142) 『전봉준공초』(삼차문목).

143) 『天道敎會史 草稿』, 462면.

144) “10월 12일 논산포에 진을 치고 있는데…全將(전봉준)을 찾아보고 병단을 물으니 답하기를 어제 (10월 11일) 法軒이 보낸 湖西 都會의 글을 받고, 장차 북으로 향하려 한다”(『宣諭榜文並東徒上書所志騰錄』의 李裕尙上書, 『동학란기록』(하), 381-382면).

145) 『천도교창건사』 65-66면; 『동학사』 141면. 손병희 부대의 논산합류를 10월 15일경으로 본 것은 “거과 북접 법헌은 11월 11일(음 10월 13일) 청산으로 도망가 그곳에서 12일과 13일에 2만명을 모아가지고 그로부터 횡간, 영동을 경유하여…전주(논산의 잘못)로 가서 그곳의 거과 전녹두와 합세할 목적이었다”(『주한일본공사관기록』1권, 219면)는 기록에서 추정하였다.

146) 『선유방문병동도상서소지등록』 383-384면.

147)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173면.

148) 『오하기문』 3필, 17면; 『영상일기』 10월 14일조. 16일 전주 도착 사실은 정창렬, 앞의 논문, 259면.

149) 『전봉준공초』(초초문목).

150) 김상기, 『동학과 동학란』, 145면.

151) 일시와 전투과정은 신용하, 앞의 책, 『갑오농민전쟁의 제2차 농민전쟁』 참조.

152) 『오하기문』 3필, 24면; 『금영래찰』, 82면. 금산 점령일시는 『各陣將卒成冊(錦山被禍錄)』, 『동학란기록』(하), 703-705면.

가는 길을 열고자 한 것'이었다.¹⁵³⁾ 양쪽 농민군의 공격이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은 '전봉준 수하의 소위 윤량관, 우마감관 명색 등을 체포했는데, 비피 사이에 오고간 文蹟을 살펴보니 효포, 청주, 금산 3處에서 싸울 때의 設計가 극히 흉포하다'¹⁵⁴⁾한데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손화중은 전봉준이 논산을 출발하던 10월 21일 후방수비를 확고히 할 필요에서 "농민군으로서는 등에 찔린 가시같은 눈에 박힌 바늘과 같은" 나주를 공격하였다.¹⁵⁵⁾ 그리고 전봉준·손병희가 11월 8-10일 공주를 공격할 때, 김개남은 5,000여명을 이끌고 다시 북상하여 10일 진잠을 점령하고, 11일 회덕·신탄진을 경유하여, 13일 청주를 공격하였다.¹⁵⁶⁾ 이때의 북상 또한 전봉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공주를 공격하던 전봉준의 후원이 목적이었다.¹⁵⁷⁾

공주와 청주 공격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지만, 이상의 과정은 전봉준이 주력부대를 이끌고 공주쪽의 공격(이인·효포 등→공주)에 나섰던 바로 그 시점마다, 김개남은 이의 후원으로 청주노선을 공격(금산→청주)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비록 양자의 공격방향은 달랐으나 이것은 농민군의 전략적 필요에서 온 것으로 생각된다.¹⁵⁸⁾

그러면 전봉준이 공주를 공격할 때, 김개남이 청주를 공격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고려할 점은, 청주는 공주와 함께 서울로 가는 주요 통로라는 청주의 지리적 중요성이다. 이 점은 일본군이 남하하면서 서쪽 공주노선, 동쪽 대구병참노선, 청주노선의 삼로를 취할 때, 그 대대본부가 청주노선을 따라 내려온데서도¹⁵⁹⁾ 알 수 있다. 둘째 당시 전라·충청·양도에서 농민군에게 함락되지 않은 곳은 충청감영인 공주와 兵營인 청주 뿐이었다는 점이다. 재봉기 직후의 이러한 정황은 "목하 열읍 들은 모두 힘이 미약하여 병기를 빼앗겨도 속수무책으로 보내지 않는 곳이 없으며, 공주·청주 두 감영과 홍주만이 아직도 보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며칠 사이에 홍주도 그 안위가 어떻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는 충청감사의 보고¹⁶⁰⁾가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서울로 가려는 농민군으로서는 공주와 함께 병영 청주를 점령할 필요가 있었다. 세째 농민군은 공주공격에 참여하지 못한 일단의 농민군을 합류시켜 전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가장 주목되는 세력은 9월 23일부터 청주를 위협하던 서장옥의 농민군¹⁶¹⁾과 공주로 가지 않고 옥천, 영동, 문의 등 청주와 멀지 않은 곳에 남아있던 농민군이었다.¹⁶²⁾ 끝으로 청주 공격은 농민군의 세력확대를 의미함과 동시에 관군과 일본군의 전투력이 공주로 집결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편이기

153)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권, 42면.

154) 『순무선봉진등록』, 614면.

155) 李炳壽, 『錦城正義錄』 10월 21일 조; 鄭錫珍, 『蘭坡遺稿』 卷三, 「討平日記」.

156) 이상 『순무선봉진등록』, 499-500면; 『巡撫使呈報牒』, 『동학란기록』(하), 35면; 『금영래찰』, 82면; 『주한일본공사관기록』 3권, 249-250면 참조.

157) 『雜記』, 『동학란기록』(하), 309면; 『官報』 개국 503년 11월 29일자 부록 『牛金之師』(아세아문화사판) 1권, 771면.

158) 그러므로 재봉기 북상로에 관한 두 지도자의 논의를 담은, 오지영의 기록(주 17)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159)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154-156면.

160)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159-160면.

161) 주 59) 및 『兩湖右先鋒日記』, 『동학란기록』(상), 264면.

162)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권, 27-28면.

도 하였다. 이는 “호남의 비도가…청주를 침범하려 한다 하는데,…진실로 청주를 범하는 때에는 유성과 진잠 사이에 병을 남겨두어 적을 초멸”하겠다는 관군의 보고(163), “공주로 간 제2중대로부터 형세가 극히 위험하니 속히 와서 구해달라는 급보가 있었다.…(그러나) 1개지대(만)을 가게 하였다. 그 이유는 공주를 후원하려면, …옥천 방면에 남아있는 적이 없어야만 했기 때문이다”는 일본군의 보고(164)로 알 수 있다. 서울과 가까운 공주의 위쪽을 공략당할까 깊이 우려하고 있었던 만큼(165) 토벌군으로서는 청주 일대로 농민군이 모이는 것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농민군의 공주·청주로의 분산공격은 3월 봉기에서 보여준 농민군의 전략과 유사한 것이었으며, 그 목적은 이때에도 농민군을 전력을 키우고 토벌군을 분산시켜 공격효과를 최대화하는데 있었다.

9월 재봉기는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의 전라도 농민군과 최시형, 손병희의 충청도 농민군이 일치된 전략 속에 치룬 총력전이었다. 전봉준과 김개남 역시 재봉기 준비에서부터 북상까지 전략적으로 일치되어 있었다. 두 지도자의 북상로는 달랐지만, 재봉기와 관련한 양자의 활동내용과 일시가 거의 일치하고 있었던 점 -1) 8월말의 회담 직후인 9월 8일경부터 양자가 거의 동시에 재봉기 준비를 갖춘 것 2) 9월 8일부터 한달 이상 양자 모두 북상하지 않았던 것 3) 양자의 실질적인 북상이 불과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것 4) 양자의 전면전투 역시 며칠 사이에 벌어진 것-, 또 김개남의 전주점령·금산·청주공략이, 전봉준이 북상하는 단계에 후원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농민군의 전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인 것이었다. 비록 재봉기 직전에 양자가 갈등을 보였으나, 對日抗戰의 시점에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못했던 것이다. 농민전쟁에서 두 지도자의 뗄 수 없는 관계는 농민군이 완전히 해산한 후에도 ‘전봉준이 김개남과 相會하고자 했’(166)던 데서 상징적으로 읽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4. 맺음말

이상에서 9월 재봉기를 중심으로 전봉준·김개남의 정치적 지향과 전략, 둘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9월 재봉기는, 재봉기에 대해 異見을 보이던 전봉준과 김개남이 격론 끝에 모종의 합의를 이룸으로써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런데 양자가 재봉기를 확정한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대원군과의 정치적 결합이 구체화된 점(대원군의 밀지 전달)이었다. 이처럼 양자가 대원군과의 결합을 기대했다고 해서, 이들이 대원군의 집권을 통한 復古的 개혁을 원했던 것은 아니다. 양자는 ‘君主는 두되 國事는 농민군이 인정하는 몇 사람이 합의하여 담당하는, 君民共治의 立憲君主制’의 형태를 구상했으며, 농민군 세력과 더불어 合議法을 수행할 중요한 한 축으로 대원군을 주목했던 것이다.

163) 『先鋒陣日記』, 『동학란기록』(상), 233면.

164)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권, 28면.

165) 『양호우선봉일기』, 283면.

166) 『선봉진일기』, 『동학란기록』(상), 253면.

이러한 정치적 지향의 일치 속에서, 양자는 전략적으로도 일치하였다. 9월 재봉기에서 양자의 북상로는 달랐다. 그러나 양자의 재봉기 준비 일시, 실질적인 북상일시와 공격일시가 거의 일치한 점이나 김개남의 전주점령·금산·청주공략이, 전봉준이 북상하는 각 단계의 후원이 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농민군의 전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인 차원의 것이었다.

양자는 집강소기 방법상의 차이로 갈등을 보였고, 재봉기 때에는 북상로를 달리하였다. 이로 해서 양자는 경쟁 또는 분열된 관계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각기 독자적인 세력기반을 지닌데다 상호 지휘관계가 아닌 지도자 간의 개인적인 갈등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농민전쟁의 전체과정을 생각할 때, 작은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이들이 세세한 방법이나 구체적인 활동까지 완전히 일치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문제는 '사회·정치적 개혁과 일본군 逐出'이라는 농민전쟁의 大義,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정치적 구상과 전략에서 일치하였냐는 것인데, 이 점에서 양자는 일치하고 있었다.

金德明・孫華仲・崔景善의 行蹟

－農民革命 指導者에 對하여－

표영삼 (천도교 상주선도사)

1. 머리말
2. 김덕명 대접주
 - 1) 출생과 입도
 - 2) 1892년부터 교조신원운동
 - 3) 척왜양창의 운동
 - 4) 김덕명포의 혁명활동
3. 손화중 대접주
 - 1) 출생과 입도
 - 2) 무장기포 혁명운동 주도
 - 3) 광주 장성지역 유진(留陣)
4. 최경선 접주
 - 1) 출생과 입도
 - 2) 혁명초기의 역할
5. 결론

1. 머리말

전라도 서부지역에서 1890년대에 동학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이 많으나 혁명에 앞장섰던 이는 全瑋準 장군과 金德明・金開南・孫華仲・崔景善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1890년을 전후하여 동학교문에 들어가 接主 또는 大接主의 직책을 갖게 되었고 많은 농민을 동학교도로 만들어 막강한 조직을 이루었다. 관의 탄압이 가혹해지는 1892년 11월에는 參禮 집회를, 1893년 2월에는 척왜양의 榜文을 각읍 관아 문전에 붙였으며 3월부터는 院坪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갖고 척왜양창의와 輔國安民의 기치를 들었다.

관속들이 농민수탈을 심하게 하자 1894년에는 혁명운동을 주도하기에 이르렀으며 이 운동으로 조선왕조의 붕괴를 촉진시켰고 봉건신분제를 무너뜨리는데 촉진제가 되게 했다. 발표자는 이런 운동을 주도한 인물 중 金德明・孫華仲 대접주와 崔景善 접주 세 분의 행적을 살표보기로 한다.

2. 金德明 大接主

1) 出生과 入道

이름은 峻相이오 字는 德明 또는 弼商¹⁶⁷⁾이고 號는 龍溪요 本貫은 彦陽이다. 1845년(憲宗 11年 乙巳) 10월 29일에 金溝郡 水流面 龍溪(현 金堤市 金山面 雙龍里)에서 부친 漢驥와 모친 과평 尹氏 사이에 장자로 출생했다.¹⁶⁸⁾ 7세(1851년 辛亥 9월 9일) 부터¹⁶⁹⁾ 훈장을 초빙하여 18세(1862년 壬戌 8월 10일)까지 10년간 한문을 수학했다. 이후 20년간 타지에 출입하면서 식견을 넓혔으며 1883년에는 “報國家 安民族할 경륜을 胸海에 품고”¹⁷⁰⁾ 변혁의 뜻을 품게 됐다.

당시 동학은 江原道 지역에서 忠淸道로 남진하기 시작하여 全羅道에까지 이르렀다. 1884년에는 神師 海月 崔時亨(이하 海月로 약칭함)이 益山 미륵산 獅子庵에 와서 朴致京(卿) 등에게 포교하자 도세는 전라도 서해안으로 뻗어나가게 됐다.¹⁷¹⁾ 동학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던 龍溪丈은 42세 때(1886년 10월) 여러 인사와 같이 尙州 앞재로 찾아가 해월을 만나 道를 받았다.¹⁷²⁾ 甲午歷史緒論에 “廣救天下할 道略이 있음을 듣고 海月 선생을 방문…師弟之誼를 정하시고 丙戌 10月 11日 大道를 받으셨다…親弟 寅相(號 海山)도 兄 龍溪 先生의 주의를 따라 11월에 입도” 했다 한다.

2) 1892년부터 敎祖伸冤運動

金德明包는 金溝를 중심으로 泰仁과 金堤·益山·古阜 등지에 걸쳐 있었으며 東學史에는 “泰仁 두령 崔景善, 金堤 두령 金奉年, 金溝 두령 金士曄, 金鳳得, 劉漢弼 등”이 속해 있었다 하며¹⁷³⁾ 全琿準 접주도 金德明包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

1891년(辛卯) 5월에 海月은 신참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라도 서부지역을 순회했다. 益山 南啓天和 扶安 尹相五·金錫允(永祚)의 집을 거쳐 古阜에 이르렀다가 泰仁 詩山 金洛三의 집에 당도했다. 여기서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接主와 六任帖을 差出, 宗團組織의 틀을 정립했다. 6월 초에는 태인 지금실 金箕範(開南) 집에 와서 머물자 金開南과 龍溪丈은 각기 여름 옷 다섯벌씩을 지어 바쳤다.¹⁷⁴⁾ 6월 15일에는

167) 吳知泳著 東學史 第2章 第5節에는 “金弼商 一名 德明이라 했다.

168) 金山面 巨野에 사는 金炳旭 翁 소장 甲午歷史緒論과 崔玄植著 甲午東學革命史에는 巨野 출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金德明의 동생 寅相의 손자인 金炳旭 翁은 “龍溪에서 출생하여 혁명운동 후에 龍溪丈의 아들 洪九 때에 거야로 이사 왔다”고 증언했다. 또한 院坪 鶴壽齋에 세워진 <龍溪 金德明 將軍 追慕碑文>에도 “雙龍里 龍鵲 마을에서 1845년(乙巳) 10월 29일에 출생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龍溪金公行狀에도 10월 29일로 기록했다.

169) 甲午歷史緒論에 “辛亥 9월 9일” 重陽節을 맞아 공부를 시작했다 한다.

170) 甲午歷史緒論

171) 1926年 9月발행 天道敎會月報 通卷 第189號 益山宗理院沿革.

172) 天道敎會 등 全記錄에 丙戌(1886년)條에 “是時에 忠淸 全羅 慶尙 京畿 等地의 人士가 神師”를 찾아왔다 했다.

173) 吳知泳 東學史第2章 第15節 倡義文.

174) 海月先生文集에는 “五月率德基 漢柱 張希用往沃川 金演局家 轉向湖南 南啓天家 逢金演局同住 扶安新里 尹相五小室家…晦日往扶安金錫允家 翌日過古阜 至泰仁金洛三家 差出敎任 六月初 往留琴實 金箕範家 時金溝金德明裁來夏衣五件 金箕範亦裁呈夏衣五件也”라고 했다.

金德明의 집으로 넘어와 머물다가 전주 崔燦奎의 집으로 향했다.¹⁷⁵⁾ 약 2개월간 순회한 해월은 “도인은 많으나 도를 아는 이가 드물다”고 하여 新參道人들을 면담한 소감을 피력했다.

동학세력이 확대되자 탐관오리들은 1892년부터 동학도를 탄압하고 수탈하는 빈도가 강해졌다. 金堤 · 萬頃 · 茂長 · 井邑 · 勵山 등이 더욱 심해 마을에서 쫓겨나 유리 절식하는 사례가 많았다.¹⁷⁶⁾ 일부는 院坪으로 모여들었고, 金德明包는 이들을 최대한 보살폈다. 여름이 되자 그 수가 늘어나 압력을 가해오자 동학지도부인 徐仁周 · 徐丙鶴은 해월(尙州 旺室)을 찾아가 大先生伸冤運動을 건의했다. 1871년에 영해교조 신원운동으로 쓰라린 경험을 겪었던 해월은 처음엔 미루었으나 10월에 이르러 허락했다.¹⁷⁷⁾

10월 20일경에 徐仁周 · 徐丙鶴은 도인들을 동원하여 충청감사 趙秉式에게 議送單子를 올렸다. “外邑에 수감되어 있는 도인들을 모두 풀어주고, 선생의 숙원을 씻게 해 달라”고 호소 했다.¹⁷⁸⁾ 충청감사는 10월 22일에 “朝家에서 처분할 일이니 본영에 와서 호소할 일이 아니다”는 題書로 대답했고, 24일에는 군현에 “아전들에게 侵奪을 금하도록 하라”는 甘結을 시달 했다.

충청 감사를 상대로 한 신원운동을 마친 동학지도부는 10월 27일에 삼례에다 全羅道參禮都會所를 설치하고 “도인들은 參禮로 모이라” 敬通을 띄웠다. 金德明包 등 여러 包에서 1천여명이 동원되어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신원운동을 벌였다. 이 때 右道の 全琫準과 左道の 柳泰洪이 자원하여 관찰사에게 단자를 전달했다 한다.¹⁷⁹⁾ 11일 만에 “하속들이 錢財를 약탈한다 하니 …철저히 금하여 한푼의 돈이라도 탈취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¹⁸⁰⁾는 감결을 시달함으로써 전라감사를 상대로 한 교조신원운동도 종결했다.

3) 斥倭洋倡義運動

관에서 약속을 지켜주지 않아 충청 · 전라의 신원운동은 실패하고 말았으며 탄압은 여전히 계속됐다. 1893년 2월 초에 중앙정부에 신원하기 위해 상경하도록 동원했다. 각 包에서 수천명이 모여 2월 11일부터 대표 9명을 선출, 訴狀을 받들고 광화문전에 進伏했다.¹⁸¹⁾ 3일만인 13일에 司謁이 “돌아가 業에 安하면 소원을 들어주리

175) 海月先生文集 辛卯條.

176) 奎章閣圖書 東學書 文集 通章合部 朝家回通에는 “虐民奪財 各以萬數 蕩敗離散 亦各有餘 全羅則金堤 萬頃茂長 井邑 勵山 等邑”이라 했다..

177) 吳知泳 東學史 第2章 伸冤運動에는 “이해 7월에 徐仁周 徐丙鶴 이인이 선생께 고하여 曰 방금 우리 도의 급무가 先師의 伸冤 一事에 있나이다 함대 선생 曰 아직 은인자중하라 하였더니 이해 10월에 사방에 있는 도인들이 지복에 쫓기어 모여온 者 많아야 신원할 일을 청하는 자 많은지라 선생은 이어 여러 사람들의 뜻을 쫓아 허락하고 곧 입의문을 지어 효유하니…”라고 했다.

178) 奎章閣圖書 東學書 文集 通章合部 各道東學儒生議送單子.

179) 1924年 天道教南原郡 主任宗理師 崔炳鉉의 이 기록한 南原郡東學史에 “관리압박의 위엄으로 訴狀을 告모할 사람이 없어 주저 방황 중에 右道の 全琫準과 左道の 유태홀이 자원 출두하여 관찰사에게 소장을 提呈했다”고 했다.

180) 奎章閣圖書 東學書 文集 通章合部 全羅監司 甘結.

라”는 말만 듣고 해산해야 했다.

이 때 주목할 것은 서울과 전라도에서 外勢를 배격하는 각종 掛書(榜書)와 檄文을 돌렸다는 사실이다. “癸巳 正月初에 全琫準의 文筆로 倡義文을 著作하여 全月 10일에 各郡 衙門에다 揭示할새 南原은 金榮基, 雲峰은 金聖基, 谷城은 金在弘, 求禮는 柳泰洪氏가 正刻에 粘付했다”고 한다.¹⁸²⁾ 嶺上日記에도 “창의를 외치는 방을 전라도 諸邑 衙門에 붙였다”고 했다. 그리고 별로 金德明包 등 호남포 도인 수천명은 參禮驛에 모여 전라감사에게 “박해를 제거하여 생존을 보장하라”는 시위를 벌였다.¹⁸³⁾

광화문 복소가 실패로 끝나자 뒤이어 1893년 3월 10일부터 해월의 명에 따라 報恩 帳內里와 金溝 院坪에서 斥倭洋倡義運動을 벌였다. 3월 20일경 帳內里에는 2만여명이,¹⁸⁴⁾ 金溝 院坪에는 1만여명이 모였다.¹⁸⁵⁾ 한편 해월은 동학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布制를 공식화하여 50여 包에 包名을 주고 大接主를 임명했다. 東學史에는 “金溝包에 金德明, 井邑包에 孫華仲, 扶安包에 金洛喆, 泰仁包에 金箕範, 詩山包에 金洛三, 扶風包에 金錫允, 鳳城包에 金邦瑞, 沃構包에 張景(敬)化, 完山包에 徐永道, 高山包에 朴致景(京)를 全羅北道 대접주로 임명했다” 한다.

놀란 조정은 3월 17일에 魚允中을 兩湖都御使로 임명 현지로 파견하여 설득했으나 통하지 않자 3월 25일에는 淸軍援兵까지 논의했다. 3월 25일에는 魚允中을 兩湖宣撫使로 임명하여 해산에 힘쓰도록 했고, 3월 28일에는 “해산치 않으면 크게 처벌하겠다”는 綸音을 내렸으며 洪啓勳에게 600명의 병력을 이끌고 현지로 가게 했다. 4월 1일 魚允中은 국왕의 綸音을 전했으며 4월 2일 장내리 동학도들은 해산했다. 이를 확인한 魚允中은 全羅道로 향했으며, 院坪에서도 대부분 해산하고 “數千名이 報恩으로 가다 珍山郡에서 魚允中를 만나 綸音을 받고” 역시 해산 했다.¹⁸⁶⁾

4) 金德明包의 革命活動

박해와 수탈에 견디다 못한 전라도 서부지역 동학도들은 1894년 1월 고부 농민이 관아 습격을 계기로 3월에 輔國安民 除暴救民의 기치를 들고 혁명의 깃발을 올렸다. 吳知泳의 東學史는 白山에서 “중망에 의해 全琫準이 大將이 되고 孫華仲·金開南이 總管領이 되고, 金德明·吳時泳이 총참모가 되고, 崔景善이 領率將이 되고, 宋喜玉·鄭伯賢 등이 秘書가 되어” 혁명지도부를 구성했다 한다.

龍溪丈은 金開南·孫華仲 大接主와 같이 金溝 大接主로서 혁명초기 동학군 동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院坪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金永年の 甲午略歷

181) 權秉應의 一生에 “道中 禮服인 周衣를 着하고 9인이 各其 手珠를 執하고 呪文을 誦하니 觀覽 諸人이 雲集 四圍했다”하여 9인의 代表가 進伏했음을 밝히고 있다.

182) 天道敎南原郡 主任宗理師 崔炳鉉 著 南原郡東學史.

183) 天道敎書·天道敎會史草稿 癸巳條에 “湖南道人 數千名이 參禮驛에 會集하여 觀察使에게 明寃하니 그 辭義는 除害求生이러라”고 했다. 東學亂記錄 상 東徒問辨에도 삼례집회를 기술하고 있다.

184) 東學亂記錄 上 聚語 癸巳 3月20日 探知 21日發報○는 “人名數或二萬餘名 而城內之人不過萬名”이라 했다.

185) 東學亂記錄 上 東徒問辨에 “是時東徒雲集 金溝者殆萬餘”라 했다.

186) 南原郡東學史.

에도 동학의 初期 주동자로 金溝의 金德明, 茂長의 孫華仲, 泰仁의 金開南을 곱았으며 수천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활동했다 한다. 그런데 東學史에서 孫華仲 · 金開南을 總管領으로, 金德明 · 吳時泳을 總參謀로 기록한 것은 어딘가 석연치 않다.

龍溪丈은 大接主이며 50세의 고령이므로 諮問役에 그쳤고 全瑋準 大將 휘하에서 總參謀職은 맡지 않은 것 같다. 判決宣告書에도 “金溝地方에서 聚群成黨하여 官庫의 軍物을 搶奪하고 民間의 錢穀을 掠奪했다”¹⁸⁷⁾고 하여 금구지역에서 활동하며 대도소를 통해 군수물자를 조달하는데 힘쓴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巡撫先鋒陣營錄에도 “院坪店에 대도소를 설치하고 사전과 공곡을 받아들이며 평민을 학대했다”¹⁸⁸⁾고 하여 원평에서 군량미 조달에 힘쓴 것이라 했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에는 “3월에 동학당 약 3천명이 金溝로부터 泰仁을 거쳐 扶安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대장으로 추대된 이는 田明述(全明叔)이라며 40세 가량으로 복장은 보통이었다”¹⁸⁹⁾고 했다. 역시 龍溪丈이 출진관계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¹⁸⁹⁾ 황토재 싸움을 비롯하여 전주성 공격 등에 龍溪丈이 참전했는지 좀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公州戰鬪에서 후퇴한 全瑋準 將軍이 11월 25일 院坪으로 후퇴, 최후의 전투를 벌였을 때에는 사태가 다급한지라 龍溪丈은 招募에 앞장서는 동시에 전투에 참여했었다. 그러나 일본군의 월등한 무기 앞에 패하여 해산 되었다. 全瑋準은 供草에서 “다시 초모하니 수는 늘었으나 규율이 없어 再開戰하기는 어려웠다. …日兵이 따라와 2차례 접전하다 패하여 해산했다”고 했다. 龍溪丈은 長興里 安靜寺洞 골짜기에 숨었다가 1895년 1월 1일에 태인 수성군에 붙잡혀 巡撫營으로 압송됐다.¹⁹⁰⁾ 후손 金炳壹에 의하면 “어깨위에 긴 나무를 얹고 양팔을 벌려 묶은 다음 상투를 풀어 뒤로 당겨 나무에 묶어 얼굴이 하늘로 제쳐진 채 끌고 갔다” 한다. 羅州를 거쳐 서울로 올라가 3월 29일 교수형으로 순국했다. 동생인 海山 金寅相도 그 뒤 체포되어 全州에서 처형 당했다. 다행히 아들 洪九와 昌九은 살아남았으며 屍身은 간신히 모셔다 長興里 安靜寺洞에 안장했다.

3. 孫華仲 大接主

1) 出生과 入道

名은 正植이요, 字는 華仲 또는 化中이며 號는 楚山이고 本貫은 密陽 孫氏이다. 1861년(辛酉 哲宗 12년) 6월 22일에 부친 孫浩烈과 모친 平康 蔡氏의 아들로 정읍군 科橋里에서 출생했다. 원래 부안에 거주하다 1860년 가을에 임신 중 과교리로 와서 출생했다 하며 9세 때에 건너 마을 蔭城里로 이사했다 한다.¹⁹¹⁾

187) 東學亂記錄 上 甲午略歷에 “東學巨魁金溝之金德明 茂長之孫華仲 泰仁之金開南 各有徒數千.

188) 東學亂記錄 上 巡撫先鋒陣營錄(乙未正月).

18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全羅民擾報告 宮闕內騷擾ノ件

190) 東學亂記錄 上 巡撫先鋒陣營錄(乙未正月) 泰仁縣守城座首 報告에 “今月初一日 道內巨魁 金溝縣龍溪洞金德明捉待”라 했다.

10여년간 한문수학을 마치고 20대부터 외지에 출입하며 식견을 넓히는 동시에 부패한 사회상을 통탄하며 우국하는 심정을 키워 갔다. 처남 柳龍洙와 靑鶴洞에서 東學에 입도한 후 布德에 힘써¹⁹²⁾ 大接主가 됐다. 井邑 農所里, 笠岩 新錦里 등을 옮겨가며 布德하다가 高廠 松星面 양실로 옮겨 자리잡고 高廠과 茂長 일대에 엄청난 교도를 했다.¹⁹³⁾

1892년 8월에 茂長 禪雲寺 兜率庵 마애석불의 黔丹大使 秘訣錄 사건으로 楚山丈의 명성은 더욱 알려져 민중들이 모여들었다. 東學史에는 高廠의 吳河泳·吳時泳·林享老·林天瑞, 茂長의 宋敬贊·姜敬重, 興德의 高永叔, 井邑의 孫如玉·車致九 등 쟁쟁한 접주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32세의 젊은 나이로 包의 두령이 되어 南啓天·金洛三과 같이 중요한 자리에는 반드시 참여하는 인물이 됐다.

2) 茂長起包 革命運動 主導

1892년 11월의 參禮 敎祖伸冤運動에는 물론, 광화문전 伏閣 敎祖伸冤運動에는 호남의 金錫允·金洛喆·金洛鳳·南啓天·張景化·趙東賢·裴奎贊 등과 같이 참여했다. 그리고 1893년 3월에 院坪의 斥倭洋倡義運動에는 많은 도인들을 동원하여 참여 했었다.

1894년 1월 全琫準 將軍이 주도한 古阜官衙 습격 이후 李容泰 安賑使의 보복적인 만행으로 全琫準 將軍 등 수십명은 3월 초에 茂長 孫華仲包로 피신했다.¹⁹⁴⁾ 楚山丈은 이로부터 全琫準 장군의 주장에 따라 革命運動을 준비하게 됐으며¹⁹⁵⁾ 결국 金德明·金箕範 大接主와 3월 21일 백산에서 혁명의 깃발을 올리기로 다짐했다. 金德明包는 院坪에서, 金箕範包는 泰仁에서, 孫華仲包는 全琫準 將軍과 같이 茂長 堂山에서 3월 19일경에 기포, 백산으로 향했다. 3월 21일¹⁹⁶⁾에 白山에서 革命軍의 기구를 구성할 때 楚山丈은 金箕範과 더불어 總管領이 되었다.

혁명초기 楚山丈은 全州 점령 때까지 金德明包와 金箕範包와 연합작전을 펴며 전투에 참여하여 성공을 이루었다.¹⁹⁷⁾ 그러나 화약 이후 楚山丈의 활동은 주로 光州 및 長城·羅州地域에서 활동했다. 병력이 필요할 때면 高廠과 茂長에서 많은 동학군을 동원하기도 했다.

191) 孫子 洪哲의 證言.

192) 崔玄植著 甲午東學革命史 第3章 第1節 全琫準과 孫華仲.

193) 崔玄植著 甲午東學革命史 第3章 第1節 全琫準과 孫華仲.

194) 石南歷史에는 “全大將은 본시 東學密道部下 數十名을 領率하고 不知去處에 헤어졌다”고 했다.

195) 日本京都大學 河合文庫 隨錄에 있는 茂長縣監牒呈에 “이달 16일 茂長縣 冬音特面 堂山리에 수상한 무리들 數千名이 모여 머물고 있는데 …이곳을 사람이 아니고 …이들은 東學徒라 하는바 처음에는 100여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16일부터 18일까지 …사방에서 모여들어 千名에 이르렀다 한다. 그들의 말로는 일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하며…은밀히 염탐하니 대오를 짜기도 하고 다시 흩어지기도 하며 차차 장비를 정리하는 기색도 보인다”고 했다.

196) 梧下記聞 三月條에는 “20일에” 起包하여 以後부터 各邑을 占領했다 한다.

197) 判決宣言書에는 “全羅道 古阜郡衙로 들어와 軍器를 捉奪하고 …全羅監營軍을 抗敵하여 井邑·興德·高廠·茂長 等地를 지나 全州로 들어가 招討使 洪在義가 거느린 官兵을 抗敵”했다고 한다.

3) 光州 長城地域 留陣

全琫準供草에 의하면 楚山丈은 전주 화약 후 全琫準 將軍과 같이 전주를 떠나 전라 右道 列邑를 순회했으며 4~5개월 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다가 9월 초에 長城에서 처음 만났다. 아마도 楚山丈은 高廠·茂長·靈光·咸平·長城·光州 지역을 관찰 감독한 것으로 보인다.¹⁹⁸⁾ 그러나 남도의 핵심부인 羅州가 閔鍾烈이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격의 위협을 가해와 光州·長城을 떠날 수 없었던 것 같다.

羅州守城軍과 최초로 전투한 것은 10월 21일 魚嶺山 남쪽 仙巖에서이다. 羅州守城軍이 砧山 동학군을 공격하자 이들은 순화중 대접주 본대가 있는 仙巖으로 합류했다. 仙巖은 察訪驛站으로 교통이 편하고 평야지대로 식량조달에 어려움이 없었다. 동학군 만여명이 깃발을 꽂고 포성을 울리며 강변에서 위세를 떨치자¹⁹⁹⁾ 기세에 눌린 守城軍은 머뭇거렸다. 接應將 孫商文 등이 100명 포군을 이끌고 지원해 오자 무기들의 우수성을 믿고 공격해 왔다. <錦城正義錄>은 관군이 대승했다 기록했으나 <蘭坡遺稿>에는 동학군의 작전에 말려들어 간신히 빠져나왔다고 했다.

守城軍이 공격하자 동학군은 슬그머니 魚嶺山 남쪽 야산으로 들어갔다. 수성군은 추격해 들어갔으나 매복했던 동학군은 반격하자 급히 후퇴하여 빠져나갔다.²⁰⁰⁾ 순화중·최경선·오권선의 동학군은 나주 외각지역을 완전 장악하고 있었다.

수성군은 11월 13일부터 聳珍山の 동학군 연합 병력을 공격하기 시작했다.²⁰¹⁾ 도통장 鄭錫珍은 600명의 병력으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후퇴했다.²⁰²⁾ 後應將 孫商文이 당도한 다음 聳珍山을 공격해 올라갔으나 동학군은 이미 타지로 이동한 후였다. 錦城正義錄과 蘭坡遺稿는 대승이라 했으나 수성군이 나주로 돌아가자 여전히 동학군 천지였다. 楚山丈이 全琫準 將軍의 복상에 합류하지 못한 이유는 日本軍이 나주 해안으로 상륙한다는 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지역을 떠나면 수성군의 반격으로 많은 동학도들이 희생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인 것 같다.

순화중 대접주와 최경선 접주가 이끌었던 수만 동학군들은 해산하기 시작했고 楚山丈은 11월 27일 光州에 입성했다가 12월 1일에 완전히 해체하고 말았다. 그 후 禪雲寺 쪽 길마재 고개 李某의 祭室에 숨었다가 12월 11일에 李鳳宇의 밀고로 체포당했다. 1895년 3월 29일에 全琫準·金德明·崔景善·成斗煥과 같이 사형선고를 받고 다음날인 30일 새벽 2시경에 35세의 나이로 순국했다.

198) <鳳南日記> 10월 28日條에는 “高敝接 來到本府 自本村點心四百床 負送支供…夕陽高敝接千餘名 移陣于黃龍市”라 했다.

199) <蘭坡遺稿> 甲午討平日記에는 “于時接應將 孫商文…等 …砲軍一百名…大張旗幟簇擁而來 威聲益振…光州仙巖等地 賊徒數萬列陣江邊 建旗放砲誇張聲勢”라 했다.

200) <蘭坡遺稿> 甲午討平日記는 “官軍乘勝追之 而慮有孤軍深入 揮旗招軍 呼名點閱 則一無所傷”이라 했다.

201) 鳳南日記 11月 初6日條에 “本道伯李道宰 兼宣撫使 關文是日來接于羅州牧 京軍五千名 已接本道 則羅州亦當發兵郡剿滅云…”이라 했다.

202) <錦城正義錄> 甲編에는 “翌朝探報 賊移陣於聳珍山上 遂使中軍…突擊…含枚倍道暗覘賊勢 猝遇數千 賊徒於聳珍中峰 賊亂砲放下…兩陣砲聲掀天盪地 衆寡相懸 接應亦難麾旗招軍”이라 했다.

4. 崔景善 接主

1) 出生과 入道

名은 炳碩이오, 초명은 萬碩이고 字는 洛弼 또는 景(卿)善이며(判決宣言文에는 崔永昌, 字는 卿宣) 號는 舟山이고 本貫은 全州 崔氏이다. 1859년(哲宗 10년) 11월 18일에 泰仁 西村面 月川里에서 부친 崔成龍과 모친(未詳) 사이에 第3子로 출생했다. 한문수학이 깊었으며 全琫準·金開南과 동향이라 하며²⁰³⁾ 全琫準供草에는 “崔景善과 친한지 몇해인가 묻자 동향으로 친한지 5~6년이 된다”고 했다. 동학 입도는 32세 때인 1890년 경으로 金德明包 관하에 속하게 됐다. 그 후 舟山을 중심으로 포덕에 힘쓴 결과 1892년 경에 接主가 됐다.

2) 革命初期의 役割

舟山丈 崔景善 接主는 全琫準 將軍과 절친하며 1894년 1월 農民 古阜官衙를 습격 당시 건장한 道人 3백명을 미리 동원하여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후 全琫準 장군과 같이 茂長 孫華仲包로 가서 혁명을 준비하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다했다. 白山에서 혁명군 진영을 조직할 때 領率將이 되어 초기 혁명운동 때 크게 이바지 했다. 判決宣言文에서도 “官軍을 抗敵할 때에 全琫準의 股肱이 되었다”고 했을 정도로 全琫準 將軍과 뜻을 같이했다.

5월 초 全州和約을 마치고 全琫準 將軍과 같이 長城·潭陽·淳昌·玉果·南原·昌平·順天·雲峰 등지를 돌며 군를 다지고 사기를 떨치게 했다. 이 때 羅州牧使 閔鍾烈이 유독 혁명에 저항하자 이들을 격파할 결심으로 崔景善은 羅州로 내려갔다. 井邑·長城·潭陽·同福 등지에서 동학군을 초모하여 羅州 接主 吳權善(吳仲文)과 연합하여 북면일대와 老安 金安里에 주둔하면서 羅州攻城을 준비했다.

錦城正義錄에 의하면 “右鎮營 營장 李源佑, 鄭台完(鄭錫珍) 都統將, 金在煥 副統將, 孫商文 都衛將, 金聲振 中軍, 金蒼均 統察” 등 특출한 인물이 많았다. 그리고 “村閭閑丁으로 16哨의 대오를 만들었고…城堞을 보수하고…사격훈련도 했다.”²⁰⁴⁾ 한다. 哨當 125명이므로 2천명이 넘었고 출동할 수 있는 병력은 약 6백명이며 민병 또한 3천명 정도였다. 東學軍 측도 崔景善과 吳勸善이 이끄는 수천명씩과, 全有昌·姜大說 등이 이끄는 수천명으로 근 만명에 달했다.

최초의 공격일을 7월 5일(양 8월 1일)로 정하고 북면 일대에서²⁰⁵⁾ 7월 4일경에 老安面 金安里로 진격했다.²⁰⁶⁾ 7월 5일(양 8월 5일) 오후부터 동·북·서쪽 세 방면에

203) 崔玄植著 甲午東學革命史 第8章 人物誌.

204) 錦城正義錄> 甲編에는 “右鎮營在南門外 營將李源佑同心協義 辦理機務…於是 以 鄭台完爲都統將 金在煥爲副統將 部分隊伍次第掠定 孫商文爲都衛將 金聲振爲中軍 金蒼均爲統察 朴根郁別將掌西門 文洛三別將掌北門 朴允七別將掌東門 文寬厚朴京郁別將掌南門 其餘別將別哨參謀書記偵探導訓導千總把總各隨材任能凡六十八人…村閭閑丁亦皆募入 分作十六哨結 軍幕于城上 一邊修繕毀堞一邊支給糧餉 晝則放砲練習 夜則點火延燭 蒞黎密鋪城堞以防不虞 指揮節制皆屬于都統將”이라 했다.

205) <錦城正義錄> 甲編에는 “五六兩朔之交日 復日益益猖獗 州北四十里 舉在荊棘中 其行軍也 吹羅放砲 建大旗乘善馬 來往于平林 新市及北倉等地”라 했다.

서 포위하고 공격했다. 錦城正義錄에는 동학군이 “개미 떼 처럼 금성산錦城山에 붙어 기어올라 초 5일 어두워 질 무렵 산 정상에서 물밀듯이 내려와 서문을 공격해 왔다”²⁰⁷⁾는 것이다. 그리고 “성문을 굳게 닫아 만 명이 달려들어도 열 수 없었다”는 것이라 했다. 원래 성채가 견고하고 무력이 월등하여 일차 공격은 실패로 돌아 갔다.

전봉준 장군은 관찰사 김학진에게 새 목사를 임명해 주도록 요청했다. 김학진은 민중렬과 이원우의 파직을 중앙정부에 제청했으며²⁰⁸⁾ 정부는 7월 19일에 朴世秉을 나주목사로 발령했다. 일단 사태가 풀리는 듯했으나 나주읍민이 민중렬을 못떠나게 막자 박세병은 부임을 포기했다.²⁰⁹⁾ 한편 정부는 承旨 嚴世永을 보내 알아보게 하였는데 보고하기를 민중렬과 이원우를 치켜세웠다. 조정은 민중렬을 계속 나주목에 머물도록 했다. 8월 8일 全琫準 將軍은 종자 몇 사람과 십여 관원을 대동하고 나주로 떠났다. 어등산에 들려 崔景善과 吳權善과 대책을 의논한 후 동학군을 2~30리 후방으로 물러나게 한 다음 8월 13일에 성중으로 들어가 담판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한편 수구파들은 8월 17일자로 민중렬과 이원우를 다시 나주목사와 우진영 영장으로 임명했다.²¹⁰⁾

이로부터 나주 수성군은 동학군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다.²¹¹⁾ 鳳南日記 10월조에는 “나주목사는 병력을 늘리고 성첩을 수축하고 무기를 보완하는 등 동학군과 대항하기 위해 여념이 없었다.”고 했다.²¹²⁾ 결국 舟山丈 崔景善은 이런 상황에서 羅州를 떠날 수 없었고 수차에 걸쳐 공방전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11월 13일의 용진산 공방전을 거쳐 11월 24일의 羅州城 최후 공격 등 혈전을 벌려야 했다. 최후의 공격전이 있던 이날 수성군의 기습을 받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천추의 한을 남기고 퇴산했다. 羅州 북면 일대의 동학군은 11월 23일에 노안면 金安里까지 진출했다.²¹³⁾ 남쪽 古幕浦에도 수만 동학군이 포진하고 있었으며 북쪽에서도 나주를 압박해 들어갔다. 24일 밤 북문 咸朴山까지 진출했던 동학군은 혹독한 한파로 夜宿하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이 때 관군의 기습을 받고 무너지니 11월 24일은 나주 동학군이 막을 내리던 날이다.

11월 중순 이후 동학군 주력군이 공주전투에서 무너지자 수성군은 사기가 충천한

206). <錦城正義錄> 甲編에는 “七月初朔 賊魁崔京先(景善) 率黨數千蹂躪長驅 直搗本州 吳權善(勸善)爲僞鬼率其衆 合陣于金安洞 侵掠數三日”이라 했다.

207). <錦城正義錄 二筆>에 “蟻附錦城山 初五日昏黑 自山嶺一齊滾下 直薄西城門”이라 했다.

208). <梧下記聞 二筆>에는 “完伯金鶴鎮啓請 羅州牧使閔種烈 營將李源佑皆罷職”이라 했다.

209). <梧下記聞 二筆>에는 “以朴世秉爲羅州牧使 閔種烈見羅吏民 遮留不得去 且賊甘心種烈 故種烈不得作行計 李源佑奮曰 此非朝廷意 乃賊臣受嗾也 牧師欲去自居 我不可去 遂益繕守備 世秉以道梗 亦不能赴任”이라 했다.

210). <日省錄> 8月 17日字.

211). <錦城正義錄> 甲編에 “九月日守城將領 請曰 現今賊勢益益猖獗 浸迫隣境 此而不討將有剝床切近之灾 願一出戰燒蕩 其巢穴以警賊徒…閔公吾亦有此心久矣 顧念農功未畢 稻梁樓飲 此時行軍 功他踐踏 致有 百姓愁恨之聲 姑竣堅壁清野之日 第往出討”라 했다.

212). 邊萬基의 <鳳南日記>에는 “守城軍五千名 修築城堞 結幕於壘 埋炮於堞 以爲固守許 日前於池島 大梃砲十柄 又得千步砲四十九柄”이라 했다.

213). 錦城正義錄 甲編 11月 22日條에는 “北面匪魁吳勸善 更聚五六邑徒黨 戕民劫財 人烟將絕 警報式至二十三日 賊衆數萬 進屯於金安面南山村 太平亭等地 距邑十里”라 했다.

반면 동학군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나주지역 동학군도 이 소식을 접하자 동요하기 시작했고 11월 24일 나주 공격 동학군들이 남산촌에 집결해 있다 수성군의 기습으로 완전히 흩어져 버렸다. 이 후 나주는 일본군과 경군이 진주하여 전라도 동학군을 토벌하는 본거지가 됐고 1895년 초까지 동학군을 체포해다가 처형하는 학살장으로 바뀌었다.

舟山丈은 11월 27일(양 12월 23일) 손화중과 같이 광주에 입성했다가 작별하고 12월 1일에 동북으로 와서 관군과 싸우다 체포되어 일본군에 넘겨져 1895년 3월 30일에 37세로 全琫準·金德明·孫華仲과 같이 순국했다.

5. 결 론

龍溪丈은 42세에 입도하여 포덕에 힘써 大接主가 되어 수천의 교도를 거느렸다. 그리고 參禮 敎祖伸冤運動을 위시하여 각종 집회와 운동이 있을 때 마다 경제적인 뒷받침을 다해왔다. 院坪에서 1893년 3월 척왜양창의운동을 벌렸을 때 1만명이 모여 20일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龍溪丈의 경제적 동원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²¹⁴⁾ 그리고 전봉준 장군에게 군량미를 공급하는 일도 龍溪丈이 거느린 원평 대도소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마디로 龍溪丈의 인품과 능력은 전라도 서북부지역 동학도들의 구심점을 이루게 한 폭넓은 인물이었다.

비록 나이 때문에 전투에 참여하지는 못했으나 全琫準 將軍으로 하여금 근거지로 삼게 했으며 院坪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했다. 斥倭洋倡義運動 때도 원평에서 주도적 역할을 다했으며, 1894년 3월 기포 때도 3천의 병력을 원평에서 동원했으며, 화약 이후에도 한 때 원평에 머무른 적이 있으며 11월 최후의 전투 때도 이곳에 와서 초모하여 격전을 벌인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全琫準 將軍과 龍溪丈과의 관계도 다시 규명해 보아야 할 줄 안다.

楚山丈 孫華仲 大接主는 일찍 동학에 입도하여 南啓天·金錫允·金洛喆 등과 행동을 같이하며 매우 종교적인 활동을 했다. 전라도에서 강력한 동학조직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남을 감복시키고 믿고 따르게 하는 뛰어난 인품을 가졌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스승인 해월을 매우 존경했으며 따랐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부패상을 묵과할 수 없어 全琫準 將軍과 뜻을 같이 혁명의 기치를 들게 됐다. 全琫準 將軍과 같이 초기 혁명운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은 楚山丈의 젊은 패기가 한몫을 한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全州和約 후 근 4개월간 남부지역에 머물러서 全琫準 將軍과 상면하지 못했으며 全州로 가자는 권유도 거절했다. 특히 9월 再起包 때 全琫準 將軍과 행동을 같이 북상하지 않았으며 全琫準 將軍이 패전 후 위기에 처했을 때 지원대책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반대하던 북점 동학군도 9월 재기포 후 합류하여 생사를 같이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앞으로 이 점은 심도있게 연구 되어야 할 것이다.

舟山丈은 全琫準은 供招에서 “너와 동모한 孫華仲과 崔景善은 모두 동학을 몹시

214) 母岳郷土文化史研究會長 崔洵植에 의하면 富者인 同族으로부터 경제적인 뒷받침을 받았다 한다.

좋아했는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한 것으로 보아 종교적 신념이 두터웠음을 알 수 있다. 金德明包의 接主로서 全瑋準 將軍과 극친했던 그는 초기 혁명과정과 全州和約 후 列邑을 순회할 때까지 全瑋準 將軍과 일심동체가 되어 활동했다. 그러나 나주 수성군과의 그칠 줄 모르는 공방전 때문에 떠나 全瑋準 將軍과 합류할 수 없었다. 만일 그가 가담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할 뿐이다.

